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관돌고을 산신마을

이 마을지는 이천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마을기록입니다. 전승위기에 처한 소당산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통마을의 고유한 역사·
생태·민속자원의 조사와 구술채록, 문화자원의 활용방향에 대한 제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封建고을 산신마을



| 발간사 |

새로운 마을 기록의 효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천 최초의 마을지

이천에서는 1871년 이천부읍지, 1955년 이천대관, 1984년 이천군지, 그리고 2001년 이천시지 등과 같은 기록작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군 단위의 의미 새기기 작업은 개인에 대한 자각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국가의 역사가 가장 우선적이고 지방의 역사는 부차적이며 그저 변두리의 역사에 불과했습니다. 개인과 마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반대가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마을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개인과 마을의 역사가 모여 국가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자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천문화원은 1996년 백사면을 시작으로 2002년 대월면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10개의 읍면 민속조사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내 중심지역인 4개 동 지역에 대한 도심권 민속조사보고서를 완성함으로써 시군 단위보다 더 내려 간 읍면 단위의 기록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의 기록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석리 마을지는 이천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마을지입니다.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를 마을의 주민으로 자각하고 공동체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 기록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지리적 공간 속에 잡자고 있던 지석리는 비로소 주민들의 삶의 체험이 묻어있는 장소로 변화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주민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마을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2011년부터 경기도의 마을기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관점은 급격한 개발에 따라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의 전통적 가치와 보존적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삶의 기억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지는 주로 과거의 기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외부적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을주민은 고령화되고 자녀들은 편리한 생활을 좋아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에도 이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들의 후손에게 살만한 마을로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마을이 ‘이랬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바램도 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을지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닌,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 찾아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리의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뭘 고민했는지 그 흔적이 묻어나야 합니다. 마을주민이 처한 현실과 공동체적 의식이 녹아있어야 합니다. 마을주민이 어떤 역사를 겪어왔고 뭘 지키려고 해왔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민속지에 불과하지 진짜 마을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기를 깐 마을 산신제의 기록

소당산 산신제는 이천지역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산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제관을 선정하고 일주일 전부터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음력 2월 초이튿날 엄동설한 새벽 4시부터 산에 올라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제사가 끝납니다. 산제사 제물로는 반드시 황소를 잡아 바쳤는데 이는 소당산 산신이 호랑이 여산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물로 쓸 황소를 통째로 도축하고 바치는 일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닙니다. 게다가 금기사항도 많습니다. 제관은 집에 흉사가 있거나 여성의 달거리가 있어도 안 되고 술, 담배나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에는 여성이나 총각이 철저하게 금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이 산제사를 그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왔으며 일제 강점기 때도 감시를 피해 몰래 지냈고 6.25 때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석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산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이 컼기 때문일까요? 소당산은 ‘솔뚜껑(鼎蓋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것입니다. 지석리 마을 하나만이 아니라 이천고을에 사는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밥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소당산은 원적산, 천덕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풍수적으로는 이천의 주인격이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당산의 산신은 이천의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고 소당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지석리뿐만 아니라 이천 고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기를 깨고 소당산 산신제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마을 어르신들이 산신제에 올라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조사자는 여성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지석리 어르신들은 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랜 세월 비의적으로만 전승되던 소당산 산신제는 지석리를 넘어 이천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산제사로 그 의미가 확산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활용방안을 담아낸 마을지

지석리 마을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성은 지석리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마을지들이 마을의 개관, 마을에 전해지는 민속과 전통 등 과거적 삶을 기록하고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지석리 마을지에서는 마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들을 미래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선택했습니다. 지석리 마을의 수목과 생태자원, 소당산 산신제를 비롯한 민속자원, 토박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자원, 그리고 이들 자원의 활용방안 등 마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나니 마을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옛것으로만 놓아두면 그것은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차디찬 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석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석리 마을에 전승되어온 수많은 민속과 전통을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처럼 현재와 차단하고 그저 보존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끌어내서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현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을 쓸 때 옛 ‘고’(古)를 쓰지 않고 연고 ‘고’(故)를 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석리 주민들은 마을지를 통해 지석리의 민속과 전통에 대해 왜 그러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민관점, 주민주도의 마을기록을 예고하는 마을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마을지는 대부분 전문기관이나 조사자들이 마을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별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는 대로 그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석리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지석리 주민들이 먼저 마

을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의 욕구와 바램을 표출시켰습니다.

지석리 주민들이 직접 원고 집필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조사자들에게 마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셨고 금기시된 산신제를 참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터뷰에도 적극 참여해주셨고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수박과 음식을 날라다 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석리 마을지의 성과 위에서 다음에 만들어지는 마을지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석리 마을지는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힘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마을지의 시대를 예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을지 발간을 계기로 지석리 주민이 하나가 되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끌어내고 이를 콘텐츠화해 나간다면 지석리 마을은 머지않아 활력이 넘치는 이천의 대표적인 테마관광마을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서기 2050년의 지석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직 현재에 달려있습니다. 현재는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씨를 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마을지가 지석리에 새로운 상상력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마을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이지훈 경기학연구센터장님, 집필진 한분 한분, 그리고 심판보 신둔면장님과 서학원 이장님, 지석리 마을주민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이천문화원장 조명호

| 축간사 |

마을 기록, 작은 마을의 큰 역사를 담는 그릇

지석리는 현재 인구 280여 호에 7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전에 지석리는 이천시에서도 오지라고 할 만큼 골짜기 마을에다가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시내버스가 네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권돌’이라는 옛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석리는 선사시대에 고인돌을 세울 만큼 일정한 권력과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래가 깊은 소당산 산신제를 비롯해서 소반바위, 감투바위, 벼루재들, 방아다리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서려있는 마을 지명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되진 않았지만 성터라고 추측되는 흔적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조부 대부분에서 지석리에서 살았고, 지석리가 고향인 저는 고인돌이라든지 산신제, 성터, 여러 바위들을 보면서 자라왔고,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건 어느 마을이나 있는 것 이겠거니 혹은 옛날 어른들은 이런 오래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무심히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여서인지 고향이면서도 마을 일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마을의 미래나 전망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적도 없었습니다. 4년 전, 마을 어르신들의 권유로 생각지 않았던 이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장으로서 마을 일을 살피고 챙기다 보니 지석리가

다른 마을과 달리 소중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뒷동산에 옛 산성을 쌓았던 돌들이 흘어져있고, 호랑이 여산신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6.25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겪은 역사적 현장인 베틀굴이 소당산 꼭대기 밑에 남아 있는 등 그 자체가 바로 지석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옛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마을을 유명하게 하거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실리적인 차원이 아니어서 우리 지석리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체험과 기억으로 전해지는 오래된 마을의 내력과 이야기 그리고 추억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견고함과 개성을 잃지 않는 명품 자동차는 언제라도 누가 타려면, 정확한 메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지석리 마을지는 후대에 누구라도 지석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자 할 때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소당산 산신제는 굿은 역사 속에서도 주민들이 끗끗하게 지켜온 유서깊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마을의 노령화로 산신제를 지내는 데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소당산 산신제는 지석리 뿐 아니라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과 고유성이 있는 산신제이니만큼 이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흘어지고 망실되어 가고 있는 산성터에 대한 조사와 보존 역시 이천시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지에 지석리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의 큰 역사를 오롯이 담으려고 애 써 주신 여러 집필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을지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분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와 이천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을지 사업이 많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7년 12월

지석리 이장 서 학 원

지석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과거와 오늘을 기록하기에 앞서

1. 기원전 2000년 지석리

이천이 있는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천 일대를 적시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복하천은 강의 흐름이 완만해지는 한강 중류지역으로 이 일대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광주와 경계를 이루면서 이어지고 있는 원적산(564m) 줄기는 광주산맥의 여맥으로 이천의 가장 북쪽 외곽에 자리 를 잡고 서쪽으로는 둔지산(344m)과 양각산(386m)으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소당산(467m)과 천덕봉(634m)으로 이어지면서 복하천과의 사이에 길고 폭넓은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원적산과 복하천 사이에 폭넓게 발달한 산록완사면 지대는 백사면과 여주 금사면으로 이어지면서 남한강에 이른다. 신둔의 경우 복하천의 지류인 신둔천(한내라고도 부름)이 원적산 남쪽 3~5km 정도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비옥한 평야를 이루었고, 오래전부터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 신둔의 이러한 지세 조건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멀리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 하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천에 선사유적이나 유물이 조사·발굴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별로 알려진 것도 없었다. 이천지역에 선사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1977년 문화재관리국(문화유적총람)의 조사를 시작으로 1986년 한양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여주·이천 지표조사보고서), 199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이천의 문화유적-이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그리고 2000년 세종대학교 박물관(이천지역 고인돌 연구)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조사들이 주로 지표조사에 의존한 성격이었지만 이 지역에 다수의 지석묘와 무문토기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만한 주거지로 인식되어왔음을 시사한다.¹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신둔지역에 처음 정착한 선사시대의 이천사람들을 ‘호모 이천니쿠스’(Homo Icheonicus)라고 명명해보자. 이들은 이 일대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한강 중류지역에서 복하천을 따라 올라오면서 이는 북쪽으로 거센 북풍을 막아주고 있는 원적산과 그 아래로 하천을 사이에 두고 너른 평야와 완만한 구릉지대를 발견하고 이 일대에 펴져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로 강에서 고기를 잡거나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짐승을 사냥하기도 했다. 돌을 깨거나 다듬어 찍개와 돌칼 같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곳 일대의 환경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이 지역은 풍요의 땅이었다.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집단이 형성되면서 씨족별로 서로의 사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어디엔가 신성한 장소로부터 큰 바위들을 끌고 와 경계를 삼았다. 널찍한 돌 위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고 죽장이 죽으면 돌무덤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했다.

신둔 일대의 넓은 구릉지에는 널찍한 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바위들은 어디서 운반해 온 걸까? 돌을 옮기기 위해선 온 씨족마을의 장정들이 총동원된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냇가에서 몸을 씻고 소당산 기슭에 있는 신성한 장소로 올라가



¹ 지석리, 소정리 등지에서 찍개, 톱니날석기, 몸돌 같은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어 보고되었고, 수하리, 도암리, 남정리, 소정리, 지석리 등지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 엎드려 기원을 드린 다음,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이 거대한 바위의 결을 살펴 갈라진 틈새에 말뚝을 박고 물을 붓는다. 이렇게 몇 번의 반복과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찍 소리를 내고 바위가 갈라지는데 그러면 장정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바위를 결대로 떼어낸 다음 운반하기 시작한다.

이 바위를 그들이 사는 주거지 부근까지 끌고 오는 일은 몹시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운반 중에 잘못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천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며 인구가 늘고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돌을 옮기는 기술도 점점 발전했다. 족장이 죽으면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돌무덤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이 돌무덤의 크기로 그 씨족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에 점점 돌무덤의 크기가 커져갔다.

기원전 2000년 가을, 지금의 지석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신둔 일대에서 살아가는 호모 이천니쿠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지석리 족장의 돌무덤을 세우는 작업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제껏 세워졌던 돌무덤 보다 두세 배는 될 만큼 엄청난 크기에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이 엄숙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 크기의 덮개돌을 끌고 오려면 장정들 100여 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했을 텐데 이들에게 딸린 식솔들까지 지금 모두 모여 있으니 어립잖아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금 족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족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지석리 주민들은 고된 노동을 마다않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돌무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

족장은 사십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맷돼지 사냥을 잘 하기로 유명했다. 지석리가 이 지역 일대에서 잘 사는 마을이 된 것도 다 이 족장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흘 전 장동리 산골에서 내려온 우람한 맷돼지를 몰다가 그만 이 사나운 짐승의 앞니에 들이받혀 족장은 장렬하게 숨을 거두었다. 짚은 시절엔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돌도 번쩍 들어 넷가에 정검다리를 곧잘 만들었고, 사냥에 나가서는 언제나 몰이꾼으로 제일 많은 공을 세웠던 그였다. 지석리 주민들은 족장의 시신을 덮개돌 위

에 눕히고 애도했다. 축 처진 그의 두 손과 얼굴을 매만지며 한 여인이 길게 애곡을 하니 그 옆에서 아이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 시간 지석리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아보였다. 죽은 족장을 이어서 지석리 씨족을 이끌 새 지도자가 뽑혔기 때문이다. 덮개돌 위에 움푹 패어진 수많은 구멍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뜬 것이기도 하지만 씨족의 번성을 기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점을 치는 기능도 있었다. 어제 점을 친 결과 새 족장이 뽑혔다. 평소 용맹하고 씨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모두가 만족해했다. 이제 지석리는 인구가 더 불어나고 번성할 것이다.

2. 지석리에 고인돌이 없다?

1982년 이천문화원은 지석리 고인돌 유적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제1집 역사·유적편)에 보면 신둔면 '지석리'(支石里)라는 한자명이나 예부터 불리어지던 '권들'(권들)이라는 자연부락명에서 이 지역 일대에 고인돌이 여럿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그렇다. 지석리라는 마을명은 지석, 고인돌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전국에 지석리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신둔 지석리를 포함해 8개나 된다. 충남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서천군 종친면 지석리,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이런 마을은 대개 지형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마을이 구릉 언덕지대에 자리하고 있고 마을 앞으로는 하천이 흐른다. 작은 내가 흐르는 경우도 있고 인근에 큰 소(沼)가 있거나 저수지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신둔의 지석리는 형세가 어떤가? 원적산과 복하천 사이의 낮은 구릉지대는 선사인들의 주거 환경에 적절하고 하천에 가까운 완만한 평야지대는 관개가 용이



해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1990년대에는 신둔에서 백사에 이르는 이 산록완사면에 수백 기에 달하는 고인돌이 산재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3년 강덕영이 출간한 ‘이섬대천’에는 이 일대에서 발견한 여러 기의 고인돌 사진을 수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7년에는 강덕영과 동행하여 필자는 신둔지역 고인돌을 세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조사 결과는 지석리 마을 위쪽에 있는 암괴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고인돌이 아니라 흑운모편암 계통의 암괴가 절리나 편리현상에 의해 떨어져 나간 자연암석들로 판명하고 있다.² 너무도 실망스런 사실이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곱씹어볼 때마다 필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천의 가장 대표적인 고인돌로 알려진 지석리 고인돌도 행정 구역상으로는 수하리에 속해있으니 사실상 지석리에는 고인돌이 하나도 없게 된 셈이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고인돌에서 유래된 지석리 마을의 정체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이럴 수가. 지석리에 고인돌이 없다니…….

2000년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 보고한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는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둔과 백사 일대의 고인돌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백사 현방리지역 고인돌이 비교적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둔지역 고인돌의 경우 농경지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파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당시 고인돌 문화를 이루었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예상 거주지는 주로 지석리, 신대리, 현방리, 경사리 등에서 거주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 셋째, 이 지역에 산재해



²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천의 문화유적 - 이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1998, p29.

있는 고인돌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고인돌을 이동해온 근원지를 추정할 때 지석리 일대가 가장 유망한 고인돌 자원의 입지조건이라는 점. 넷째, 지석리 마을 뒤편 산 경사면에 있는 암석들은 이 지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덮개돌 길이와 형태가 매우 비슷하며 지질조사 결과 고인돌 덮개돌의 모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³

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석리의 마을 이름이 갖는 정체성과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천의 신둔과 백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그 형태 특성에서 대부분 동일한 광물구성과 조성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고인돌의 암종인 흑운모 화강편마암은 지석리 일대에서 주로 이동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정리, 수하리, 도암리 일대의 고인돌의 기원지가 바로 지석리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사실. 이들 고인돌은 아마도 지석리 마을 뒤쪽의 산기슭에서 덮개돌을 떠서 남동방향으로 운반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운반경로가 주로 하천의 발달방향과 유사한 경로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사가 급한 곳을 피하고 경사방향이 일정한 지형을 따라 돌을 옮겨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석리 산기슭에서 덮개돌을 끌어오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까? 그리고 원하는 장소로 가져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3. 지석리 마을이 겪어온 풍상

이천터미널에서 지석리로 오려면 택시를 탈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 버스를 타고 오려면 터미널에서 21~2번, 24~4번을 타면 되는데 하루에 4번만 다닌다. 버스를 타면 지석리까지는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된다. 20년 전엔 어땠을까? 남정리, 지석리, 도암리, 장동리 같은 마을은 예로부터 이천에서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그만큼 산기슭으로 올라가야 하고 도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석리는 2000년대 들어 도

3 세종대학교 박물관,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 2000, pp20~21., pp58~59., pp172~173., pp230~232.



로 건설과 송전탑 설치, 터널공사 등으로 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성남-장호원 도로공사가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리를 지나는 구간공사가 한창이었을 때 지석리 마을입구에는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다녀서 비산먼지가 심했고 발파작업과 진동, 소음으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당산 기슭(지석리 산 35-5)에 위치한 두 개의 송전탑은 급한 경사에 무리하게 송전탑을 세운 탓에 2011년 폭우에 토사가 쓸려나갔고, 2013년 7월에도 집 중호우로 인해 기초 지반의 토사와 구조물이 상당부분 쓸려나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게다가 마을 위쪽에 전원주택단지 부지가 조성되면서 2013년 폭우에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나와 마을은 폐허처럼 변했다. 소당산에서 지석리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궁돌천이 넘쳐 온 마을을 쓸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2012년에 산 중턱에 개설한 임도 역시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한 조건을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지석리 일대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는 뉴스도 끊이지 않았다. 1996년에는 해강에서 지석리 일대 10만여 평의 임야를 기증해 도자전문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고려대에 기증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2004년에는 웅진그룹이 환경교육 테마파크인 웅진 어린이마을을 신둔 지석리에 30여만 m^2 규모로 건립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몇 해 뒤 착공식까지 대대적으로 열리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벌목된 임야만 횡하게 남아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에는 특전사 부대가 이 지역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장동리, 도암리, 지석리 일원 102만평의 땅이 대상지에 포함되었는데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며 시와 군 당국에 항의하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2009년에는 인근 도암리에 장애인선수촌이 들어섰다. 지석리에는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착공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근 남정리에는 신둔도예촌 전철역이 들어섰고,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곧 개통되면 도암IC를 통해 서울로 가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다.

오지었던 지석리가 개발을 통해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개발로 인해 지석리와 마을주민은 그동안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소당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느라, 각종 도로와 여러 시설물을 세우느라 지석리는 이리저리 땅이 파헤쳐지고 산림도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홍역을 치러온 소당산이기에 지석리 마을 사람들은 최근 들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지석리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는 유서 깊은 제사의식이 있는데 바로 소당산 산신제다(지석리 산신제라고도 부른다). 이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바로 소당산 중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산지사터’라고 부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수천 년에 걸친 풍수적 기운이 작용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정리, 수하리, 도암리 일대의 고인돌의 기원지가 바로 이곳 지석리 마을 뒤쪽의 산기슭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산지사터 위쪽은 신성한 영역이고 산지사터는 신령과 인간이 만나는 구별된 공간이다. 이 터에는 제물을 진설하기 위한 축대를 쌓아두었는데 제물로는 황소를 바친다. 소당산 산신제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도 힘들뿐더러 제관을 선정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음력 이월 초이튿날 새벽 4시부터 산에 올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산신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당산 산신제가 지석리 고인돌과 함께 마을의 대표상징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마을의 정체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사람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이를 전승할 젊은이가 없어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10년 뒤, 20년 뒤엔 산신제가 마을에서 영영 사

라져버릴지 모른다. 1998년 지석리에 고인돌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도 마을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산제사가 없어져도, 고인돌이 없다고 해도 지석리는 여전히 지석리일 뿐이다... 하지만 과거가 없다면 지석리는 껌테기일 뿐이다. 개발과 농경지 개간으로 고인돌 유적들이 파괴되고 사라지면서, 그리고 갈수록 마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지석리는 이제 마을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를 맞고 있다.

4. 서기 2050년 지석리마을 – 지석리 돌의 축제

꽃 피는 4월 초, 조용하던 지석리 일대가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송정동에서 수하리로 넘어오는 길목, 그리고 수광리에서 남정리로 넘어오는 길목에 마련된 커다란 광장에는 한 달 전부터 수천 대의 비행 차(미래의 컨셉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이곳 광장과 신둔도예촌역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거리와 마을 길, 농로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넘친다. 마을 곳곳에 있는 요장(窯場)들도 손님들을 맞기에 정신이 없다. 찾아온 손님들을 보니 국내 관광객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 볼거리, 체험거



리가 많기 때문이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수많은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넘친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 날은 ‘지석리 돌의 축제’(Stone Festival)가 열리는 날이다.

1) 지석리 돌의 축제 – 고인돌 끌기

새벽 이른 시각, 지석리 마을 위 소당산 기슭에서 채석 의식이 거행된다. 커다란 바윗덩이에서 돌을 떼어내는 의식이다. 제주가 바윗결에 나 있는 좁은 틈에다 깊게 흙을 파고 그 속에다 여러 개의 나무말뚝을 박은 다음 물을 끓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산에서 꺾어온 갈대로 바위를 내리치는 의식을 행한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바위가 쪽 소리를 내며 돌로 갈라지고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이렇게 떼어낸 돌은 큰 통나무 여러 개를 깔아놓고 옮기기 시작한다. 고인돌을 끄는 사람은 어립잖아 오백 명. 돌이 옮겨지면 고임돌 위에 둔덕을 만들고 그 위로 덮개돌을 올리는 사람이 오백 명, 그리고 돌이 옮겨지는 전체 과정에서 구간마다 이를 행렬을 돋고 응원하는 사람이 일천 명. 이렇게 이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일주일 전부터 고인돌 캠프에 참여해 고인돌에 관한 기본교육과 돌을 끄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돌을 옮기는 행렬은 지석리에서 수하리, 남정리로 이어진다.



2) 돌의 광장 – 국제스톤아트페스티벌

지석리 마을 아래편에 마련된 5만 여평의 ‘돌의 광장’에서는 ‘국제스톤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신둔면 마을 곳곳에 세워진 예술작품들은 모두 이 페스티벌을 통해 만 들어진 것이다. 스톤아트페스티벌은 돌을 소재로 하여 신둔 마을의 유래와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해보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으로 마을을 예술화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궁벽한 시골마을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까? 참여 작가들은 일 년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을 답사하고 주민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잡아 작품을 구상한다. 신둔지역에서의 마을생활은 이들 예술가들이 한국적인 시골정서와 생활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른바 ‘마을 레지던시 예술프로젝트’의 놀라운 성과였다. 이로 인해 지석리 돌의 광장은 세계 3대 조각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돌멘테마파크 – 성혈 새기기

수하리에 있는 ‘돌멘테마파크’는 신둔 일대에 산재해 있던 고인돌과 전 세계의 거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고인돌과 선돌, 고구려의 석총, 영국 웨섹스의 스톤헨지, 프랑스 브레타뉴지방의 돌멘, 이집트의 피라미트, 이스터섬의 석상, 그리고 그리스 크레타섬의 미궁 같은 거석조형물의 석축 과정과 건축의 비밀을 체험해볼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단순히 건축물의 외관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기하학과 천문, 빛과 공간의 내밀한 세계로 안내해주기 때문이다.⁴ 돌의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테마파크에 있는 고인돌 주위로 운집한다. 고인돌 위에 작은 돌로 구멍을 새기며 소원을 비는 행사다. 고인돌의 덮개돌 위에 새기는 성혈(cup mark)이나 환혈(ring mark)은 예로부터 별자리나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복을



4 신둔에서 백사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경우 그 분포되어있는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두 개의 열로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되어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비는 의식으로 여겨졌다. 이천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위에는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성혈이 새겨져 있다. 돌의 축제 때 고인돌 위에 성혈을 팠던 돌들은 참여자들이 구멍을 뚫고 줄을 달아서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4) 소당산 둘레길

지석리 마을 위쪽에 임도를 따라 조성된 ‘소당산 둘레길’은 지석리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료되는, 아름다운 산책길이다. 2000년대 초부터 마을에서 심기 시작한 벚나무가 매년 4월이면 만발하면서 꽃향기 가득한 숲길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둘레길은 지석리에서 시작해 장동리, 도립리까지 이어지는데, 둘레길을 따라 고인돌 채석터, 산신제터, 원적산 고성터, 감투바위, 소반바위, 베틀굴, 성황당 등 지석리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이야기거리가 쉼 없이 이어진다. 산신제터에 이르자 마을주민해설사가 소당산 산신제의 내력과 풍습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황소를 고르는 법에서 제관을 정하고 금기를 허는 방식, 제사비용 추첨, 그리고 소를 잡아 진설한 뒤 제물을 마을사람과 나누는 과정도 실감나게 설명한다. 지석리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 코뚜레는 액운을 막기 위해 방문이나 마루에 걸어두는 풍습으로 알려졌는데 지석리 돌의 축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관광상품이다. 지석리 선짓국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아예 신둔면 곳곳에 선짓국 골목길이 생겼다. 지석리의 산과 들에서 채취한 산야초와 발효액으로 차린 약선음식은 최고의 건강음식으로 떠오르면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지석리 마을주민들은 이 둘레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화하는 작업에 뛰어들



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사업이 원적산 일대의 여러 지명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가며 둘레길 구간 구간을 이야기길로 만드는 일이었다. 지석리 사람들은 천덕봉을 공민봉으로, 그 앞의 원적산을 노국공주봉으로, 그리고 소당산은 고려 말에 피난 온 공민왕 일행을 위해 밥을 짓던 거대한 밥솥 뚜껑 형상을 하고 있기에 소당산으로 부른다.⁵ 1361년 11월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홍건적의 난을 피해 개경에서 파주, 양주, 광주를 거쳐 이천에 도착하는데 눈비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어의마저 얼어붙어 추위에 떨며 이천지역에 유숙할 수밖에 없었다.

5) 공민왕 봉진길 – 성돌쌓기, 돌탑세우기

지석리 주민들은 2020년 11월 공민왕의 봉진길을 재현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봉진길 걷기 행사는 지석리에서 도립리로 이어지면서 원적산 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홍건적에 쫓기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몰린 공민왕 일행을 정성스레 대접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의식이 이어진다. 이 행사의 백미는 원적산 성돌쌓기와 돌탑 세우기다. 공민왕이 홍건적을 방비하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돌을 지석리 주민들의 힘으로 일부 구간 복원하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에 해당하는 구간마다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레길에 언제부턴가 돌탑이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천에 있는 크고 작은 산에서 가져온 돌들로 돌탑을 쌓아올렸다. 다음 해부터는 돌의 축제에 참여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각자 나라에서 가져온 돌들을 던져 돌탑을 쌓아올리기 시작했다.



5 백사면에는 공민왕 일행이 쉬고 간 다리라 하여 ‘휴궁교’란 이름이 남아있고 경사리 위쪽에는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놀라 궁녀들이 몸을 던져 죽었다 하여 ‘여기수’라는 폭포가 있다.

2050년 현재 세계 각국의 산에서 가져온 돌들로 이천에는 모두 30여 개의 돌탑이 세워졌다. 돌탑은 이제 지석리의 명물이자 이천의 상징적인 문화코드가 되었다. 돌탑은 우리나라가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서희선생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원도 빌고 투석전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어귀마다 돌을 쌓아올리게 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니까 돌탑은 기원의 대상이면서 유사시에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수단도 되는 것이다.

6) 세계 락(바위) 페스티벌

돌의 축제에서 가장 크게 휘날레를 장식하는 행사는 마지막 날 개최되는 ‘세계 락 페스티벌’이다. 바위를 뜻하는 ‘락’(Rock)이 이제 음악으로 변용되어 전 세계의 젊은 이들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음악축제로 3일 동안 진행된다. 전 세계 5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가하며 소당산 숲 속에서 전 세계의 산과 자연, 그리고 바위와 나무 같은 신령한 존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주제로 하여 열린다. 지석리 ‘돌의 축제’가 이천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된 배경에는 2017년 당시 40대의 젊은 나이에 마을이장을 맡았던 서학원씨(78세)의 불같은 열정이 큰 끓을 했다.

소당산 산신제도 거의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었고 고인돌을 마을의 문화적 자산으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장을 보며 마을주민들이 합심을 하게 된 것이다. 지석리 마을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이제 우리 마을의 살길은 우리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했다. 지석리는 이제 주민의 60%가 50대 이하인 가장 젊은 마을이요,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테마관광마을이 됐다.



발간사_4 축간사_9

지석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과거와 오늘을 기록하기에 앞서_12

I. 지석리 마을 개관

1. 지석리 마을 행정적 위치	31
2. 지석리 마을 수리적 위치	34
3. 지석리 마을 지형·지세	35
4. 지석리 마을 수계	36
5. 지석리 마을 기후	37
6. 지석리 마을 교통현황	38

II. 지석리 마을 역사와 변천

1. 지석리 마을 역사	43
2. 고지도를 통해 본 지석리 마을	50
3. 1900년대 초 지도를 통해 본 지석리 마을	53
4. 1970년대 지석리 마을	56
5. 지석리 마을의 현재	58

III. 지석리 마을 지명과 문화유산

1. 지석리 마을 지명유래	67
2. 지석리 마을 문화유산	74

IV. 지석리 마을 생활과 모임

1. 지석리 마을 살림집	83
2. 지석리 마을 농업과 두레	95
3. 지석리 마을 세시와 명절	97
4. 지석리 마을 조직과 활동	101
5. 마을의 일상을 바꾼 기반시설 이야기	115

V.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 | | |
|-------------------------|-----|
| 1.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조사 의미 | 121 |
| 2.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개괄 | 130 |
| 3.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활용방안과 제안 | 148 |

VI. 지석리 마을 민속자원 : 소당산 산신제

- | | |
|-------------------|-----|
| 1. 소당산 산신제 개요 | 153 |
| 2. 소당산 산신제 절차와 내용 | 156 |
| 3. 소당산 산신제 의의와 전망 | 177 |

VII. 지석리 마을 이야기 자원

- | | |
|-------------------|-----|
| 1. 소당산 산산제 관련 이야기 | 183 |
| 2. 지명유래 관련 이야기 | 187 |
| 3. 지석리 마을 민담 | 192 |

VIII. 지석리 마을과 함께 한 토박이의 삶

- | | |
|----------------------------|-----|
| 1. 지석리 5대째 토박이, 김진황 어르신 | 204 |
| 2. 강원도에서 시집 온 재간꾼, 장재인 어르신 | 216 |
| 3. 마을 개발의 역군, 서상수 어르신 | 230 |

IX. 지석리 마을 문화자원 활용 방향

- | | |
|----------------------|-----|
| 1. 마을기록의 의의와 활용전략 | 241 |
| 2. 지석리 마을 문화자원 활용 소재 | 243 |
| 3. 축제 기획을 통한 활용 | 244 |
| 4. 둘레길 조성을 통한 활용 | 251 |
| 5. 지역민 기억 기록을 통한 활용 | 256 |



I

지석리 마을 개관

1. 지석리 마을 행정적 위치

지석리는 행정구역상 이천시 신둔면에 속해 있는 면소재지이다. 지석리 마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천시와 신둔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여주시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용인시 내사면, 원삼면, 백암면이 있다. 남쪽으로 안성시 일죽면과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이 접해있으며 북쪽으로는 여주시 홍천면과 금사면을 비롯하여 광주시 실촌면과 도척면이 자리하고 있다. 이천시의 동서 간 거리는 27km, 남북간 거리는 36km로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긴 지형을 이루고 있다.

신둔면은 이천 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한 면소재지로 수광리·고척리·용면리·지석리 등 13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신둔면은 동쪽은 백사면, 남쪽은 이천시와 마장면, 서쪽은 광주시 도척면, 북쪽은 광주시 곤지암읍과 여주시 금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신둔면의 북서쪽으로 천덕봉(天德峰:634m), 정개산(鼎蓋山:467m), 양각산(羊角山:386m)이 연이어 솟아 있어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막아주고 있고, 남동쪽에는 한내가 흘러 저지를 이룬다. 남쪽으로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어 농업이 발달하였는데,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공업이 발달해 있어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 이천시 신둔면 위치도



▶ 지석리 마을 전경

신둔면은 본래 신동면(新洞面)과 둔지산면(屯知山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면과 둔면을 합쳐 신둔면이라 하고 수광리(水廣里)를 소재지 삼아 13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둔지산면과 신동면에 속한 여러 동리와 편호, 남녀 인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지도서』 역원 항목과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등에서는 둔지산면에 고척참(高尺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척리(高尺里)도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른 신둔면 리명(里名) 변화

리명(里名)	내 용	비고
지석리	이천군 신면 지역으로 권돌 또는 지석에서 지석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신면
남정리	이천군 신면 지역으로 남정골 또는 남정동에서 수하리 일부와 병합되어 남정리가 됨	신면 / 지석리의 동쪽
도암리	이천군 신면 지역으로 도드라미산이 있어서 도드라미 또는 도월암, 도암에서 노가지골, 벌발, 금산이 말들말 등과 병합되어 도암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신면 / 지석리의 동남쪽
수하리	이천군 신면 지역으로 새우물, 새울, 또는 수하에서 수하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신면 / 지석리의 남쪽
장동리	이천군 사면 지역으로 신라때 황무현이 있었음. 장골 또는 장곡, 장동에서 하남촌과 병합, 장동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사면 / 현재 지석리의 동쪽

고척리	이천군 둔면의 고작말 또는 고척에서 학암동과 병합되어 고척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도봉리	이천군 사면의 도봉이 또는 도봉, 도봉동에서 도봉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사면
마교리	이천군 둔면의 마다리 또는 마교에서 마교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소정리	이천군 둔면의 소정, 송정에서 소정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수광리	이천군 둔면 지역으로 수북, 광현, 소정리의 일부와 병합, 수북과 광현의 이름을 따서 수광리가 됨	둔면
수남리	이천군 둔면 지역으로 둔터, 양짓말, 건너말과 병합되어 신둔천 남쪽을 뜻하는 수남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용면리	이천군 둔면 지역 용면에서 용평과 병합, 용면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인후리	이천군 둔면 지역으로 인배와 후동과 병합, 인후리가 되어 신둔면에 편입	둔면

‘신동’은 언제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둔지산면’은 여러 지리지나 고지도에 그 한자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명은 둔지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해동지도』에는 둔지산(遁池山)으로, 『여지도』나 『광여도』에는 둔지산(遁之山)으로, 그리고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에는 둔지산(屯之山)으로, 『1872년 지방지도』에는 둔지산(屯知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면의 이름도 산의 명칭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지석리는 신둔면에 위치한 13개 동리 중 하나로 북쪽의 정개산에 기대어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의 남쪽으로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다. 지석리의 동쪽으로는 장동리가 위치해 있으며, 남동쪽에는 도암리, 남쪽으로는 지석리와 경계를 이루는 원적로 너머로 수하리가 자리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지석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북 방향으로 길게 남정리가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는 정개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와 맞닿아 있다. 북쪽으로는 곤지암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남쪽으로 남정리, 수하리, 도암리, 장동리가 지석리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석리는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연마을인 퀸돌, 서촌(西村)이 있는데, 퀸돌은

1 국토지리정보원, 「신둔면 [新屯面, Sindun-myeo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 신둔면 지석리 마을 지도

고인돌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지석이라고도 한다. 서촌은 괸돌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지석리 마을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는 특정 장소의 경도와 위도상의 위치를 말하여 절대적 위치라 할 수 있다. 지석리의 동쪽 끝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으로 위도 $37^{\circ} 19' 43''$ 이고, 경도는 $127^{\circ} 25' 53''$ 이다. 남단은 수

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적으로 상에 위치하는데, 위도 $37^{\circ} 19' 06''$ 이며, 경도는 $127^{\circ} 25' 10''$ 이다. 최서단은 남정리 정개산 기슭으로 위도 $37^{\circ} 19' 37''$ 이고, 경도는 $127^{\circ} 24' 41''$ 이다. 최북단은 정개산 정상에서 천덕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산의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위도와 경도는 각각 $37^{\circ} 20' 39''$ 이고, 경도는 $127^{\circ} 25' 31''$ 이다. 그 북쪽으로는 곤지암읍 봉현리와 정개산 능선을 따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서 양단 간 경도(經度) 차는 $1'$ 이고 남북 양단 간 위도(緯度) 차는 $1' 4''$ 로 위도나 경도상의 위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으나 정개산과 그 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마을의 기후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둔면 지석리의 수리적 위치는 아래와 같다.

■ 지석리 위치 현황

지석리 마을회관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경계	극점	연장거리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85-2	동단	신둔면 장동리	동경 $127^{\circ} 25' 53''$	동서간 2.1km
	서단	신둔면 남정리	동경 $127^{\circ} 24' 41''$	
	남단	신둔면 수하리	북위 $37^{\circ} 19' 06''$	남북간 3.0km
	북단	곤지암읍 봉현리	북위 $37^{\circ} 20' 39''$	

3. 지석리 마을 지형·지세

이천시는 전체적으로 산록완사면(山麓緩斜面)과 소기복의 구릉지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북서부와 서부에 편중되어 있는 산지로 인하여 지형은 북쪽과 서쪽이 높고, 동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그 중앙부를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이 관류하고 남단에는 충북과의 경계를 이루며 청미천이 흐르고 있다. 이를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소평야와 낮은 구릉지대가 발달하였다.

지석리의 경우 이천시 경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남서쪽에서 북동방향으로 전개되는 정개산과 원적산의 능선 남쪽 기슭에 위치한 관계로 산지와 소기복 구릉지 및 산록완사면과 그 남쪽으로 소규모 침식지(전답)가 모두 나타나는 지형상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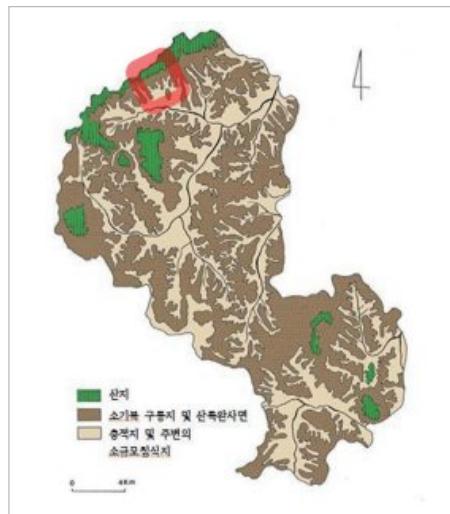
지석리의 북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정개산, 원적산 등)는 해발고도 400~600m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가운데 해발 634m의 천덕봉이 있는 원적산은 이천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신둔면, 백사면 및 광주시 실촌면과 여주군 금사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원적산의 산줄기는 서남쪽을 향해 길게 내려오면서 정개산(467m)을 이루었고, 정개산은 다시 넋고개와 둔지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산줄기는 한 줄로 길게 이어지면서 이천의 북쪽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있다.

4. 지석리 마을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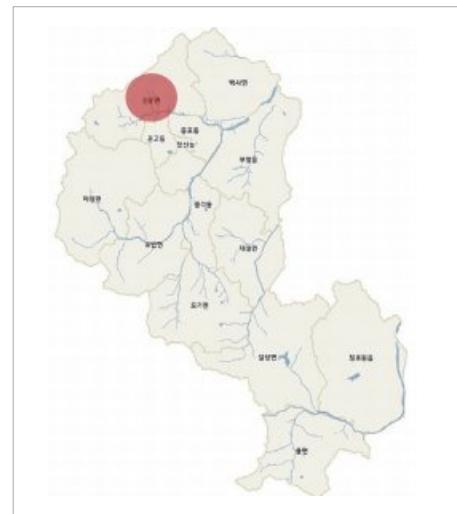
이천은 북서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분포하고, 동쪽과 남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서부와 서부의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은 중앙부의 넓은 평지를 지나면서 여러 하천을 합류한 후, 동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한다.

이천의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국가하천인 복하천, 청미천이 있다. 이들 하천 주변에는 상당히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복하천(福河川)은 유로연장 37.3km로 용인시 내사면 제일리에서 발원하여 마장면에서 관리천과 합류하고, 마장면과 호법면을 가로질러 흐른다. 호법면 지역을 벗어나서는 부발읍과 백사면의 경계를 이루면서 북동쪽을 흘러 여주군 흥천면에서 남한강으로 유입 한다. 복하천의 지류로는 관리천, 해월천, 매곡천, 동산천, 원두천, 장암천, 장록천, 중리천, 신둔천, 죽당천, 송말천 등이 있는데 이중 지석리에서 발원한 여러 갈래의 계곡물은 정개산 남쪽 기슭을 따라 작은 시내를 이루며 남쪽으로 흘러 신둔천으로 합류한다. 신둔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복하천과 다시 합류하게 된다. 지석리에서 발원하는 지류는 최소 4개소에 이른다.



▶ 이천시 권역의 지형지세



▶ 이천시 권역 수계현황과 지석리 수계

5. 지석리 마을 기후

신둔면 지석리의 기후는 이천시의 기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천은 한반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중부내륙형 기후, 즉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2015년 이천시의 연평균 기온은 12.4°C로 전국 연평균기온 13.1°C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 10년간 이천시 기상현황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상대습도(%)
2006	12.2	18.0	7.1	1,458.0	69.3
2007	11.8	17.8	6.8	1,414.8	70.6
2008	11.5	17.9	6.1	1,121.0	68.9
2009	11.6	17.9	6.0	1,401.5	64.6
2010	11.1	16.9	6.1	1,429.6	69.0
2011	11.0	17.1	5.7	2,045.0	66.8
2012	11.1	17.4	5.7	1,559.2	64.4
2013	14.3	20.5	9.1	1,288.4	67.0
2014	11.9	17.0	6.5	791.5	62.8
2015	12.4	17.3	6.2	841.5	62.3

겨울인 1월에는 -1.9°C까지 낮아지고 여름인 7월과 8월에는 평균기온이 최대 25.1도 까지 올라가 연교차가 27°C로 매우 큰 편이다. 강수량은 10년 평균 1,221mm로 지형상 산지가 적어서 주로 장마철의 전선성 강우에 의한 강수와 7월과 8월 사이에 내습하는 태풍에 의한 강우가 대부분이다.

■ 2015년 이천시 기상현황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상대습도(%)
2015년 1월	-1.9	3.0	-7.4	22.6	60.4
2015년 2월	0.2	5.0	-8.3	27.1	58.1
2015년 3월	5.6	12.6	-3.2	23.2	42.6
2015년 4월	12.2	19.9	6.4	109.3	57.4
2015년 5월	18.3	23.0	13.3	32.1	52.5
2015년 6월	22.5	25.0	16.7	100.0	60.1
2015년 7월	24.7	28.1	20.9	205.5	69.8
2015년 8월	25.1	29.0	21.0	62.0	72.3
2015년 9월	20.2	24.2	18.1	16.3	64.6
2015년 10월	13.5	18.0	4.1	56.3	66.2
2015년 11월	7.8	13.2	-2.0	147.0	76.9
2015년 12월	0.4	6.5	-5.8	40.1	66.8

6. 지석리 마을 교통현황

1) 주요도로 현황

신둔면 지석리로의 접근방법은 3번 국도(경충대로)를 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3번 국도는 조선시대 옛길인 봉화대로²와 일치하는데, 서울에서 성남과 남한산성을 거쳐 광주에서 시작하는 옛길로 곤지암, 이천시, 가남읍을 지나 경기도와 충북의 경계인 장호원에서 경기도 구간이 끝을 맺는다. 서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3번 국도를 따라 이천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남정리에서 남정로를 따라 1.3km를 들어오면 원적로와 만나

2 봉화대로는 광주 읍지를 지나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봉화까지 이르는 길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志』『程里考』에 그 자세한 지점과 거리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광주시에서 장호원읍 구간은 3번 국도와 대부분 일치한다.

게 되는데 그 지점이 지석리 붉은고개라는 옛 지명이 남아 있는 장소이다. 붉은고개에서 원적로를 따라 1.7km 구간의 북쪽이 모두 지석리에 해당한다.

원적로는 지석리로 접근하는 주요도로이고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샛길이 남아 있다. 남정리와 연결되는 길은 원적로 159번 길이고, 남쪽의 수광리와 연결되는 도로는 원적로 290번 길이다. 동쪽의 장동리와는 석동로로 연결된다. 마을의 주요 도로 역시 석동로이다.

지석리에는 지석리의 북서쪽에서 남쪽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성남-장호원간도로(2017년 완공예정)가 건설 중에 있다. 지석리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마을을 감싸 도는 뚝방이 생기면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마을을 관통하는 이 도로가 마을에서 바라보면 마치 큰 뚝방처럼 보인다. 이 도로가 건설될 당시부터 지석리에서는 고위공무원, 학자 등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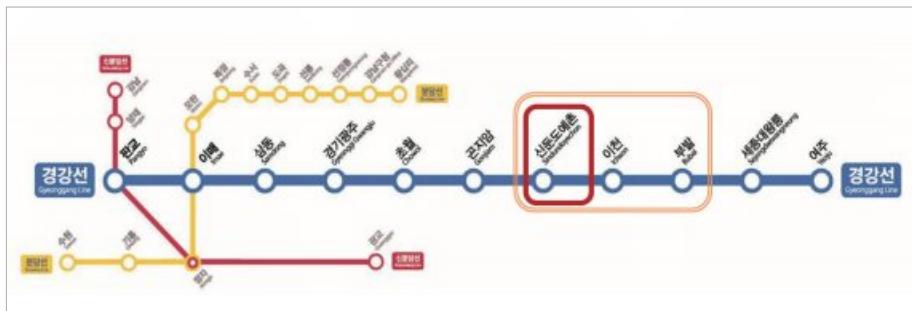


▶ 지석리 마을을 관통하는 '성남-장호원간 도로'

3 「성남-장호원간 도로」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응암 교차로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 교차로를 잇는 경기도의 도로이다. 기존의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제3호선의 경충대로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 도로이며, 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된다. 본래 이 도로는 도로 명칭처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풍토 교차로에서 시작하는 총 연장 62.5km의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마지막 6공구인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풍토 교차로부터 부발읍 응암리 응암 교차로까지 15.2km 구간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건설이 무산되었고, 남은 1~5공구인 47.3km 구간만 건설되고 있으며, 이 중 1공구인 태전 분기점~여수 교차로 구간은 2012년 9월 28일과 2015년 4월 23일, 그리고 2017년 9월 8일에 일부 구간이 각각 개통되었고, 2공구인 초월 나들목~태전 분기점 구간은 2013년 4월 30일과 2016년 11월 11일에 일부 구간이 각각 개통되었으며, 5공구인 응암 교차로~백사 교차로 구간은 2017년 1월 25일에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다.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사업현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4년 1월, 참조

2) 철도교통 현황

2016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는데, 이 철도가 경강선이다. 경강선의 총 11개소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이천시의 관내에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3개의 역사가 신설되었다. 이중 신둔도예촌역은 지석리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위치에 있어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역사가 개통된 이후 성남시를 비롯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졌으며, 이천시내와 여주시로의 접근성도 향상되어 마을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 지석리에서 접근 가능한 신분당선 역사(신둔도예촌역)



▶ 남정리 신둔도예촌역



지석리 마을 역사와 변천

1. 지석리 마을 역사

신둔면에 속해 있는 지석리의 역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천시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천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보고는 없지만, 이천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실시된 이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구석기유적의 존재는 이른 시기부터 이천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이천시는 삼한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삼국의 치열한 각축 속에 최종적으로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이천시와 신둔면은 고려를 거쳐 조선,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는 동안 수차례 행정구역과 영역이 변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복하천의 고대인들이 사용한 석기

1) 구석기시대·청동기시대

이천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신둔면 지석리, 신둔면 소정리, 부발읍 신원리, 마장면 이평리, 장호원읍 대서리 등 5군데이다.¹ 신석기 유적지는 지표조사를 통해 이천시 갈산동 유적, 진리동 유적이 확인되었다.²

청동기 유적으로는 신둔면 수하리(지석묘), 신둔면 도암1리(지석묘), 신둔면 도암2리(지석묘), 신둔면 남정리(지석묘), 신둔면 소정리, 백사면 현방리(지석묘), 백사면 우곡리(마제석기), 부발읍 신원리(지석묘), 장호원읍 오남리(무문토기 산포지), 대월면 군량리(무문토기 취락지), 설성면 행죽리(마제석기), 율면 오성리, 효양산성(무문토기), 망이산성(무문토기)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대체로 이 유적들은 복하천, 신둔천, 청미천 등 하천 유역에 위치한 특징이 있다. 큰 강가에 있던 유적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큰 하천과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았던 유적들 중 일부가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신둔면 지석리는 정개산과 신둔천을 그 근거지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삼한시대

이천지역은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에 마한(馬韓)에 속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마한의 각 소국 54개국 중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³과 노람국(怒藍國)⁴ 등 2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천에서는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등에서 다수의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에도 지석리 일대를 비롯해 신둔천과 복하천 등 하천유역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 박물관, 『이천시의 문화유적-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1998, pp.29~52.

2 위의 책, pp.39~40.

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4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93.

3) 삼국시대(三國時代) ~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기록상으로 삼국 중 이천지역에 최초로 진출한 국가는 고구려⁵이나, 이 이전에 백제의 영역 하에 있었다.『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에는 온조왕(溫祚王)대 이미 백제가 경기도 일대를 석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천시 전역에서 백제토기 산포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가 늦어도 고이왕(古爾王)이나 근초고왕(近肖古王)대에는 이천지역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75년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한강 유역이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고, 이후 이천은 고구려의 영역 하에서 남천현(南川縣) 또는 남매(南買)로 불렸다.

신라가 이천지역에 진출한 것은 6세기 중반이다. 신라는 551년 고구려로부터 한강 중·상류 지역의 10군을 공취(攻取)하였으며, 이천지역은 신라 통일전쟁기에도 남천정을 설치하여 주둔지로 이용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 체제로 개편하였는데, 이천은 경덕왕 16년(757) 지명개정에 의해 남천현(南川縣)에서 황무현(黃武縣)으로 개칭되었고 그 지위도 주(州)에서 현(縣)으로 축소되었다.⁶

효공왕 5년(901)에 궁예(弓裔)가 한주(漢州)의 30성을 취하고 이어 명주(溟洲), 삵주(朔州)까지 점령한 후 국호를 태봉(泰封)이라 하였다. 이 시기에 남천현은 태봉의 영토에 속했으나 지방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 토호들의 자치(自治)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사료에서 남천(南川)에 대한 언급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삼국이 신라에게 통일된 뒤 이천지역은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덕왕대 주(州)에서 현(縣)으로 축소되는 등 이전에 비해 그 중요도가 줄어들었을

5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50쪽,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삼국 중 이천에 최초로 진출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그러나 김정호는 『大東地志』에서 ‘『三國史記』지리지의 ○○군은 본래 백제의 ○○군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三國史記』地理志는 지명의 연혁이 기록된 것이지만 그 상한이 대체로 6세기 초반 경으로 볼 수 있다.

6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5 잡지(雜志) 제4,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并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것으로 추측된다.

위 내용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천지역은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힘의 각축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천의 서쪽 설봉산 정상에 위치한 설봉산성은 백제가 초축한 이후 신라가 개축한 산성이다. 한편, 지석리 북동쪽 원적산 정상부에는 토성이 잔존해 있고, 지석리 북쪽 정개산 7~8부 능선 상에도 산성(석성)의 흔적이 1km 가까이 남아 있다 는 마을주민의 전언을 통해서 볼 때 지석리 일대가 바로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 까지 주요 군사적 거점이자 전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고려시대(高麗時代)

918년 태봉이 망하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이천은 자연히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시대 이천은 몇 차례의 지명·지위의 변화가 있었다.

태조 19년(939) 이천지역에서 승전한 후 남천(南川)을 이천군(利川郡)이라 사호(賜號)하였다고 한다. 고종 44년(1257) 이천을 영창(永昌)이라 개칭하였으며,⁷ 공양왕 4년(1355)는 이천현이 공양왕의 조비(祖妃) 신씨(申氏)의 고향이라 하여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되었다.⁸ 공양왕 1년(1389) 감무(監務)로 부임한 이우(李愚)가 안흥리 안흥정사(安興精舍)에 학교를 세우고 학장을 두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천향교(利川鄉校)의 시작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천 지역은 고려시대에도 주요 거점지역으로 중요시 되었으며, 신둔면 지석리 역시 이천의 배후 지역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7 『고려사(高麗史)』 권56 地理1, 高宗四十四年, 稱永昌

8 『고려사(高麗史)』 권56 地理1, 恭讓王四年, 以祖妣申氏之鄉, 陞爲南川郡

5)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시대에도 이천은 몇 차례의 지명·지위의 변화가 있었다. 태조 2년(1393) 고려시대 지명이었던 남천군(南川郡)이 이천현(利川縣)으로 개칭되었고 이천지역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어 2년 뒤인 태조 4년(1395) 양광도의 광주, 수원부, 양근군, 쌍부, 용구, 처인, 이천, 천녕, 지평현이 경기좌도로 편입되었다. 이후 세종 즉위년(1418)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세종 2년(1420)에 이천지역에 거주하였고, 세종 26년(1444) 이천의 민가 호수가 1천호 이상으로 늘어 이천현(利川縣)이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성종 5년(1474)에 이천부사로 이세보(李世璫)가 부임하여 안흥지(安興池)와 애련정(愛蓮亭)을 세웠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신숙주(申叔舟)에게 누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였던 바 애련설(愛蓮說)을 근거로 하여 애련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선시대 지석리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고지도에서 정개산과 원적산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남쪽에 지석리라 명기된 정도이다. 즉, 지석리는 조선시대에도 이천현의 권역에 속해 그 영향권 아래에 놓인 마을이었으나, 이천-광주(ognizam)를 잇는 길목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한 관계로 그리 큰 주목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근·현대시대(近·現代時代)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조선후기 전국행정구역 체제인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천은 충주부에 귀속되었고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가 ‘이천군(利川郡)’으로 개칭되었다. 1896년 23부제가 폐지되고 13부제가 실시되면서 이천(利川)과 음죽(陰竹)은 다시 경기도로 편제되었고, 군(郡)은 4등급 군으로 책정되었다. 1897년 정유조(丁酉條)에 나타난 이천군 각 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둔면(屯面) · 신면(新面) · 사면(沙面) · 백면(栢面) · 부면(夫面) · 발면(鉢面) · 초면(草面)
월면(月面) · 가면(加面) · 모면(謨面) · 대면(大面) · 호면(戶面) · 마면(麻面) · 장면(長面)

이때까지만 해도 신둔면은 둔면과 신면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913~1914년 일제에 의해 군·면·동·리(郡面洞里) 통폐합 조치가 시행되었다. 부령 제111호로 이천군, 음죽군 일원과 충청북도 읍성군의 법왕면, 두의면 등 일원이 흡수 편입되었다. 이때 신(新)면과 둔(屯)면을 병합하여 신둔면(新屯面)이 되는 등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지석리는 원래 신면(신동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둔면 지석리가 되었다.

근대시기 이천은 여주군과 함께 물자의 집산지로 발전하였다. 1910년 이천·강릉간 도로 완성, 횡성가도, 경부가도의 개수(改修) 등에 힘입어 도로교통 및 자동차 운송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수로에 의한 물류가 급감하고 물자유통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1930년 수여선이 개통과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졌다. 1938년 부령 제197호로 읍내면(邑內面)이 이천읍(利川邑)으로 승격되었고, 1941년 부령 제253호로 청미면(淸渼面)이 장호원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9면이 되었다. 하지만 지석리는 이천의 승격과 관계없이 신둔면 지석리로 유지되고 있었다.

7) 현대(現代)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천군은 50년 7월 4일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수복과 재후퇴를 반복한 후 1951년 2월 26일 경찰대를 필두로 행정·치안관서가 이천군에 들어왔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지석리 역시 폭격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지역 주민 중에 한국전쟁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이천의 행정구역은 1989년에 부발면이 부발읍으로 승격되고, 1996년 3월 1일에는 이천군이 시(市)로 승격되어 2읍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이천시 주요 연혁

시대		연혁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신둔면 지석리, 소정리, 부발읍 신원리 등의 구석기 유적 확인
	신석기 시대	이천시 갈산동 유적, 진리동 유적 등 신석기 유적 확인
	청동기 시대	신둔면 수하리(지석묘), 신둔면 도암 1리(지석묘), 신둔면 도암 2리(지석묘), 신둔면 남정리(지석묘), 신둔면 소정리, 백사면 우곡리(마제석기) 등지에서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
삼한시대	마한	마한의 54개국 중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과 노람국(怒藍國) 등 2국으로 추정
삼국시대	고구려	고구려가 이천지역에 최초로 진출함
	백제, 온조왕	온조왕대에 백제의 영토에 속한 것으로 판단됨
	475년(고구려)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 남천현(南川縣) 또는 남매(南買)로 불림
	553년(신라)	신라영토에 포함됨
	568년(신라 진흥왕)	신라 지방군단 10정(停) 중 하나인 남천정(南川停) 설치 신라의 한강유역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 함
	604년(신라 진평왕대)	남천정이 폐지됨
통일신라 (남북국시대)	667년(문무왕 7년)	김유신 장군 주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 기능을 함
	757년(경덕왕 16년)	남천현(南川縣)에서 황무현(黃武縣)으로 개칭, 주(州)에서 현(縣)으로 축소
	901년(효공왕 5년)	남천현이 태봉의 영토에 속함
고려시대	936년(태조 19년)	태조 왕건이 남천(南川)을 이천군(利川郡)이라 사호(賜號)함, 이천(利川)이라는 군명(郡命)을 내리고 광주(廣州)에 속하게 하면서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
	1257년(고종 44년)	이천을 영장(永昌)이라 개칭
	1355년(공양왕 4년)	공양왕의 조비(祖妃) 신씨(申氏)의 고향이라 하여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
	1389년(공양왕 1년)	감무(監務)로 부임한 이우(李愚)에 의해 이천향교(利川鄉校)의 시초가 시작이 됨
조선시대	1393년(태조 2년)	남천군(南川郡)이 이천현(利川縣)으로 개칭, 감무(監務)를 둠
	1395년(태조 4년)	경기좌도로 편입
	1423년(태종 12년)	이천 지역에 두었던 감무(監務)의 직제를 현감(縣監)으로 전환 함
	1444년(세종 26년)	민가호수가 1천호 이상이 되어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로 승격 됨

대한제국	1895년(갑오개혁)	조선 후기 정국행정구역체제인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가 이천군(利川郡)으로 개칭 됨
	1896년	13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충주부에 소속되었던 이천(利川)과 음죽(陰竹)이 다시 경기도로 편제되었고, 군(郡)의 등급은 4등급 군으로 책정 됨
일제강점기	1913~1914년	일제에 의해 군·면·동·리(郡面洞里) 통폐합 조치에 따라 이천군은 음죽군의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면수(面數) 11개, 동리수(洞里數) 132개로 구획이 확정 됨 신면과 둔면이 신둔면으로 통폐합 됨.
	1938년	읍내면(邑內面)이 이천읍(利川邑)으로 승격 됨
현대	1950년(한국전쟁)	이천군은 50년 7월 4일 북한군에게 점령, 이후 수복과 재 후퇴를 반복한 후 1951년 2월 26일 경찰대를 필두로 행정·지안관서가 이천군에 들어옴
	1989년	부발면이 부발읍으로 승격되고, 1996년 3월 이천군이 시로 승격됨
	1996년 3월 1일	이천군이 시(市)로 승격되어 2읍 체제로 바뀜
	2003년	창전동에서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이 분리되어 증포동으로 분동되면서 32개동 279개 반으로 행정구역이 조정 됨

2. 고지도를 통해 본 지석리 마을

옛 지도는 당시 사람들의 공간지리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옛 지도를 통해 신둔면 지석리 일원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다루어 보고, 지석리가 갖는 공간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다를 옛 지도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순조 34년(1834)에 자신이 만든 『청구도(靑邱圖)』를 철종 12년(1861)에 증보·수정한 대축척 지도첩으로 지형표시와 하천·교통로 등이 더 자세하고 정밀하다.

이천현을 중심으로 한 14첩 5면에는 주변 지명이 확인된다. 이천의 북쪽으로 설봉산이 표시되어 있고, 그 북서쪽 방향으로 봉화대로를 따라 '광현'과 역참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역참은 고척참(高尺站)으로 판단되나 지도상에는 백천(百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문이 든다. 지석리로 예상되는 지점의 북쪽에는 양각산에서 시작하여 광현을 지나 동서방향으로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원적산과 정개산(鼎蓋山)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지도에 따르면 정개산에서 천덕봉을 지나 원적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두 산의 지명이 뒤 바뀌어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석리는 원적산 남쪽, 설봉산의 북쪽, 광현(봉화대로)의 동쪽에 산으로 둘러싸인 평탄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지도는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규장각 소장『관동읍지』(奎12172) 3책에 수록된 이천도호부 지도이다. 지도 가운데 아래에 부내(府內)라고 적혀 있는 고을의 중심지는 일제강점기 이천면의 향교리 일대에 있었다. 지도 위쪽의 가운데에서 흘러와 아래의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임진강 본류인데, 함경도 안변부에 속한 영풍(永豐) 지역에서 시작된다.⁹

이천시 중심부에 ‘읍내(邑內)’라는 표시와 함께 ‘행궁(行宮)’이라 적혀 있는데 이천도호부 관아와 객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천 관아와 향교 북쪽으로 망현산이 그려져 있고, 그 북쪽에 지석리가 위치한 신동면이 표기되어 있다. 신동면 서쪽부터 살펴보면 이천에서 곤지암으로 가는 봉화대로에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이천(14첩 5면)



▶ 「관동읍지(奎12172)」 3책에 수록된 이천도호부지도 중 신동면 부분 확대

⁹ 이기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gak.snu.ac.kr>) 참조

‘광현(廣峴)’과 ‘고척참(高尺站)’이 표기되어 있고 그 북쪽으로 정개산(鼎蓋山)이 그려져 있다. 정개산 남쪽에 지석리가 있는 곳에 신동면이라 표기되어 있다. 신동면 동쪽으로 백현(白峴)과 원적산이 그려져 있어 지금의 지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지도는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규장각 소장『경기읍지』(奎12177) 5책에 수록된 이천도호부 지도이다. 지도에 객사(客使)·행궁(行宮) 등이 표시되어 있고 읍내(邑內)라고 적혀 있는 고을의 중심지는 이천시 시내의 창전동 일대에 있었다. 수록된 지명, 산줄기와 물줄기, 길 등의 정보가 현종 8년(1842)과 1843년경에 편찬된『경기지』(奎12178) 2책의 이천도호부 지도와 거의 동일하다. 이천 행궁 북쪽으로 망현산이 그려져 있고, 그 북쪽에 지석리가 위치한 신동면이 표기되어 있다. 앞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광주로 넘어가는 봉화대로에 ‘광현(廣峴)’과 ‘고척참(高尺站)’이 표기되어 있고, 그 북쪽으로 정개산(鼎蓋山)이 그려져 있다. 정개산 남쪽에 지석리가 있는 곳에 신동면이라 표기되어 있다. 신동면 남쪽에 판교(板橋)라는 지명이 확인되는데, 현재의 신둔천에 있었던 다리로 보인다. 신동면 동쪽으로는 백현(白峴)과 원적산이 그려져 있다.

이천부지도(利川府地圖)는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이다. 이천읍치에는 중심에 행궁(行宮)이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객사(客舍)와 향교가 있다. 지석리가 위치한 신동면 지역의 지명표시는 앞에서 살펴본 지도와 크기 다르지 않다. 다만 고척참(高尺站)이 광현참(廣峴站)으로, 지석리가 위치한 정개산 동쪽 자락에 사창(社倉)이라 표기되어 있는



▶ 이천부지도(利川府地圖, 1872년 제작) 중 신동면 확대



▶ 「경기읍지」(奎12177) 5책에 수록된 이천도호부 지도 중 신동면 부분 확대

것이 주목된다. 또한 정개산과 원적산 사이는 골짜기를 과장되게 그려 놓았는데, 백현(白峴)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신동면 아래에 각각의 마을(里)과 거리를 적어 놓은 점이다. 특히 지석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정개산 바로 아래에 적어 놓았는데, ‘支石里自邑十里’라 되어 있어 이천읍에서 10리 떨어진 위치에 지석리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즉, 이 지도는 지석리가 정개산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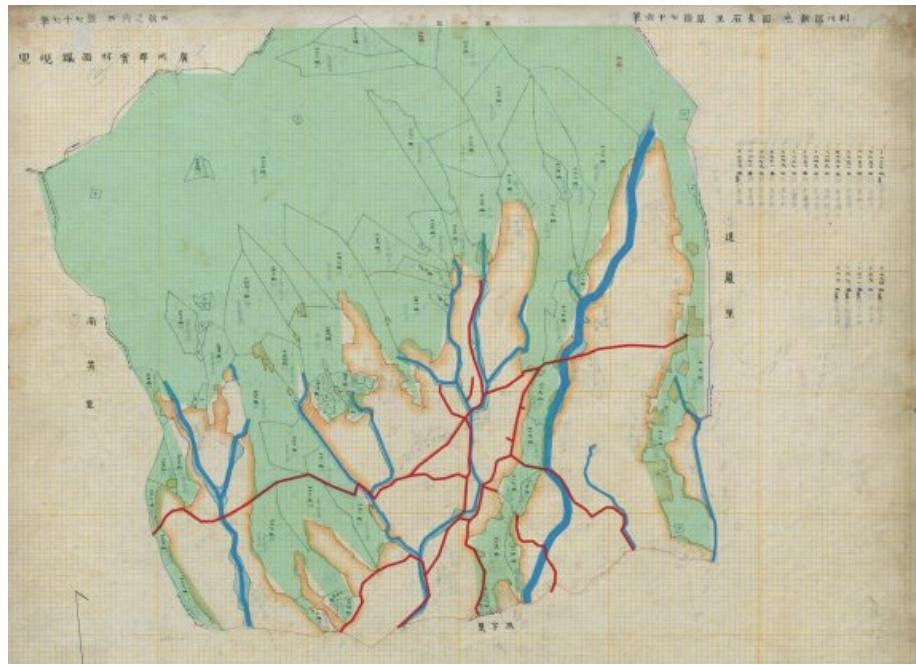
■지도에 표기된 지석리 인근 옛 지명

『대동여지도』 이천부 (1861)	『관동읍지』 이천도호부 (1871)	『경기읍지』 이천도호부 (1871)	이천부지도 (利川府地圖) (1872)	지석리 주변 지명
광현	광현	광현	—	광현
—	백현	백현	(골짜기로 표시)	백현
백천(百川)	고척참	고척참	광현참	고척참
원적산(위치 오류)	정개산	정개산	정개산	정개산
정개산(위치 오류)	원적산	원적산	원적산	원적산
—	신동면	신동면	신동면	신동면
—	—	—	지석리	지석리
—	—	—	사창	사창
—	—	판교	—	판교

3. 1900년대 초 지도를 통해 본 지석리 마을

근대적 실측방법에 의해 조사한 지도 자료로 일제강점기 국내 수탈을 목적으로 조사한 임야원도와 지적원도를 들 수 있다. 대체로 1900년대 초에 조사한 자료로 근대화 이전 마을을 모습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석리 임야원도는 독립만세운동이 한창 벌어질 무렵인 ‘大正八年三月二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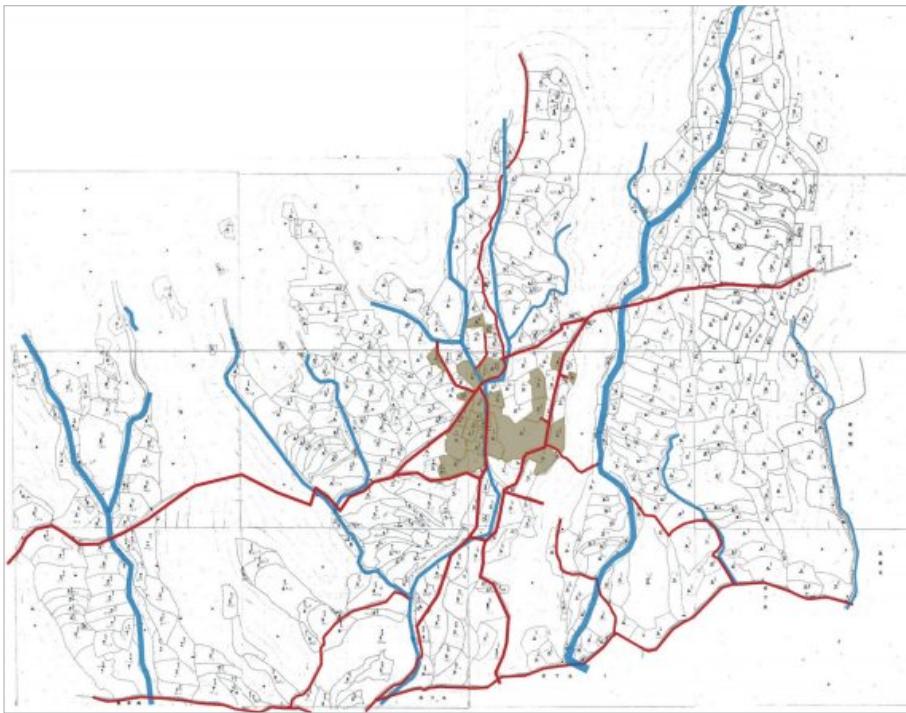


▶ 1919년 제작된 지석리 임야원도(필자 편집)

1919년 3월 29일 조사되었고, 조사원은 박의화(朴義和)라는 사람이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축적은 1/6,000이다.

지도의 제목에 “이천군 신둔면 지석리 원도(利川郡 新屯面 支石里 原圖)”라 표기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개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여러 개의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계곡물이 흐르는 수로가 표시되어 있다. 가장 동쪽에 큰 물줄기가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의 중심에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합수하여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석리의 가장 서쪽에도 2개의 물줄기가 합수하여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크게 보면 3개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류까지 합치면 9개 정도의 개천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의 중심에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과 남쪽으로 형성된 길, 그리고 그 중심을 그물망처럼 연결한 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야원도에 표기된 옛길과 개천(골짜기)은 최소한 조선 후기에도 동일한 구성이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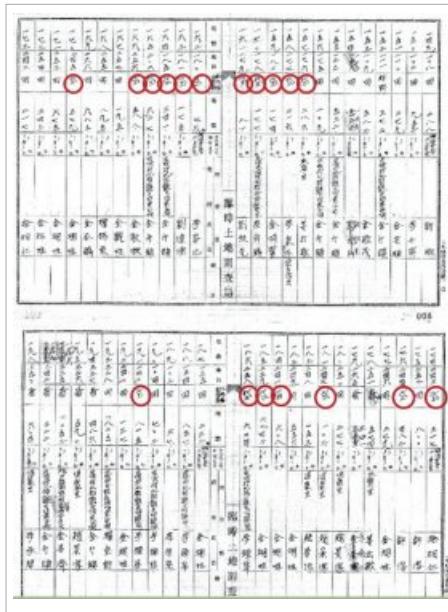
▶ 1912년 제작된 지석리 지적원도(필자 편집)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지석리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지적원도(地積原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 역시 한일합방 이후인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자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신둔면 지석리 원도는 대정원년(大正元年)인 1912년에 제작된 지도로, 축적은 1/1,200이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지도를 하나로 편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야원도에 표시되어 있는 개천과 옛길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조사된 『토지조사부(土地調查簿)』에 따르면 지석리의 총 필지 수는 505필지이고 전(田)이 294필지, 담(畠)이 173필지, 대(垈)가 28필지, 임야(林野)가 8필지, 분묘지(墳墓地)가 2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필지가 전(田)으로 193,806평(640,680m²)이다. 이는 지석리 전체면적 368,081평(1,216,800m²)의 약 52%를 차지하는 수



▶ 지석리 토지조사부 중 대(垈)인
필지의 지번과 소유자

치이다. 담(畜) 역시 145,717평으로 전체의 39.6%에 해당하여 지석리 필지 중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91.5%에 달하고 있다.

즉, 이 당시 마을주민의 주요 생산품이 농작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후기~1900년대 초반까지 지석리는 정개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작은 농촌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석리 마을 전체의 대지(垈地)는 12,781평($42,250\text{m}^2$)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에 비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가구당 경작할 농경지를 생각하면 그리 적은 것도 아니다. 28필지의 대지(垈地)에는 살림집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석리 마을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다. 최대 28가구가 살았다고 가정하고, 1가구 당 가족구성원을 5명씩만 잡아도 140여명 정도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을의 옛길과 골짜기, 개천은 임야원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대지가 밀집해 있는 마을의 중심부에 옛길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1970년대 지석리 마을

1977년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확보하여 지석리 마을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후기 지석리 마을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12년 지적원도상의 옛길과 물길을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19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1977년 지도에서 보이는 몇 가지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농경지 경지정비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지형에 맞추어 논과 밭이 형성되었다면, 70년대 본격적인 기계화 농법의 시작과 함께 농경지를 반듯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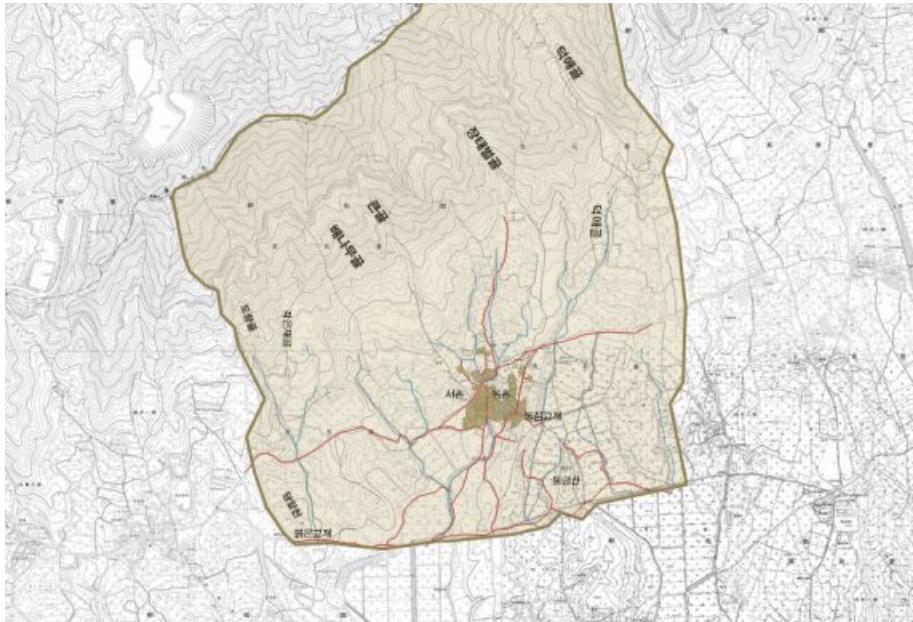
정리하는 경지정리사업¹⁰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석리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상에서 보면 동심고개 너머 ‘아래재넘어들’과 ‘웃재넘어들’ 그리고 ‘서녁들’과 ‘내창들’이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을길의 증가와 물길의 변화이다. 기존에 물길 옆이나 골짜기에는 별도의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1977년 지도에는 주요 물길 옆과 골짜기에 길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경지정리된 경작지에도 반듯한 길(농경로)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중심부에도 기존의 골목길에 더하여 살림집이 늘어남에 따라 그물망처럼 연속되도록 길이 늘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하천 정비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하천은 자연지형에 순응하면서 굴곡지고 휘어진 하천이었으나, 하천 폭을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그 옆으로 길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지정리와 함께 관계수로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살림집의 증가를 비롯해 건물이 늘어난 것이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마을에 대지(垈地)는 28필지에 불과했던 반면, 1977년 지도상에는 서촌의 서쪽 방향과 동촌의 북쪽 ‘국수사리들’, 그리고 동촌과 서촌의 남쪽 ‘권돌천’을 따라 살림집을 비롯해 농장시설 들이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석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하천과 길, 마을의 중심 등이 19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조선후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기존의 살림집 주변으로 대지(垈地)와 건물이 늘어나거나 골목길이 많아졌는데, 특히 서촌의 동쪽과 남쪽, 동촌의 남쪽, 북쪽으로 대규모 농장시설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마을 모습에 가깝게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작지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반듯해 졌고, ‘동심고개’너머 개천은 경지정리와 함께 관계수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1970년 1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공포에 의거,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에 수반한 정부의 지도감독강화 및 외국차관자금에 의한 금강(錦江)·평택(平澤)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구역 내의 경지정리사업과의 대비 등으로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게됨. 1970년도 각 시도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보고를 집계한 1차 대상면적 58만8000ha 중 1981년도 말까지 68%인 39만 9400ha를 정리 완료하고, 그 후 계속 추진됨. 경지정리(耕地整理), 두산백과 참조.



▶ 1977년 수치지형도 위에 1912년 지적원도 길과 하천 중첩(지석리 전체)

5. 지석리 마을의 현재

1) 마을의 진입공간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나 마을을 형성할 때 주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사람들의 삶에 이롭도록 땅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공통된 공간구성이 존재해 왔다.

우리 고유의 자연지리관이 가장 잘 정리되었다고 전해지는 이중한의『택리지』(擇里志, 1751년)에서도 복거총론(卜居總論)이 책 전체 분량의 거의 반을 차지할 만큼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에 대해 중요시 다루어 왔다. 택리지에 따르면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들었고, 그 어느 것이 부적당하여도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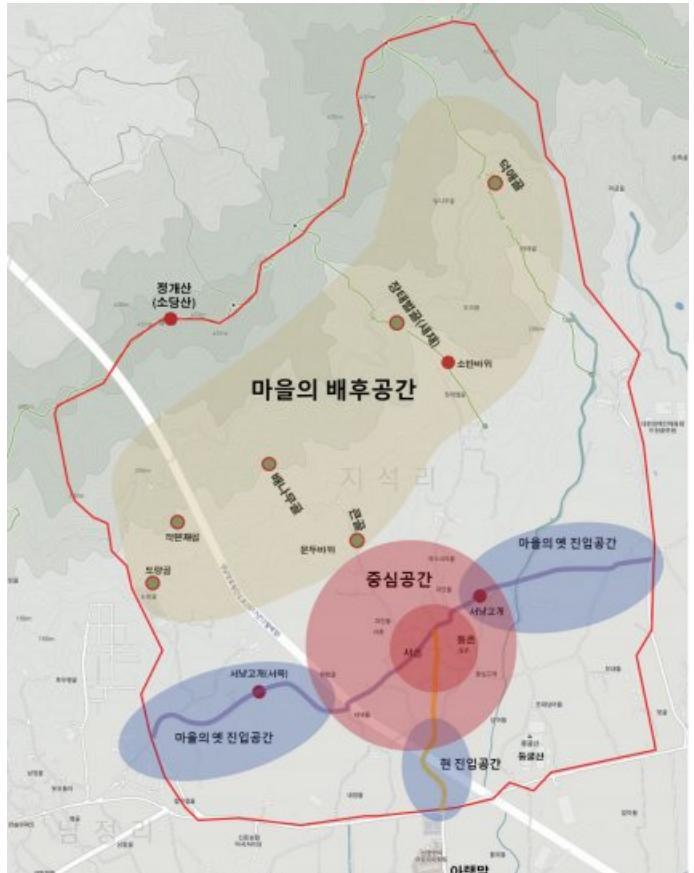
여기서 지리는 풍수(風水)이고, 생리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통마을은 대체로 적당히 높은 산을 등지고 있어 겨울의 북서풍으로부터 보호받는 양지바른 땅을 선호하였다. 마을의 남쪽에는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생리에 유리하고, 마르지 않는 수량이 확보되는 개천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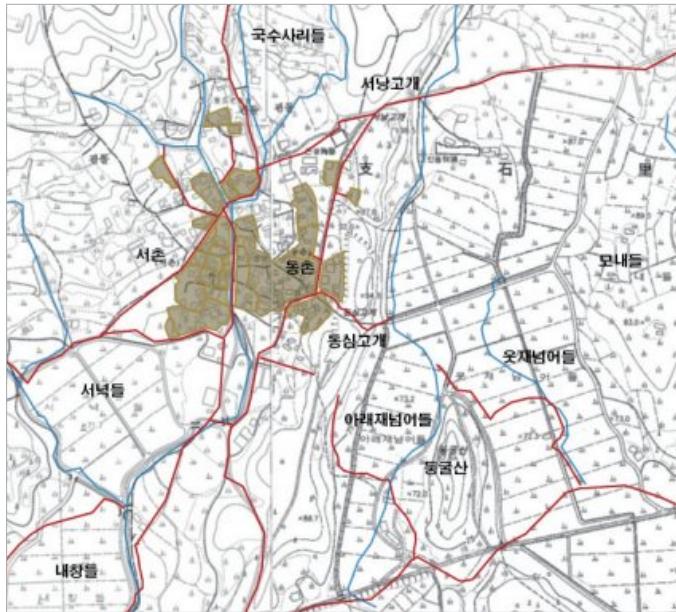
또한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의 방어를 중요시 하였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낯선 이방인이나 침입자도 되겠으나 질병이나 액운 같은 좋지 않은 일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에 대문 역할을 하는 서낭당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지석리 마을에도 서낭고개가 있다. 지금은 마을길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마을로의 진입은 남정리에서 서촌으로, 장동리에서 동촌으로 진입하는 것이 주된 길목이었다. 마을로 들어서려면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동촌과 서촌 양쪽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서낭당 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주된 이동수단이 자동차가 되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길은 옛길이 아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다. 현재 지석리로 접근하는 진입공간은 원적로를 따라 지석리의 남쪽 입구에 다다르면, 석동로와 만나는 교차로를 만나게 되고 이 교차



▶ 지석리 마을의 공간구조



▶ 1977년 수치지형도 위에 1912년 지적원도 길과 하천 중첩(마을 중심)

로에서 북쪽으로 꺾어 나지막한 고갯길을 넘으면 지석리가 나타나는데 이 길이 바로 진입공간에 해당한다.

석동로와 원적로가 만나는 교차로에는 마을의 입구답게 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낮은 언덕배기를 돌아 들어가면 성남-장호원간 도로 밑으로 나 있는 굴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마치 마을의 대문 역할을 하는 듯 하다. 마을로 어느 정도 들어서면 첫 번째 관돌천을 건너는 다리 주변 여유 공간에 마을의 관광자원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듯 지석리 마을의 진입공간은 당초 남정리와 장동리를 잇는 고갯마루 길(서당당

고개)이었으나, 지금은 마을의 남쪽 수하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진입공간이 되어 있다.

2) 마을의 중심 공간(동촌과 서촌)

마을의 중심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장소를 말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은 최소 10여 호에서 30여 호가 모여 중심공간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지석리의 경우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촌과 서촌이 마을의 중심공간에 해당한다. 마을 중심공간에는 오래된 노거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의 휴식과 정보교환 등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이다.

지석리에도 마을 중심도로(옛길)와 관돌천을 따라 수령이 약 100년 정도 되어 보이는 노거수가 2~3그루 모여 있다. 예전에는 노거수를 중심으로 마을의 중심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회관 앞에는 괸돌 17교와 마을주민들의 소망을 비는 ‘소망 계시판’과 팔각정 형태의 ‘버스정류장’,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마을 계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마을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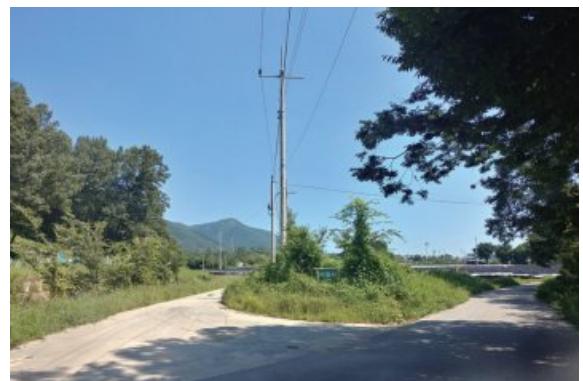
▶ 장동리에서 동촌으로 가는 서낭당고개



▶ 남정리에서 서촌으로 가는 서낭당고개



▶ 남정리에서 서촌 가는 옛길



▶ 덕애골 가는 길과 장동리 가는 옛길



▶ 현재 진입 공간(원적로, 석동로 교차로)



▶ 마을입구 관광안내 게시판



▶ 마을의 중심공간(마을회관)



▶ 마을의 중심공간(마을게시판)



▶ 마을의 중심공간(마을게시판)



▶ 마을의 중심공간(소망게시판)



▶ 마을의 중심공간(노거수)



▶ 마을중심을 가로 지르는 관돌천



▶ 덕애골 원경



▶ 덕애골 정개산(소당산) 등산로 입구



▶ 장태벌골에서 내려 본 지석리마을



▶ 큰골 산신제터 가는 길



▶ 도량고에서 내려다 본 지석리



▶ 도량골 끝자락 염불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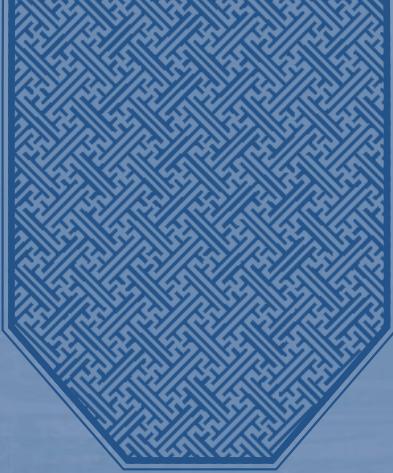
3) 골짜기 마다 형성된 마을

지석리는 정개산에서 시작되는 다수의 지맥들이 남쪽으로 흘러 마을로 유입되는데, 정개산을 중심으로 ‘물(勿)’형에 가까운 마을이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마을로 경주 양동마을을 예로 들 수 있다. 정개산에서 발원한 산줄기 하나하나마다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작은 계류들이 모여들어 ‘관돌천’에서 합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골짜기에는 오래된 옛 지명과 옛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장태벌골’에는 식품공장과 농장이 들어서 있고, 골짜기 끝자락에는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깊은 ‘큰골’은 마을의 자랑인 산신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는 골짜기인데, 그 끝자락에도 5호 정도의 전원주택이 들어선 상태이다.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절구저리골’은 예전에 절이 9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곳에도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도량골’에는 원적로 주변으로 공장 건물들이, 골짜기 끝자락에는 ‘염불선원’이라는 사찰이 있다.

이렇듯 마을의 구조와 형태의 변화를 거쳐 2017년 11월 기준 279세대 692명의 세대원이 살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은 200명 정도이다.



지석리 마을 지명과 문화유산

1. 지석리 마을 지명유래¹

지석리(支石里)는 본래 이천군 신동면의 지역이었지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동면과 둔지산면이 신둔면이 되면서 현재의 신둔면 지석리가 되었다. ‘지석리’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고지도에서도 확인되는 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지명으로 판단된다.

마을 이름인 지석리의 어원인 ‘괸돌’은 고인돌의 순 우리말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석리 고인돌은 마을 남쪽 수하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석리에도 지석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된 유적은 없다.



▶ 지석리 마을 전경

1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 하)』, 한글학회, pp.235~236 참조, 지석리 마을 어르신 면담조사 실시.

지석리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 전통마을답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공간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 서로의 의사소통과 편의를 위해 붙여진 이름들이다. 고유한 지명은 그 형태나 모양, 위치적 특성, 특정사건 등을 반영하는데 곳에 따라서는 전설이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지석리에서 내려오는 옛 지명의 대상은 산, 마을, 고적, 들, 우물, 골짜기, 고개 등이다.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은 ‘정개산’, ‘도리봉’, ‘둥글산’ 등을 들 수 있다. ‘정개산’은 우리말로 ‘소당산’이라고도 하는데, 솔뚜껑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어서 붙여졌다고 한다. ‘정개산’은 지석리 마을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격년으로 산신제를 지낼 만큼 신앙의 대상이자 신성시하는 마을의 주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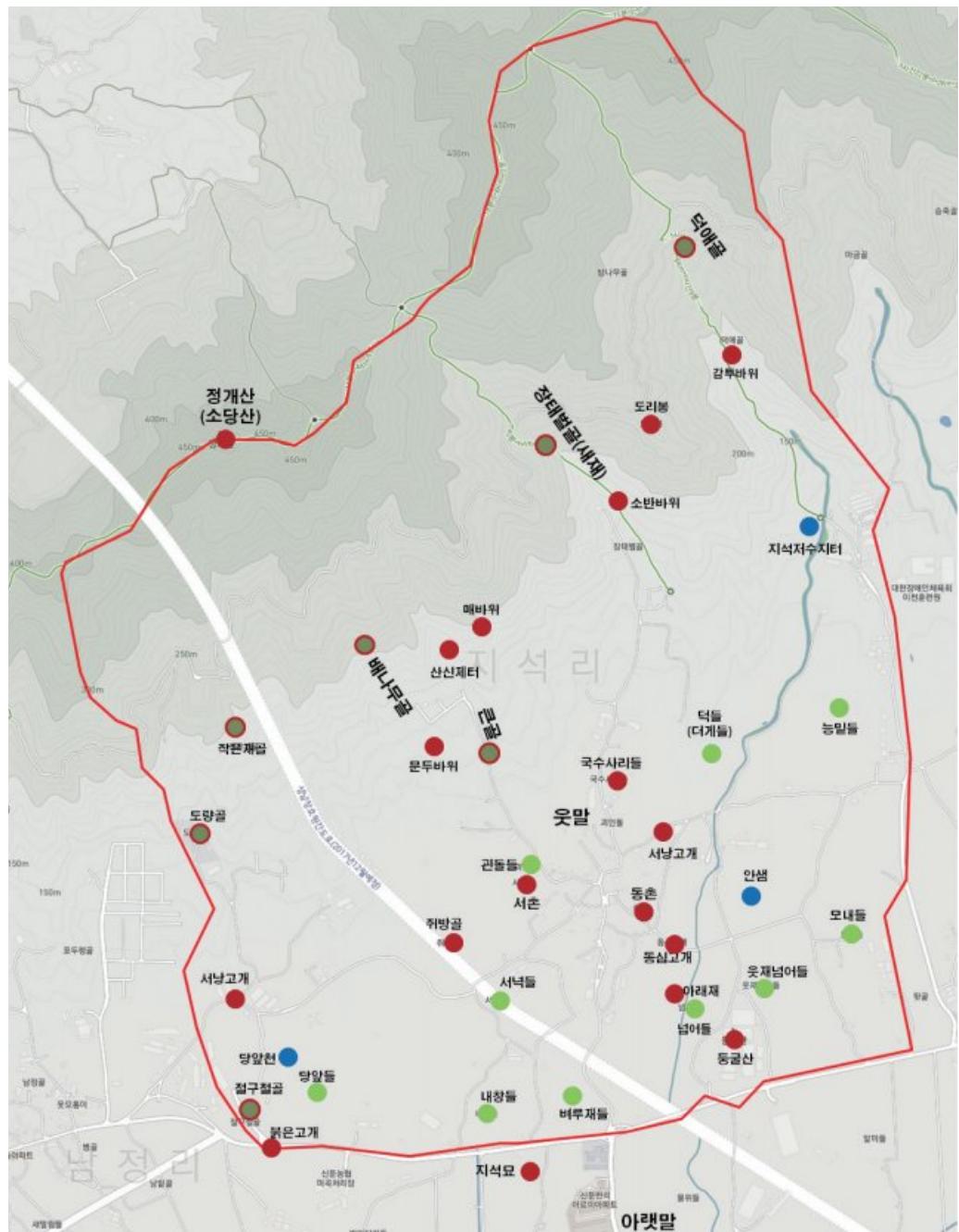
‘도리봉’은 ‘덕애골’과 ‘장태별골’ 사이에 소당산의 지류가 내려오다가 봉우리를 맷은 곳이다. ‘둥글산’은 마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산인데 수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적으로 변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공장이 들어서 있어 옛 둥글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동촌(東村)’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의 중심을 가로지는 관돌천의 동쪽에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며, ‘서촌(西村)’은 관돌천 서쪽 마을을 지칭한다. ‘웃말’은 ‘아랫말’과 대칭을 이루는 지명인데, ‘아랫말’이 수하리라면 ‘웃말’은 지석리를 가리킨다.

‘정개산(소당산)’에는 바위가 많다. 지석리 사람들은 독특한 형태의 바위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고동바위’, ‘병풍사위’, ‘소반바위’, ‘매바위’ 등이 그것이다. 모두 그 형태에서 따온 이름인데, 바위마다 전설이 서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답게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작지에 대한 지명이 다수 확인된다.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 때 특정장소의 이름을 알려주면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경작지에 대한 소유나 약속장소를 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지명이다. 지명은 대체로 인근 지명에서 따온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능밑들’은 능 아래쪽에 있는 들이고, ‘넘어들’은 고개마루 넘어에 있는 들이다. ‘서녁들’은 마을의 서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은 경작지에도 필요하지만, 식수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로 마을마



▶ 지석리 마을 고유지명과 위치



▶ 지석리 마을의 중심(동촌과 서촌) 옆 지명 위치

다 2~3개소의 우물을 확보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석리에도 ‘말젖물’, ‘밭샘’, ‘안샘’ 등과 같은 식수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여 흐르는 ‘관돌천’은 농업용수나 식수확보 차원에서 마을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개산(소당산)’남쪽 자락에 있는 마을답게 정개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갈래의 산자락이 마을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름이 붙여진 골짜기는 모두 일곱 골짜기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덕애골’은 가장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을 끼고 있는 석동로 161번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덕애골 등산로 입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정개산 능선까지가 덕애골인데 길이는 약 1.6km이고 정상까지 1시간 40분 가량이 소요된다. 비교적 완만한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골짜기 중간에 ‘감투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밤나무골’은 덕애골 서쪽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골짜기를 지칭한다. ‘장태벌골’은 도리봉 서쪽에 있는 마을에서 두 번째로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정상 능선까지 약 1.1km로 50분 가량이 소요된다. 이 골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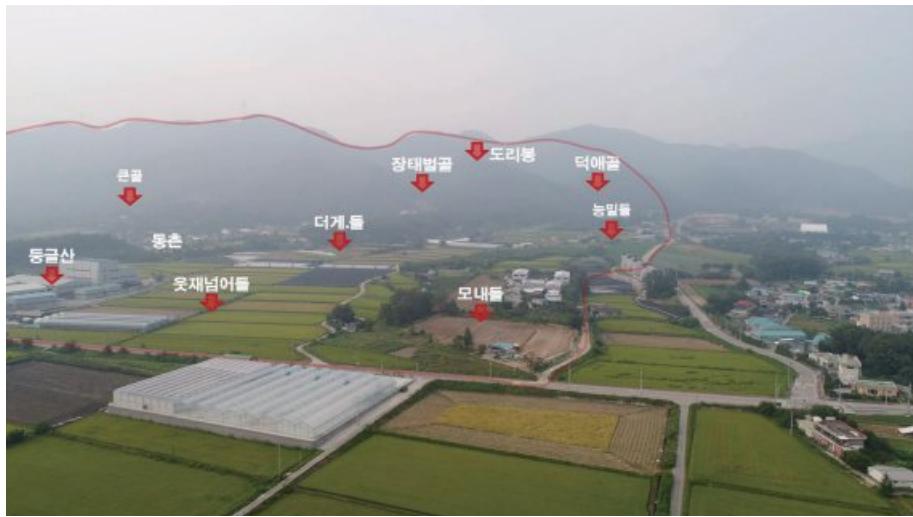
▶ 지석리 마을의 동쪽에서 바라 본 옛 지명 위치

기는 일명 ‘새재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길이 곤지암읍 봉현리(새재)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산신제터가 있는 ‘큰골’과 돌배나무가 있는 ‘배나무골’, 쥐방울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쥐방골’,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작은자골’, 절구저리 북쪽에 위치한 ‘도량골’등이 지석리 정개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골짜기마다 계곡이나 실개천이 형성되어 있어 찾는 이들로 하여금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산 자락에 위치한 지석리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개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새재’는 곤지암읍으로 가는 고갯길이고, ‘성황당고개’는 장암리에서 지석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성황당이 있는 고개를 일컫는다. ‘동심고개’는 동촌에서 옷재넘어들로 가는 작은 고개를 말하고, ‘아래재’는 동촌에서 넘어들(너머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이밖에도 지석리 서남쪽에 ‘붉은고개’가 있는데 이는 땅 빛깔이 붉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밖에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룡이인 ‘동우리재’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새 등우리 같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등굴산을 돌아가는 모룡이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 절구절골 주변 옛 지명 위치



▶ 웃재님어들 주변 옛 지명 위치

■ 지석리 마을 옛 지명

분류	명칭	내용	위치 / 비고
산	정개산	마을의 주산, 소당산	지석리 마을 북쪽
	도리봉	덕애골과 장태벌골 사이 봉우리	덕애골 서쪽 봉우리
	동글산	넘어들과 웃재넘어들 사이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원적로 변에 있음
마을	관돌, 자석	지석리	지석리 마을
	동촌(東村)	관돌 동쪽에 있는 마을	관돌천 동쪽마을
	서촌(西村)	관돌 서쪽에 있는 마을	관돌천 서쪽마을
	웃말	관돌 위쪽의 마을	지석리
	아랫말	관돌 아래쪽의 마을	수하리
고적	관돌, 자석	고인돌, 자석, 지석리지석묘, 관돌 서남쪽에 있는 고인돌	수하리에 있음
바위	고동바위	지석리에 있는 바위, 신둔면에 편입됨	-
	병풍바위	지석리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겼음	-
	소반바위	지석리에 있는 바위, 소반 같이 생겼음	도리봉 남쪽
	매바위	지석리에 있는 바위	산신제터 인근 있음
	감투바위	덕애골에 있는 바위, 감투 같이 생겼음	
	문두바위	큰골 남쪽에 있는 바위	큰골 전원주택 남쪽
들	관돌 들	관돌이 있는 들(괴인들)	큰골 입구에 있는 들
	능밀 들	덕들, 더개들, 대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서쪽 들	덕애골 남쪽들
	벼루재들	지석리에 있는 들, 벼루같이 생겼다고 함	내창들 동쪽
	서녁에	지석리 서편에 있는 들(서녁들)	성남-장호원간도로 상
	모내들	웃재넘어들 동쪽에 있는 들	지석리 동쪽 경계
	넘어들	동심고개와 동굴산 사이에 있는 들	동굴산 서쪽
	웃재넘어들	동심고개 넘어 동굴산 동북쪽에 있는 들	동굴산 동쪽
	덕들	더개들이라고도 함	서낭고개 너머 북쪽
	당앞들	당앞천 인근(당암들)	당앞천 인근들
	알밀들	관돌에 있는 들	수하리
우물	방아다리	관돌에 있는 들	수하리 지석묘 남쪽
	말젖물	관돌에 있는 샘, 말젖과 같이 끊이지 않고 잘 난다고 함	-
	밭샘	서촌 바깥쪽에 있는 샘	지오박스 공장 옆(추정)
골	안샘	동촌 안쪽에 있는 우물	웃재넘어들 북쪽
	덕애골	지석리 가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의 북동쪽
	밤나무골	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골짜기로 덕애골 서쪽에 있음	-
	도량골	지석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구절골 북쪽에 위치	마을의 서쪽

골	쥐방골	지석리에 있는 골짜기. 쥐방을 같은 돌이 많음	성남-장호원간도로 상
	작은자골	지석리에 있는 작은 골짜기. 절터가 있음(작은재골)	도량골 북동쪽 골짜기
	큰골	지석리에 있는 골짜기. 산신제터가 있는 골짜기	산신제터 가는 골짜기
	배나무골	관돌에 있는 골짜기. 돌배나무가 있음	큰골 서쪽
	장태벌골	새재 밑에 있는 골짜기. 새재골	장태벌골
고개	새재	지석리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새자로 넘어가는 고개	덕애골
	아래재	넘어들 위쪽에 있는 고개	넘어들 인근
	절구저리	지석리에 있는 고개. 절이 아홉 있었다고 함	지석리 서남쪽 골짜기
	동심고개	지석리에서 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동산고개)	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붉은고개	지석리에 있는 고개. 흙이 붉음. 남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원적로
	성황당고개	마을의 동쪽과 서쪽에 서낭당이 있었음	도암리, 남정리로 가는 고갯마루
	모롱이	등우리 재	지석리에 있는 산모통이. 새 등우리 같다고 함
저수지	지석저수지	관돌 동북쪽에 있는 저수지	지금은 없어졌음

2. 지석리 마을 문화유산

1) 오래된 나무(고목)

오래된 마을답게 마을의 중심에는 고목들이 자라고 있다. 최소 2~300년 정도의 수령으로 보이는 고목은 마을회관 앞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마을의 중심을 알리는 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마을을 수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관돌교

마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바로 관돌천이다. 관돌천을 경계로 하여 동촌과 서촌으로 구분되는데, 2013년 큰 수해를 입어 2014년 정비가 완료 되었다고 한다. 관돌천

중간 중간에 동촌과 서촌을 잇는 다리가 설치되었는데, 관돌 11교부터 21교까지 11개의 다리가 설치되었다. 관돌천과 관돌교는 지석리 마을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3) 성황당 터

성황당터는 옛 마을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지석리에도 성황당터가 있는데, 마을 동쪽 입구와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으며,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데, 산신제 7일 전에 이곳에 금줄을 걸어 부정을 예방하고 있다.



▶ 관돌천과 관돌교



▶ 성황당 터

4) 지석리 지석묘(고인돌)

지석리 지석묘는 원적로 남쪽 경지정리 된 논 중간에 위치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석리가 아니라 수하리에 해당된다.

지석묘는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인데, 지석리 지석묘는 현실을 지하에 두고 그 위에 개석을 얹은 탁자식이다.

강화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북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이곳 주변에서 돌칼, 돌화살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그 행방은 알 수 없다. 지석묘가 위치한 일대는 청동기시대 또는 백제 초기로 보이는 봉토분 적석층이 확인되는 고층들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마을로 볼 수 있다.



▶ 지석리 지석묘



▶ 소당산과 지석리 마을



▶ 산신제 터

5) 소당산(정개산)

지석리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정개산(소당산)에 기대에 살아온 관계로 그와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온다. 이 중에서는 특정 자연물(굴, 바위 등)을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여 신성시하거나 기리는 경우가 많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자산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한다.

소당산(정개산)

오래전부터 지석리마을 주민들에게 신성시되어 온 산이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고도 : 467m), 봉현리, 신촌리, 수양리와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중정남한지』에 따르면 정개산(鼎蓋山)은 “실촌면에 있으며 ‘산의 형세가 높고 우뚝하며 흡사 솔뚜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 소당산은 정개산의 우리말이다.

소당산 산신제터

정개산(소당산)에 기대어 사는 지석리 마을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소당산을 신성시 여겨왔으며 정성을 드려왔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당산 산신제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홀수년도 음력 2월 2일 밤 10시경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정성을 드리는 내용은 나라의 태평과 재앙으로부터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손의 번창과 매년 풍년이 들기를 축원했다고 한다. 산신제터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큰골’

2 국토지리정보원, 「정개산(鼎蓋山)」,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의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

매바위와 감투바위, 소반바위

• **매바위** : 소당산 산신제터를 마주보는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매 형상의 바위이다. 하단의 큰 바위를 주축으로 매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매 바위가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한다.

• **감투바위** : 지석리 동쪽 ‘덕애골’로 올라가는 계곡의 한 쪽에 감투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바위의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다 하여 감투바위가 되었는데,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임금이 내린 어사화를 복두에 꽂고 삼일유가(三日遊街) 할 때 썼던 복두와 비슷하게 생겼다. 바위 옆에는 어사화처럼 자란 소나무가 있어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는 과거시험 전에 이곳에 와서 바위를 만지면 급제를 하였다 전설이 내려온다고 한다.

• **소반바위** : 소반바위는 ‘덕애골’과 ‘장태별골’사이에 남쪽으로 뻗어 내로 온 소당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소반바위는 넓고 평평한 것이 마치 소반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지석리를 지키던 산신령이 식사를 하기 위해 지팡이를 놓고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 바위에 산신령이 짚었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밥상 모양을하고 있다.



▶ 매바위



▶ 감투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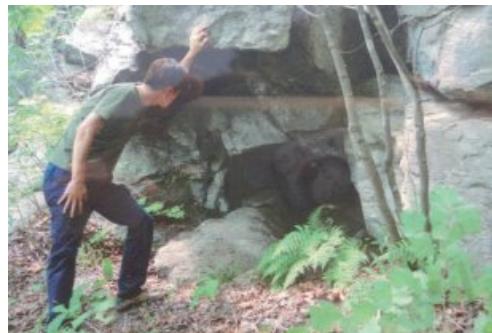
▶ 소반바위



▶ 화틀굴

지석리 회틀굴과 베틀굴

• 회틀굴 : 회틀굴은 ‘배나무골’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름 철에는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회틀굴의 회틀은 회토(懷土)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회토란 ‘안락한 거처를 생각하는 곳’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회틀굴의 ‘회’는 석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래 전 이곳에서 석회를 채집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깊은 굴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바위에 가까워졌다.



▶ 베틀굴

• 베틀굴 : 베틀굴은 소당산 능선 바로 아래쪽 ‘장태벌골’ 인근에 위치해 있다. 베틀굴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석리에 사는 여자들이 난을 피해 이곳에 숨어서 베를 짚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마을주민들이 이곳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공군들의 작전 지휘소로 이용되는 바람에 국군이 포를 사격하여 굴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비교적 협소한 굴로 남아 있다.

옛 성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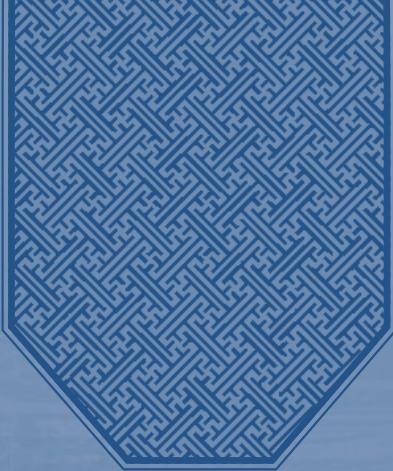
소당산 산중턱 7부 능선(소방도로 아래쪽)을 따라 성벽을 쌓은 듯한 석축열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어르신들의 제보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길이는 수백 m에 이르고, 잔존 높이는 약 1.5m~2.0m 가량이 었지만, 2013년 수해로 석열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 신둔면 일대가 삼국의 각축장이었다는 점과 지석리 마을에서 인근의 설봉

산성이 시야권으로 들어오는 점을 염두해 두면, 백제나 신라의 확장을 방어하기 위해 고구려인들이 쌓은 산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추측일 뿐 정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성터의 성격을 밝힐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석리 매장문화재

이천시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지석리라는 마을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 역사시대 매장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해 있다. 장태벌골에서 정개산으로 진입하는 산기슭 초입(지석리 산1-1)에는 ‘옹진에코밸리 도시계획시설 유물산포지(연대미상)’가 자리잡고 있으며, 큰골의 끝자락에는 고려시대 ‘지석리 유물산포지(지석리 산36번지)’와 ‘지석리 채석장(연대미상)’이 위치해 있다. 채석장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석묘를 만들기 위해 규모 있는 바위를 채석하기 위한 장소이거나, 또는 ‘지석리 옛 성터’에 사용할 성돌을 채취하기 위한 채석장일 가능성이다. 하지만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유물산포지’와 ‘채석장’에 대한 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IV

지석리 마을 생활과 모임

1. 지석리 마을 살림집

1) 오래된 살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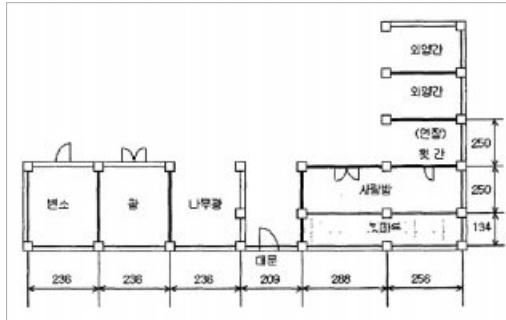
지석리 살림집에 대한 조사는 1998년 경기도박물관팀의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경기민속지』에 일부가 보고되었으며, 2000년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이천시문화원에서 수행한 문화유산 및 민속조사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¹

본 절에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료를 1차적으로 정리한 후 17년이 경과한 2017년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살림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연구자료는 조사내용에 큰 영향을 없는 범위에서 필자가 수정하였다.

지석리 허상희씨 집

- **개요** : 허상희씨 댁은 지석리 175번지(석동로 34번길 55-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회관 동쪽에 해당하는데 편돌천을 중심으로 본다면 마을회관 뒤편에 해당한다.
- **기존연구자료** : 이 집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대문간채)로 구성된 튼 ‘ㅁ’자 집이다. 사랑채는 예전의 형태 그대로 창고로 쓰이고 있으나, 안채는 7년 전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사랑채는 합석지붕이고 벽은 흙벽에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사

¹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천시문화원,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 · 민속조사보고서』, 2005, pp.354~370.



▶ 지석리 허상희씨택 사랑채(문간채) 평면도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p.355 인용)

랑채가 ‘ㄣ’자형인 것은 신둔면 일대에서는 독특한 형태이다. 허씨집 사랑채는 대문 좌측으로 나무광, 광, 뒷간이 있으며, 우측에는 사랑채가 있다. 사랑방 모퉁이에는 횃간(연장간), 두 칸의 외양간 등이 있는데 예전에 소를 키웠다고 한다. 사랑방 바깥쪽에는 뒷마루를 만들어 사랑방 손님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황 : 안채는 2000년 조사 당시의 모습과 같은 판단되지만, 조사 당시 사랑채는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는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전원주택의 마당 같이 정갈한 느낌을 준다. 안채는 2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안채와 별채라 할 수 있다. 집은 안채와 별채가 직각으로 만나 전체적으로는 ‘ㄱ’자형 배치이며, 편돌천 방향으로 서남향하고 있다. 그리 특색 있는 집은 아니고 여느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근에 지은 조적식 주택이다.



▶ 허상희씨택 2000년 조사 당시 전경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p.57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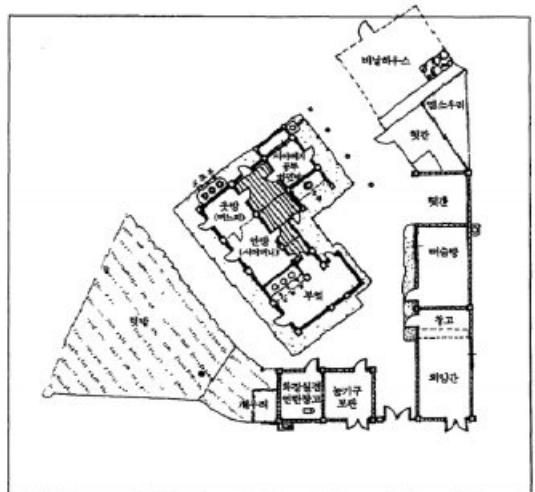


▶ 허상희씨택 전경(2017)

지석리 김낙진씨 집

• **개요** : 2000년 조사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김낙진씨 댁은 신둔면 지석리 186번지로 되어 있으나, 마을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166번지가 정확한 위치로 판단된다. 김낙진씨 댁은 마을회관에서 80m가량 석동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장태별골로 가는 갈림길 상에 위치해 있다. 굽이쳐 흐르는 편돌천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 **기존연구자료** : 안채는 목구조집으로 건축 연대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조선말에 집주인이 주관²이란 벼슬을 했다고 해서 ‘박주관집’으로 불린다. 집의 일부가 20세기 전반기에 수리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집의 배치는 ‘ㄱ’자 집의 안채와 ‘ㄴ’자 행랑채가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안채는 6칸 크기로 안방을 몸채로 하여 아래쪽이나 건년방 쪽에 모두 퇴칸이 형성되어 있다. 지붕은 원래 초가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방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부엌을 두었고, 위쪽에 웃방(며느리방)이 있으며 대청을 사이에 두고 건너방이 위치해 있다. 문간채는 바깥대문에서 볼 때 전면 4칸이며, 안마당쪽으로 꺾여서 5칸 규모의 외양간과 창고, 머슴방, 헛간 등이 위치해 있다. 모든 벽체에는 몰탈을 빌라 벽체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원래는 목조가구에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석리 김낙진씨댁 배치평면도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p.357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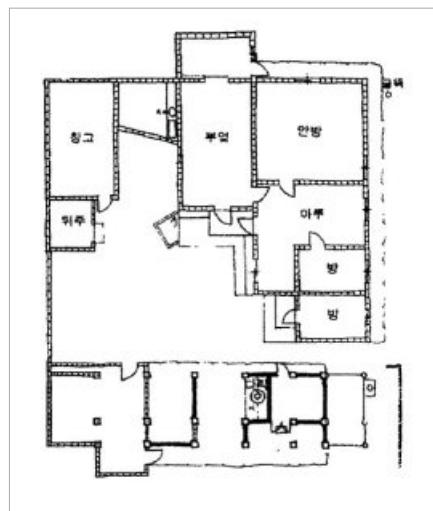
▶ 김낙진씨 댁 현재 모습

2 주관(州官)이란 벼슬은 조선시대 지방관을 두루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참조.

- 현황 : 김낙진씨 댁 역시 옛집을 허물고 주택을 신축한 결과, 2000년 조사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의 집은 건식기법으로 지은 경량 철골조 집으로 보이는데, ‘—’자형 안채 앞에 직각으로 부속 채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지석리 강우석씨 집

- 개요 : 강우석씨 댁은 신둔면 지석리 186-3번지(석동로 56번지) 관돌천 변에 위치해 있는데, 옛 지명으로 하면 ‘동촌’에 해당한다. 관돌 15교 건너에 위치해 있다.



▶ 지석리 강우석씨 댁 배치평면도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p.363 인용)

• 기존연구자료 : 안채와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1980년대에 블록조 집으로 개조되었고, 행랑채는 기둥에 자귀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20세기 전반기에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집의 배치는 ‘ㄱ’자 안채에 ‘—’자 행랑채가 전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집은 남남동향, 대문은 동향이다. 안채는 최근에 블록조로 신축했지만 전통적인 평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안방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부엌과 창고가 연이어 있고, 안방 앞에는 마루와 건너방이 차례로 위치해 있다. 문간채는 보칸이 한칸 반으로 전면에 퇴칸을 두고 있으며, 도리칸이 7칸이다. 정 중앙의 대문간은 전후가 모두 개방되었고, 앞 벽쪽에 예전 대문의 시설 흔적이 남아있다. 대문간 좌우로는 사랑방과 부뚜막, 외양간 등이 위치해 있다.



▶ 강우석씨 댁 현재 모습

• 현황 : 강우석씨 댁은 조사 당시에 비해 배치와 형태가 크게 변모하였다. 20세기 전반기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 사랑채는 이미 헐렸고, 2000년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블록조였던 안채 역시 새롭게 신축하였다. 현재의 집은 붉은 벽돌로 외장을 하고,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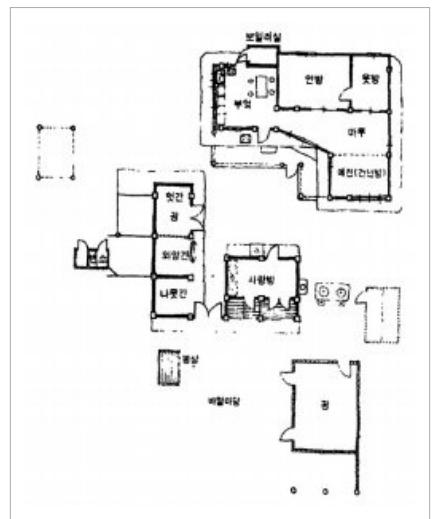
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올린 조적식 주택이다. 집의 배치는 관돌천쪽으로 서향해 있으며, 측면으로 가설재로 만든 부속채가 붙어 있다. 정방형에 가까운 일자형 집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의 모습이다.

지석리 강운태씨 집

• 개요 : 강운태씨 댁은 신둔면 지석리 166-2번지(석동로 75번지)에 위치해 있다. 마을 회관에서 석동로를 따라 국수사리들(장태벌골) 방향으로 굽절되며 관돌천을 동쪽에 끼고 있는 위치이다.

• 기존연구자료 : 기존 조사연구에 따르면 이 집은 광복 직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나 안채는 1990년 직후에 내부가 개조되어 입식으로 바뀌었다.

집의 배치는 튼 'ㅁ'자 집으로서 전통적인 배치 방식의 전형이다. 안채는 대청기준으로 서서남향이고, 사랑채는 대문 기준으로 남남동향이다. 안채는 6칸 규모의 'ㄱ'자 집인데 전퇴를 두고 있으며, 안방을 기준으로 좌우에 웃방과 부엌이 자리잡고 있으며, 대청을 사이에 두고 건넌방이 자리잡고 있다. 조사 시점은 기준으로 대청마루는 안방과 건너방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입식으로 개조하여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간채는 사랑채라고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평사집이며 슬레이트로 모임지붕이다. 문간채는 왼쪽으로부터 2칸을 통칸으로 해서 사랑방을 두고 전면에는 뒷마루를 두어 개방했다. 대문간 옆으로 꺾여 올라가면서 나뭇간과 외양간, 헛간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 지석리 강운태씨 댁 배치평면도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p.368 인용



▶ 강운태씨 댁이 있었던 지석리 166-2번지 전경

- 현황 : 불과 얼마 전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렵게도 현재는 멸실되고 없다. 현재 집터는 나대지로 남아 있다.

2) 지석리 살림집의 변화 양상

지석리 살림집 현장조사와 지역 어르신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살림집의 변화양상을 시대에 따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석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상한은 조선시대 구한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1912년 조사된 지적원도에 따르면 지석리에는 약 28호 가량의 살림집이 있었던 작은 시골마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기와집이 한두 집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역시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석리 노인회장 허동(80세) 어르신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 폭격으로 많은 수의 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한 슬레이트 지붕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한식 목조주택도 마을 곳곳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남아 있는 오래된 목조주택(대문간채, 사랑채)의 경우 대부분 1960년대에 지은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지은 주택은 1채가 남아 있다.

이후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함석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초가집 대신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석리 79번길 5-15번지 살고 계신 정순임(68세) 어르신에 따르면, 본인이 1972년도에 이곳에 시집을 왔는데 당시만 해도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마을이었다고 한다. 시집 올 당시까지만 해도 기와집은 드물게 있었고, 초가집, 돌담집이 마을 곳곳에서 있었는데, 이후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지붕을 개량한 집과 시멘트 블럭으로 지은 집이 점점 늘어났다고 한다. 정순임 어른신 댁은 1988년에 조적조 양옥집으로 새로 지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거의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4년을 전후로 하여 기존 살림집을 허

물고 조적조 슬라브지붕집이라 불리는 양식주택이 본격적으로 마을에 지어지기 시작 했는데, 지금 마을에 있는 양식주택 대부분이 이때 지어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옛 집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전통살림집의 경우 안채와 대문간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채는 안주인의 살림살이 공간이 라면 대문간채에는 한쪽으로 바깥주인 기거하는 사랑방과 함께 농사에 필요한 공간인 창고, 외양간, 헛간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석리 마을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살림집에 있어 이러한 공간들이 요구되는데, 안채의 경우 생활문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양옥집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내려온 대문간채는 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원신(63세)씨 댁(석동로 69번길 14-13번지) : 큰골로 가는 석동로 69번길에서 갈림길을 따라 약 70m쯤 올라가면 가장 마지막집이 박원신씨 댁이다. 'ㄱ'자형 안채와 '-'자형 대문간채와 '-'자형 헛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향한 'ㅁ'자형 배치이다. 안채와 대문간채 모두 전통목구조 집인데, 안채는 78년도에 지은 것이고, 대문간채는 1959년도에 지었다고 한다. 대문간채는 전퇴가 있는 1.5칸 규모로 5량 집이다. 대문간채 한쪽으로는 전퇴가 있는 사랑방(문간채)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외양간이나 헛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올렸다.

• 혀경무(62세)씨 댁(석동로 67번길 15-4번지) : 최근에 지은 양옥집 안채와 1960년대에 지은 대문간채가 남아 있는 집이다. 안채는 조적식으로 지은 양식 건물로 맞배지붕에 시멘트 기와를 올려 놓았다. 안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택과 다를 바 없다. 1960년대 지었다고 하는 대문간채는 대문간채라기 보다 대문간과 살림집이 연속된 'ㄱ'자집에 더 가깝다. 대문간을 길에 면하여 두고 양쪽으로 방과 뒷마루 부엌이 있는 살림집이다. 현재는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문 역시 사용하지 않고 막아 놓았다. 집으로 출입은 별도로 마련된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 박원신씨 댁 대문간채



▶ 박원신씨 댁 안채 전경



▶ 하경무씨 댁 대문간채와 옛 살림채



▶ 하경무씨 댁 신축한 안채



▶ 서세원씨 댁 대문간채



▶ 서세원씨 댁 대문간에서 바라본 안채



▶ 한정석씨 댁 대문간채



▶ 한정석씨 댁 안채

• 서세원(62세)씨 댁(석동로 67번길 15-4번지) : 관돌천 변에 있는 서세원씨 댁은 한국 전쟁과 관련한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이 집 역시 현대식으로 지은 양옥집 안채(‘ㄱ’자집)와 1960년대 지은 것으로 보이는 대문간채(‘ㄴ’자집)로 구성되어 있어 틈 ‘ㅁ’자 집에 가깝다. 안채는 붉은 벽돌로 치장을 하였으며, 지붕은 팔작지붕형태로 현대식 기와를 올렸다.

대문간채는 평4량 구조로 길에 면한 대문간 오른쪽으로 작은 쪽문을 두었는데, 쪽문을 들어서면 대문간에 연이어 사랑방 2칸이 마련되어 있다. 사랑방 전면에는 뾰마루가 있다.

대문간 왼쪽으로 1칸의 혀간이 있고, 북쪽으로 연속된 행랑채에는 혀간과 외양간 등이 줄지어 있는데, 지금도 일부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사랑방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문간과 혀간의 기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정석(75세)씨 댁(석동로 66-9번지) : 한정석씨 댁은 서세원씨 댁 옆집이다. 1990년대에 지은 안채인 양옥집과 1960년대 지은 대문간채(‘ㄴ’자집)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적조 평슬라브 집이고, 대문간채는 3칸 규모의 3량 집이다. 대문간채 양 옆으로는 혀간(창고)가 있으며, 사랑방은 별도로 없다.



▶ 서태석씨 댁 대문간 및 사랑방



▶ 서태석씨 댁 안채 전경



▶ 김진광씨 댁 전경



▶ 김진광씨 댁 별채

• 서태석(83세)씨 댁(석동로 66-11번지) : 서태석씨 댁은 한정석씨 댁 옆집이다. 이 집 역시 현대식으로 지은 양옥집 안채와 1960년대 지은 것으로 보이는 대문간채('ㄴ'자집)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를 제외하면 서세원씨 댁과 유사하다. 안채는 붉은 벽돌로 치장한 평슬라브집이다. 길에 면한 대문간채는 평4량 구조로 오른쪽에는 사랑방 2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랑방 전면에는 뒷마루가 있다. 대문간 왼쪽으로 헛간 1칸이, 북쪽으로는 헛간과 외양간이 있는데, 지금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문간의 구조와 형태, 규모, 사랑채의 규모와 구성이 모두 서세원씨 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목수가 같은 시기에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 김진광(88세)씨 댁(석동로 76-26번지) : 김진광씨 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동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대식으로 지은 양옥집 안채와 1945년경 지은 별채는 남아있으나, 대문간채나 부속채는 남아있지 않다. 김진광 어르신에 따르면 원래는 안채, 사랑채, 별채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별채만 남았고 100년이 넘었던 안채는 1994년에 신축하였다고 한다. 남향한 안채는 조적조 슬라브집인데, 지붕은 우진각지붕 형태로 마감하였다. 별채는 안채 바로 서쪽에 동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도리칸 3칸, 보칸이 1칸 반인 규모이다. 별채의 제일 남쪽에는 별채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닫이 문 앞에 작은 쪽마루를 설치해 놓았다. 가운데 칸은 광이고, 가장 북쪽에 있는 방은 원래 외양간이었는데 소를 키우지 않아 방으로 개조했다가 지금은 별채 모두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최근에 지어진 주택

몇 해 전부터 불어 닥친 전원주택 열풍에 지석리에도 최근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다. 지석리가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로서의 장점은 첫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지석리는 정개산 남쪽 자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별이 잘 드는 마을이다. 또한 정개산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골짜기마다 흐르는 계류와 식생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해 준다. 둘째, 지리적 이점이다. 최근 신설된 경강선 ‘신둔도예촌역’은 마을의 중심인 마을회관에서 불과 2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마을의 서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성남-장호원간 도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매우 높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전원주택들은 공통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전원주택 주민들은 대부분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주민과의 친목이나 화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적 고리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주로 전원주택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잡게 되어 마을의 전체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석리에서 전원주택은 마을의 중심부 보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골짜기에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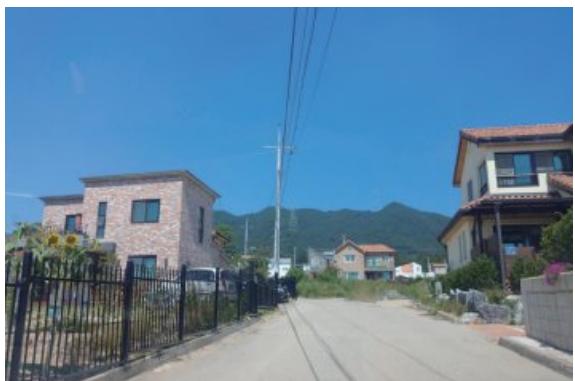
▶ 장태별골 신축주택1



▶ 장태별골 신축한옥



▶ 장태별골 신축주택2



▶ 절구저리 전원주택단지1



▶ 절구저리 전원주택단지1



▶ 큰골 신축전원주택

IV. 지석리 마을 생활과 모임

자리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절구저리’인근이다. 이곳에는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다. 또한 ‘장태벌골’이나 ‘큰골’에도 전원주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세련되고 조형적인 외형을 띠고 있으며, 경관이 우수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석리 마을 농업과 두레

지석리의 농사 관련 문화는 2017년 7월 27일 마을회관에서 만난 서정호·이근웅 어르신의 제보를 중심으로 하여 7월 28일 김진황 어르신, 9월 11일 서상수 어르신의 제보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 지석리의 농업

지석리의 농토는 대부분 논으로 사용한다. 여주이천 자체쌀이라고 할 정도로 예부터 쌀이 맛있기로 유명한 이천은 토질이 유난히 좋아 쌀맛이 좋다고 한다. 워낙 쌀농사가 유명하고 잘 되다 보니 마을에 과수하는 농가는 없다. 밭에는 주로 들깨·참깨·콩 등의 작물을 심는다.

지석리에서 모내기는 5월 쯤에 이루어지고, 해방 이후에는 직파가 아닌 줄곧 줄모로 모를 냈다. 김매기는 세 번 진행되는데, 첫 번째 김매기는 모 심고 2~3주 후에 호미로 하며 ‘애벌’이라고 한다. 두 번째 김매기는 애벌 김을 매고 10~15일 쯤 후에 호미를 하며 ‘이듬이’라고 한다. 세 번째 김매기는 이듬 김을 매고 10일 정도 후에 맨손으로 하는데 ‘훔치기’ 또는 ‘문지르기’라고 한다. 간혹 아주 부지런한 농군이나 세 번째 김을 맨 후에도 논에 잡풀이 있으면 네 번 김을 매기도 한다. 네 번째 김매기는 손으로 훔치는 정도로 한다.

2) 두레와 농악, 백중놀이

예전에 지석리에서도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논농사 지을 때 장대 꼭대기에 꿩의 꽁지털을 꽂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꽹과리·북 등의 농악기를 치고 들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마을의 70대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어른들 뒤에서 따라다니 기만 했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 보진 못 했다고 한다. 1970년대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집단적인 농업문화가 급격하게 소멸한 탓이다.

지석리에서 깃발을 앞세우고 악기를 치며 다닌 것을 ‘두레’ 또는 ‘두레 논다’고 했다. 실상 두레는 노는 조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집단 노동조직이다. 모내기 때는 두레를 별로 놀지 않고, 주로 김매기 때 두레를 짰다. 두레를 짰는 것은 마을에서 연세가 높은 양반이 ‘좌상’이 되어 일꾼을 모은다. 그렇게 모은 일꾼들이 순서를 정해 몰려다니면서 김을 맨다. 일의 체계나 규율은 ‘좌상님이 알아서 하라’고 할 정도로 좌상의 권위가 높았다.

김을 매러 다니다 보면 옆 마을 두레와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라 지석리 사람 논이 수하리에 있기도 하고, 수하리 사람 논이 지석리에 있기도 해서 일을 하러 가거나 일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길을 먼저 차지하려고 두 마을의 두레패가 싸움을 하게 된다.

두레 싸움은 네가 앞서 가냐, 내가 앞서 가냐를 두고 상대 마을의 깃발(농기, 두레기)을 뺏거나 꺾으려고 서로 드잡이를 하는 식이다. 깃발을 든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은 물론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힘으로 상대 마을의 깃발을 빼앗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깃발을 빼앗긴 마을은 지는 것으로 되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 마을은 이긴 마을의 깃발만 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가기 마련이었다. 지석리에는 젊은 청년이 많아서 두레 싸움에서 지는 법이 별로 없는 강한 두레패였다고 한다. 지석리 두레의 이 같은 내력은 현재 마을 어르신들이 윗대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로 정리된다.

두레와 함께 전승되던 마을의 농악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고, 근래에 와서도 옛 장단

을 전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으나,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복이 틀렸네, 꽁과리가 틀렸네 하며 장단이 맞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았다. 농악 장단이 맞지 않고 제각각으로 된 것은, 스무 마지기 모를 심으려고 일꾼이 스물 다섯명 모이면 밥 광주리 이고 오는 사람도 스물 다섯이 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협조와 배려가 넘쳤던 시절이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화로 개별화 된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세 번째 김매기를 마치고 추수를 하기 전에 ‘호미씨세’를 한다. 호미씨세는 논농사가 왕성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농군들의 놀이로, 모든 김매기를 마쳤으니 더 이상 호미를 쓸 필요가 없어져 호미를 씻어 농청(農廳)같은 곳에 걸어두고 한여름 동안의 노고를 풀며 논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지석리에서는 칠월 중순 백중 때 또는 칠월 말쯤에 집집의 사정에 맞게 쌀을 거두어서 마련한 경비로 추어탕을 끓이거나 고기와 술 등을 마련해 들이나 골짜기에서 한바탕 노닐곤 했다는데,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3. 지석리 마을 세시와 명절

지석리 마을의 세시와 명절 그 외 생활에 대한 내용은 2017년 7월 28일 마을회관에서 여러 제보자들을 통해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 세시와 풍속

지석리의 세시와 풍속은 다른 경기지역의 세시풍속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며, 근래 들어서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설과 추석 등에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차례를 지내는 등의 풍속을 제외하면 별도로 제시할 내용이 많지 않았다. 다만 70~80년대까지 마을의 자치 방범활동으로 야경돌기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고, 현재까지도 매년 12월 말에 대동회의를 크게 개최한다는 점에서 전래적인 마을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지석리 생활에 관한 제보자들, 명단은 원쪽에서 오른쪽 순서
이정선(77세, 범띠), 박순이(70세, 쥐띠), 김종명(70세, 쥐띠), 서일하(72세, 개띠), 김택순(77세, 뱀띠),
김영순(69세, 소띠), 정영자(73세, 닭띠), 김윤호(75세, 양띠), 유병순(67세, 토끼띠)

정월 풍속

설이 되면 지석리에서도 떡국을 끓여 먹는다. 예전에는 모든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는 건 아니었고, 좀 사는 집에서는 떡국을 끓이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찌개 같은 것을 끓여 먹었다. 잘 사는 집에서는 막걸리를 한 말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내기도 했다. 떡국도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아서 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절구에 찧어서 가래떡을 만들기도 했다.

정월이면 팽과리·장구 등을 들고 농악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놀았다. 아무 가정이나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고, 부엌에 가마솥의 뚜껑을 뒤집어 쌀 한말을 놓은 집에 들어가 악기를 치며 노는데, 한 해 재수 좋으라고 한 것이다. 일종의 지신밟기인데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주민은 별로 없었다. 정월대보름이면 잡곡밥과 나물 아홉 가지를 해서 보름 음식으로 먹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윷놀이를 하는 등 여느 마을의 대보름 풍속과 같았다.

야경돌기

예전에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2명씩 조를 짜서 야경을 돌았다. 도둑을 쫓기 위해서 북을 치면서 밤새 돌아다니는데, 어두운 밤엔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제삿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제삿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으레 야경꾼이 와서 먹을

것을 예상하고 제사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관에서 공식적인 방법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방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동계(대동회의)

매년 12월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동계를 한다. 여자 어르신들이 시집오기 전부터 행해졌던 마을 전체회의로 산신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을 일을 의논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걷는다. 현재 다른 마을에서도 대동계를 여전히 치르지만 이주민이 늘어나고 원주민이 줄어들면서 예전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지석리의 대동계는 아직도 마을 사업에 대한 논의와 마을 전체의 화합을 위한 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2) 민간신앙

지석리에서 가장 큰 신앙은 마을굿 차원의 소당산 산신제라고 할 수 있다. 소당산 산신제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과 의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신제를 치르고 있다. 산신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지석리에서의 민간신앙을 서낭당과 터주신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터주·성주·서낭·조왕 등 대부분의 민간신앙이 사라져 버렸다고는 하지만, 지석리에서는 산신제 때문인지 별도의 가신신앙이나 민간신앙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서낭당(성황당)과 무속

마을에 서낭당이 두 군데 있는데, 마을 동북쪽 덕애골 가기 전 고산요(高山窯, 지석리 169, 석동로 100-14) 앞길과 마을 서남쪽 절구절골 가기 전 성원암(지석리 548, 원적로 159길) 앞길에 위치해 있는 큰 나무를 서낭당으로 삼는다. 두 군데 모두 마을 중심부로 들어오는 입구에 서 있는 나무로 확인된다. 서낭당이 두 군데 있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행하는 의례는 따로 없으며, 사람에 따라 서낭당에 돌을 엎고 마음으로 지성을 드리기도 하고, 지나갈 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떡을 해 놓고 정성을 드리기도 했다. 두 서낭당에 큰

나무와 함께 엄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니 서쪽 서낭터에서는 큰 나무 옆에 엄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낭당 근처가 나무로 우거져 있어서 낮에도 지나가려면 섬뜩한 기운이 들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기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서낭당 주변에서 살쾡이를 봐도 살쾡이가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아서 사람이 괜히 무서움을 타기도 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기도 했다.

이 서낭당에 만신(무당)네들이 나무에 형겁을 달아서 펼려거렸고, 현재도 무속인들이 가끔 정성을 드린다고 음식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도 무속인들이 밤에 촛불을 켜고 동전과 막걸리 등을 놓는 등 정성을 드린 흔적이 보일 때가 있다.

지석리에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골무당은 없었지만, 무속인을 데려와 굿을 하는 집안은 있었다. 대부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재수가 좋으라고 했으며, 사람이 죽으면 무당을 데려다가 자리걷이를 하는 집안도 있었다. 지석리에서 서낭당 신앙이 마을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무속신앙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마을 서쪽 서낭당 터



▶마을 동쪽 서낭당 터

터줏신양

예전에 집 뒷마당에 터줏가리가 있는 집이 많았는데, 언젠가 미신을 없앤다고 해서 터줏가리를 모두 없앴다고 한다. 터줏가리는 항아리를 가운데 놓고 짚으로 터줏가리를 만들어 덮은 다음 왼쪽으로 꼳 새끼줄로 묶는다.

터줏가리에는 햇곡식을 말려서 넣어 두었다가 다음해 칠월칠석 전날 터줏가리에서 묶은 벼를 꺼내서 밥을 해 먹고, 한동안 비워두었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다시 햇곡식으로 채워 놓고 고사를 지냈다. 터줏가리에 곡식을 갈아 넣으면서 터줏가리도 새로 만들어 갈아야 한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시향 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안 터줏가리와 시향 지낼 터줏가리를 따로 마련하기도 한다.

4. 지석리 마을 조직과 활동

지석리에는 크게 세 개의 주요한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마을의 주요한 일 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노인회와 부녀회 그리고 청년회가 바로 그 조직이다.

노인회는 2017년 10월 22일, 허동 회장님과 최인철 총무님 그리고 전석길 어르신과 의 면담을 통해, 부녀회는 2017년 9월 11일, 이민숙 회장님과 김영순 회원과의 면담을 통해, 청년회는 2017년 10월 23일, 최재걸 전 청년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활동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각 조직의 임원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마을의 조직 현황과 활동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지석리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 개의 마을 조직과 활동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동회의에 관한 내용을 뒷부 분에싣는다.

1) 지석리 노인회

조직과 현황

지석리 노인회의 정식 명칭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신둔분회 지석리노인회’이다. 지석리 노인회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회에 자동 가입이 되며, 현재 회원은 70여명 정도이며 남녀 비율은 거의 반반인데 여자 회원이 5~6명 더 많다. 별도의 회원 회비는 없고 대한노인회에서 봉사활동비와 연회비 조목으로 1년에 46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나온다. 그리고 매년 일곱 달(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에 걸쳐 각 20kg 쌀이 지급된다. 겨울철에 쌀이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회관에 회원이 많이 모이는 농한기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반찬이나 그 외의 부식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마을이 크나 작으나 어느 마을이든 같다고 한다.

지석리 노인회 임원 구성은 회장과 총무로 이루어진다. 회장직은 후보를 받아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선임)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기 때문에, 회장 선출에서 찬성률이 높은 편이다.

현재 회장 허동(許桐, 1938년생, 80세, 범띠)어르신은 조부 때부터 지석리에서 거주한 토박이이다. 노인회장을 맡은 지는 5년째로, 현재 4년 임기인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허동 노인회장은 노인회장을 맡기 전에도 고등학교 때 4H 회장을 비롯, 청년회장, 예비군 소대장,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장단 협의회 회장 등 지석리에서 주요한 많은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다고 한다. 총무는 최인철(73세, 닭띠)어르신으로 역시 조부님 때부터 지석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석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이다. 회장님과 같이 노인회 총무를 4년 역임하고, 연임에 들어가 5년째 임기를 맡고 있다. 올해 소당산 산신제 제관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인회 관련 면담에 응해 주신 또 한 분인 전석길(73세, 닭띠)어르신은 고향이 이천 백사면 송말리로, 10세 때 부모님과 함께 지석리로 이주 하여 6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천에서 교직 활동을 하였고, 아미초등학교 초대 교장선생님으로 빌령받아(2002년) 아미초등학교에 서 퇴임하였다. 현재 노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지석리 노인회 허동 회장님



▶ 지석리 노인회 최인철 총무님

활동 내용

지석리 노인회 활동은 크게 봉사활동과 텃밭가꾸기 그리고 여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봉사활동

노인회 봉사활동은 매월 1회로 특별히 정해진 날짜는 없으며, 매달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진행된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마을 도로 청소, 제초작업, 하천 청소와 정비 등이다. 참여 인원은 매월 15명 내외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내용과 장소 그리고 참여자 명단, 활동 사진 등을 서류로 만들어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노인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넌 12회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마을 노인회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② 텃밭가꾸기

텃밭가꾸기는 지석리 노인회 자체 활동으로 작년에 처음 시도해 보았다. 2016년에 마을 주민의 땅 500평을 노인회에서 빌려 들깨를 심어 수확하였는데, 500평이면 2마지기 반으로 가을 추수 수익금은 50만원이었다. 그런데 들깨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65만원 정도였으니 결국은 적자였다고 한다. 수익 활동이라기보다 회원들



▶ 노인회 봉사활동

운동과 단합, 친목이 목적이었지만 회원들 열 땃명이 나와 일하고 나서 점심과 술 한 잔 하는 비용을 쓰고 나니 결국 적자여서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텃밭가꾸기 대신 올해는 노인회에서 김장용 배추를 심었다. 원래 마을 상수도였던 자리리를 메워서 농지를 만들어서 마을 공유지로 사용하는데, 그 땅이 95평 정도 된다. 그 마을 땅에 올해 김장용 배추 100포기 정도를 심었고, 그것으로 올해 노인회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③ 여행

노인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6월 3일에 다녀왔다. 보통 6월에 가는데, 날씨가 좀 덥긴 해도 4월, 5월은 못자리 하고, 모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 하는 농번기라 농번기 끝나고 6월 쯤에 가게 된다. 여행은 버스를 대절해서 보통 강원도로 가는데, 남녀 어르신이 골고루 참가하며 참가 인원은 40명 정도로 버스 한 대를 채운다.

월 1회 진행하는 봉사 활동에는 열댓 명 나오는데 여행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은 것이 서운할 법도 하지만, 노인회 임원들은 무엇을 해도 회원들이 건강하게 많이 나오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한다.

여행 비용은 노인회 지원금에 일인당 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마을에서 협찬도 받아서 충당한다. 주로 강원도 쪽으로 일정을 잡아서 점심 먹고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데,

서울 같은 데가 볼거리는 많지만, 너무 복잡해서 노인네들 잊어버릴까 봐 가지 않게 된
다고 한다.

생활과 문화·의료지원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활동 외에 지석리 노인분들의 일상과 명절 그리고 의
료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 일상과 명절

노인회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겹하고 있다. 노인회원들이 회관에 모이는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 정도까지이다. 주로 여자 회원들이 모이고, 남자 회원들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일을 하거나 회관에 나와 활동을 하는 회원보다는 나이가 들고 몸
이 불편하여 활동을 못 하고 집에 누워있거나 요양사 보호를 받는 회원이 많은 형편이
다.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속하는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에 주로 할머니들이 회관
에 모이는데, 친목과 더불어 개별난방비에 대한 절약 차원에서도 겨울에 회관에서 모임
이 잦은 이유이다.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 때 마을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요즘엔 잘 하지 않다가, 작년에
는 윷놀이를 했다. 윷놀이를 하게 되면 식사도 하고 상품도 준비해야 해서 예산이 적잖
이 필요하다. 윷놀이가 벌어지면 노인회에서 회원 화합과 마을 단합을 위해 작은 상품
을 마련하고,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은 상품을 집에 가져다 드렸다. 상품은 주로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을 준비한다.

② 문화·의료지원

노인회에서 문화적인 요구사항을 신청하면 이천시 복지과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는
편이다. 그래서 예전에 마을회관에 요가나 노래교실도 개설되었는데, 농번기 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몇 개월 못 가고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폐강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초빙하기도 어렵고 다시 문화모임을 개설하기도 쉽지 않다.

지석리 노인분들의 건강은 보건소에서 일정정도 관리한다. 이천시 신둔면 도암분소 보건소장님이 매월 지석리를 방문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준다. 주로 혈압과 당뇨 측정이지만, 노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신둔면에는 도암분소와 마교분소 두 개의 보건소가 있고, 다른 직원 없이 소장님 혼자 근무를 한다. 보건소장이 오전에 내원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각 마을을 방문하여 주로 노인 건강을 점검한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처음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다.

2) 지석리 새마을부녀회

조직과 현황

지석리 부녀회의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구성된다.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현재 이민숙 (56세, 범띠) 회장은 6년 전에 회장으로 선출되고, 한 번 더 연임을 하여 올해 연임 마지막 해를 맞고 있다. 이민숙 회장은 6년 전 부녀회에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녀회장이 되었다. 부녀회 가입이 늦었던 이유는 한 집에 부녀회원 가입 인원이 1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부녀회원이었고, 이민숙 회장도 직장생활을 해서 부녀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부녀회를 탈퇴하면서, 이민숙 회원의 부녀회 가입이 가능했다. 부녀회에서 회장을 보좌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 김영순(69세, 소띠) 회원이 있다. 대전이 고향으로 1968년, 당시 20세에 이곳 지석리로 시집을 와서 50년째 지석리에 살고 있다.

지석리에는 279호가 넘는 가구가 있는데, 부녀회원은 60여 명이다. 부녀회비는 회원당 1년에 12,000원이다. 부녀회비가 워낙 적으니 유자차 판매, 마을 재활용품 판매 등의 수익금을 부녀회비로 보충한다. 사실 65세 이상이면 노인회로 가야하는데 마을에 부녀회원이 적으니 나이가 되어도 부녀회 소속인 경우가 많다. 부녀회원이면서 노인회원인 분들이 많은 편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이 적은 것이 부녀회 활동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비교적 젊은 이주민에게는 부녀회 가입



▶ 지석리 부녀회 이민숙 회장님



▶ 지석리 부녀회 김영순 회원

을 권유하는데 가입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사 온지 오래 되었는데도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새 이주민 중 4명을 부녀회원으로 가입시켜 부녀회 활동이 그나마 좀 나은 해였다.

부녀회원 중 이사를 가거나 건강상 활동이 불편한 경우 탈퇴가 가능하지만 연로하셔도 부녀회에서 제외되는 것이 서운한 까닭에 회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활동내용

지석리 새마을부녀회의 주된 활동은 마을 어르신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마을 잔치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녀회 수익사업, 야유회, 마을회관 관리 등이 있다. 수익사업은 열악한 부녀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이고, 마을회관 관리 같은 경우 사실 부녀회 사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주요 공간인 관계로 부녀회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경로잔치와 복놀이

부녀회에서 5월 어버이날 즈음해서 경로잔치를 벌이는데, 상황이 되면 해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격년으로 잔치를 벌인다. 2000년대 초반, 이민숙 부녀회장이 활동하면서 신둔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금을 타게 되었다. 그 상금으로 경로잔치를

벌였는데, 그때가 마을에서 벌인 첫 경로잔치였다. 마을회관 앞마당에 밴드, 민요가수 등을 불러 행사를 하고 음식을 대접해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준비하는 사람도 신이 났다. 2년 후에 다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금을 받았다. ‘우수마을’선정은 마을의 화합과 행사참여 그리고 봉사활동이 주된 기준이어서 마을 주민활동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이 외부행사에 출석을 잘 해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해야 한다. 부녀회 회비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쓰임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마을 상금을 탄 것으로 경로잔치를 넉넉하게 해드린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한다.

7월에는 해마다 부녀회에서 복(伏)놀이를 한다. 회관에서 큰 염소 두 마리 정도를 가지고 직접 탕과 수육을 해서 어르신들께 대접한다. 원래 닭 몇 마리로 음식을 해서 복놀이를 하곤 했는데, 이민숙 회장이 활동하면서 염소로 음식을 바꾸어 복놀이가 훨씬 커지고 풍성해졌다. 복놀이를 준비하려면 날도 더운데다 미리 김치도 담가야 하고 밀반찬도 만들어야 하는 등 손이 가는 일이 많아서 부녀회원들이 애를 많이 쓴다.

② 명절·세시 활동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어르신들 척사대회(윷놀이)는 규모가 크면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하고, 규모가 작으면 회관 안에서 한다. 척사대회는 마을에서 조촐하게 하는데 크고 작은 상품을 겨는 것을 재미로 한다. 부녀회에서는 만두를 빚어서 떡만두국을 끓여 어르신들, 모인 주민들과 나눈다. 가을에는 마을회관에서 김장을 한다. 겨울에는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회관에 김장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에 대략 배추 50포기 정도 김장을 하면, 회관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 드실 것과 마을 대동회의를 치르면서 먹을 김치 정도가 마련된다.

③ 마을 가꾸기·재활용품 판매

부녀회에서는 봄에 마을 대청소, 4월에 마을 꽃밭에 꽂 심기, 풀매기 등 수시로 마을을 가꾸고 청소하는 활동을 한다. 부녀회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다.

마을의 수거공간에 모인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부녀회비로 충당한다. 재활용품사업은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종류별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관리와 운영에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마을회관 관리

농번기인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 나오시는데, 주로 부녀회원들이 이 매일 점심밥을 해서 쟁겨드린다. 겨울 대동회의 끝나고 다음해 3월까지 대략 3개월 동안 점심밥을 쟁겨드리는데, 당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소수 회원들의 봉사와 책임감으로 이루어진다. 마을회관 청소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당번을 정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매주 토요일에 다같이 청소를 하기도 한다.

여러 활동과 업무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을 어르신들의 주요 공간으로 사용되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녀회원들의 수고는 충분히 감사하고 인정 하지만, 마을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녀회 마을가꾸기 활동

⑤ 야유회

부녀회에서는 1년에 한번, 4월 정도에 단합대회 차원의 야유회를 가는데 일종의 꽃놀이이다. 야유회 경비는 부녀회비로 충당할 수 없어, 부녀회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참가자 회비와 찬조금을 받아 사용 한다. 회원 60여 명 중에 절반 정도 참여한다. 부녀회에서 상이나 상금을 타는 경우 일정을 맞춰 가을이나 1월에 한 번 더 여행을 가기도 한다.



▶부녀회 마을가꾸기 활동



▶ 지석리 부녀회 야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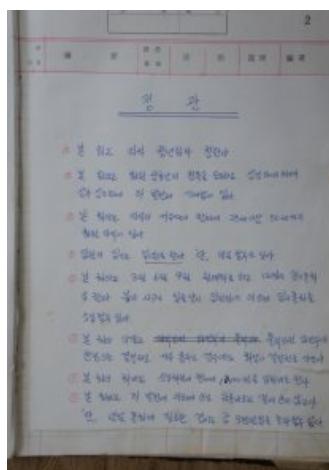
3) 지석리 청년회

조직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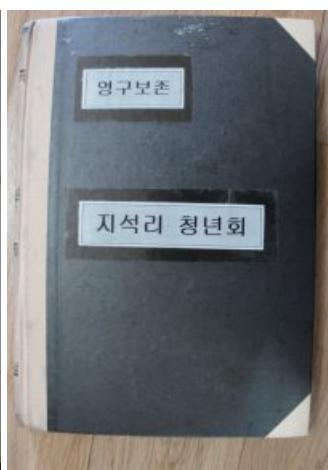
지석리에 보관되어 있는 청년회 장부를 보면 ‘지석 청년회’는 1984년 3월 15일에 청년회가 창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4년 장부 첫 장에 적힌 회원 명단이 51명이고, 첫 수입으로 50명 회원의 회비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관의 내용 중 회원 자격은 ‘지석리 거주자 중 25세 이상 50세까지’로 적혀있다. 청년회 장부 내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소략해지다 2014년 결산에 대한 간략 정리까지는 되어 있다. 활동이 미비해진 것을 장부가 말해 주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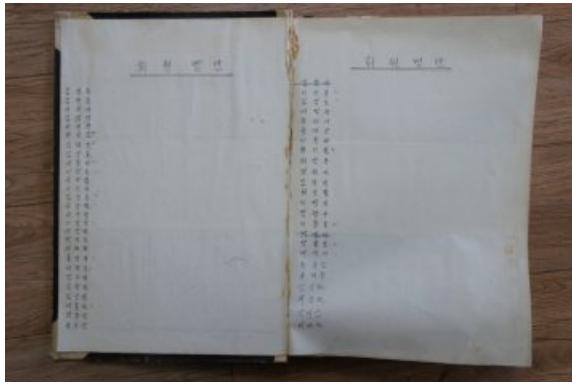
지석리 청년회 가입 자격은 초창기에는 25세~50세였다가 마을의 고령화로 현재는 25세~60세까지 연장되었다. 현재 청년회는 허수행 회장과 이원찬 총무가 맡고 있지만, 청년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여서 비교적 청년회 활동이 활발했던 때 청년회 회장과 총무 등을 역임했던 최재걸 회원과의 면담



▶ 지석리 청년회 장부



▶ 지석리 청년회 청립시 정관



▶ 지석리 청년회 청림 회원명단

▶ 지석리 청년회 1984년 수입지출내역

을 통해 조사하였다.

최재걸(53세, 1965년생, 범띠) 회원은 현재 지석리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젊었을 때 안산에서 일하다가 92년도에 허리를 다쳐 수술하는 바람에 94년도에 고향에 내려와서 1995년도에 지석리 청년회에 가입했다. 이후 청년회 회장과 총무직을 수행했으며, 마을 상여 꾸미는 일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최재걸 회원이 청년회 업무를 보았던 2000년도 전에도 점점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청년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은 많아지는 형편이었다. 모임과 결산도 어려워진 청년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려면 우선 회원 단합이 우선해야 한다고 최재걸 회원은 말한다.

활동 내용

지석리 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상조회와 명절 잔치 그리고 야유회라고 할 수 있다.

① 상조회

상조회는 원래 마을에 따로 있었는데, 2000년도 전에 청년회로 넘어왔다. 상조회가 청년회로 넘어왔어도 마을에 상이 나면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 어른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마을에 상이 나면 상조회에서 하는 일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지석리 청년회 전 회장 최재걸 회원

⑨ 이장이 면사무소 등에 사망 신고를 하고, 묘 쓸 자리를 조사한다.

⑩ 부고장을 만들어 청년회에서 부고를 돌린다. 동네는 부고를 돌릴 필요가 없고, 다른 마을에 연락할 집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부고를 돌린다. 보통 각 집안에 있는 부조에 관한 장부를 보고 돌아가시기 전날 부고 돌릴 명단을 정한다.

⑪ 부녀회는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에서 나무를 해다가 밤새 불도 뗐다. 예전에는 상가집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⑫ 상여 나가는 날 아침 일찍 산역(山役)을 맡은 사람들이 못자리에 미리 올라가서 땅을 파고 관 넣을 자리도 파 놓는다. 포크레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아도 산역들이 올라가서 내관(内棺)이라고 관 들어가는 자리를 파 놓는다. 산역은 청년회에서 총각이 아닌 장가 간 사람 중에 보통 5명이 맡았다.

⑬ 마을에 있는 상여를 꾸며서 상여가 나간다. 상여를 메는 사람은 한 집에서 꼭 한명씩은 나와야 했다. 예전에는 한 집에 성인 남자가 2~3명은 되는데, 매번 상여를 멜 수 없으니까 번갈아서 나왔고, 자신의 부모님 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여를 메려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호상일 때는 선소리꾼이 상여 앞에 막내 사위를 태워서 가는 경우도 있다.

⑭ 못자리에 올라가서는 회를 섞은 땅을 덮고 달고질을 했다. 상여가 나갈 때와 달고 질 할 때 소리를 하는데 동네에서는 주로 김기환 어르신이 많이 하셨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동네에서 모셔올 때도 있었다. 회를 섞은 흙을 넣고 단단하게 밟아주는 달고질을 한다고 해서 땅이 당장 굳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⑮ 집안마다 내력이 다 달라서, 내관에 시신을 관째 넣는 집도 있고 관 없이 넣는 집도 있다.

지석리에도 여느 마을과 같이 마을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이 있었다. 곳집 안에 상여가 있었고 달고질 하는 횟대는 없었다. 횟대는 못자리 올라갈 때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쓰고, 그 날 달고를 하고는 다시 쓰지 않기 때문이다. 곳집에 있던 상여는 양 옆에 4명씩 8명 그리고 앞뒤에 2명씩 메서 모두 12명이였다. 나무로 만든 상여가 너무 무거워 나중에 신형이라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상여를 사용했는데, 그 상여는 양쪽에 4명씩만 메도 가뿐하게 멜 수 있었다. 상여 앞에 기(만장, 輓章)를 들고 가는 사람도 2~3 정도 있었다. 곳집 허물 때 나무로 만든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을 한꺼번에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정도까지는 상여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상여를 쓰진 않았지만 청년회에서 한동안 상조회 활동 정리는 했다. 2013년 수해로 곳집이 피해를 입고, 점차 상여를 쓰지 않고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곳집을 헐게 되었다. 곳집을 헐 때 작업 팀들이 ‘곳집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술 한 잔 부어놓고 작업을 했다. 현재 마을 들어오는 다리 건너자마자 개천 옆에 곳집이 있었는데 2013년 수해로 인해 곳집을 헐고, 지금은 그 자리 건너편에 재활용 수거용 컨테이너가 자리잡았다.

상여와 달고소리는 주로 마을의 김기환 어르신이 했지만, 이따금 마을에 있던 박수무당이 지관 역할도 하고 상여 소리도 했다. 그렇게 선소리꾼이 나서면 상조회 회비로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상조회 자금은 상이 나면 부녀회 수고비, 포크레인비, 선소리 비용, 달고질 비용 등이 주요 지출 내역이고, 필요한 물품 구입 내역도 확인된다. 간단한 내역이지만 장부에 2012년 상조회 수입지출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다.

② 대보름 척사대회와 추석 노래자랑

현재 청년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 지석리 청년회 청립시 정관



▶ 1988년 상조회 장부: 달고지값, 물품구입
내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청년회에서 대보름날 척사대회와 추석 노래자랑을 준비해서 열었다. 척사대회는 설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날 오후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표를 팔고, 다음날 척사대회를 벌인다. 척사대회 표를 파는 것은 일종의 경비 마련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웃을 한 판 놀 수 있는 표를 복조리에 넣고 명분상으로는 복조리 값을 받는 것이다. 그 표를 가지고 다음날 웃을 노는데, 자신이 노는 판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표를 여러 개 사야 웃을 여러 판 놀 수 있다. 다음날 회관 앞마당에서 명석을 깔아놓고 하루 종일 웃을 노는데, 표를 판 돈과 찬조를 받아서 웃을 노는 날 점심, 술, 상품 등을 청년회에서 푸짐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추석날 저녁에 벌어지는 노래자랑은 마을회관 앞에 소박한 무대를 만들어서 진행된다. 무대가 여의치 않을 때는 최재걸 회원이 자신의 큰 화물차 적재함에 기둥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기도 했다. 노래자랑 역시 척사대회 때처럼 침가비 명목의 표를 팔아서 경비를 마련한다.

③ 야유회와 체육대회

노인회, 부녀회와 마찬가지로 청년회도 회원들끼리 야유회를 간다. 농사 준비로 바쁜 봄과 추수로 분주한 가을철 사이에 일정을 맞추어 보통 여름에 야유회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정이 맞지 않으면 2~3년에 한번 가기도 한다.

예전에는 면장기, 조합장기 체육대회가 있어서 마을 대항 축구, 줄다리기 등을 해서 체육 관련 상과 트로피도 많이 받았다.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나가기 전에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 등은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니 시급히 찾아서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상과 트로피 외에 마을 관련 장부 같은 것도 보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전에 이장을 보던 어르신 집에 불이 나서 비료·농약 관련 장부, 산신제 축문 등이 다타버린 적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마을에 대한 기록, 마을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수집과 보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마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마을 대동회의

지석리 마을의 대동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매년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 주로 토요일에 날짜를 잡는다. 대동회의에서는 1년 동안 마을 사업내용과 회비사용에 대한 보고와 결산이 이루어진다.

마을 사업비에는 동비, 산제사비, 반비, 잇세 등이 있다. 동비는 마을 회비로 가구당 1년 회비가 1만원이고, 산제사비는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1년에 2만원이다. 지석리에는 모두 5개 반이 있는데 반비는 반별로 가구당 1년에 1만원을 내는 회비를 말하며, 잇세는 이장님 수고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1년에 가구당 2만원을 내는 것인데, 이번 이장님은 잇세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도 4년째 잇세는 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회비에 대한 결산과 이에 따른 사업 보고를 12월 말에 하는 것이 지석리 대동회의이다. 마을 임원들이 사업 내용과 결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다. 대동회의를 마치고 부녀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음료를 들며 남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다.

5. 마을의 일상을 바꾼 기반시설 이야기

마을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상수도 시설이 마련된 것, 그리고 2013년 홍수로 변형된 관돌천은 마을의 일상을 바꾼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2017년 7월 28일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원들과의 만남, 9월 11일 서상수 어르신과의 만남, 10월 22일 노인회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제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 마을의 전기와 수도

70대 정도의 부녀회원들이 지석리 마을로 시집 온 1960년대에는 마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초가집도 많았고 차도 다니지 않았다. 길도 포장이 되지 않은 돌길이어서 구두를 신으면 1년도 안 돼서 밑창이 닳아 없어지곤 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땐 등잔불이나 촛불을 사용하다가 1960년대 말에 정미소의 방아 돌아가는 것을 발전기에 연결시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기 발생량이 적거나 기계적 결함이 생겨 전기 공급이 종종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1972년 서상수 어르신이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에 농어촌 전기를 가설하여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지석리는 꽤 오래 전부터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 사용하였다. 애초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지하수를 끌어 올리고 물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으로 배관을 연결하여 묻어서 일종의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였다.

이천에서 이런 자연 상수도를 제일 먼저 설치한 마을이 지석리라고 한다. 그러다가 2014년 가을로부터 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마을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배관에서 상수도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달았다. 이전에 사용하던 상수도 시설과 물탱크가 있던 자리는 흙으로 메워서 현재 마을 공유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유농지에 올해 노인회에서 김장용 배추를 심어 가꾸었다.

2) 2013년 홍수와 관돌교

지석리에는 2013년에 큰 홍수가 졌다.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관돌천)이 넘쳐서 인근의 집들이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큰 홍수였다. 하루 오전에 갑자기 내린 비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흙탕물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한다. 집집마다 마당에 있던 항아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물건들이 떠내려 가고, 지하실은 천장에 물이 닳을 정도로 물이 쌌다. 비가 그치자 물에 쓸려 내려온 흙이 사방에 산처럼 쌓여 트



▶ 2013년 7월 24일, 지석리 수해 복구 현장, '충북일보' 2013년 7월 24일자

▶▶ 2014년 6월, 관돌천에 교각 공사를 하는 현장, '충북일보' 2014년 6월 17자

▶▶▶ 관돌교 건설 전의 관돌천, '일요신문' 2014년 9월 31일자

랙터로 흙을 걷어낼 정도였다.

2013년 7월 22일 지석리에 오전에만 300mm 가량의 집주호우가 내렸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 보상은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기준에서 이루어져 충분하지 못했고, 개울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여 1년여에 걸쳐 지금의 관돌교를 세우게 되었다.

관돌교 건설 공사는 2013년 12월 31일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 6일에 마무리 되었다. 공사는 기준의 관돌천 바닥을 깊게 파고 폭도 넓혀 지석리 관돌11교에서 관돌21교 까지 총 11개의 다리를 놓았다.

관돌천은 지석리 동촌과 서촌을 나누는 개천이었는데, 관돌교 준공 이후 개천의 규모에 비해 웅장하게 세워진 교각 때문에 마을의 동서 구분이 더욱 확연해졌다. 개울의 범람과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 목적으로 세워진 관돌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석리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관에다가 높고 웅장한 규모 때문에 주민들의 개천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주변 경관과 자연과의 어울림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관돌천 위에 세워진 관돌교

▶ 마을회관 앞의 관돌 17교

▶ 관돌교 공사 현황판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1.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조사 의미

1) 생태자원 조사 개요

마을단위의 생태자원을 조사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구조사와 같이 마을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개발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마을 컨설팅을 하는 업체와 같은 전문기관조차도 마을의 생태자원을 우선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것은 마을 단위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당장 시급한 현안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마을의 장단기적 전략을 충실히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 탓일 것이다. 또한 마을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의 경우는 체험과 관광콘텐츠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생태자원의 경우는 대개 간접적인 풍경과 배경의 요소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광이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마을단위의 발전전략이나 계획은 충남 홍성군의 <문당리 100년 계획>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러한 100년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서도 마을의 생태자원을 충실히 조사하고 생태자원을 매개로 한 발전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당리 마을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해 <문당리 100년>을 살펴보면 생태자원조사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¹

때문에 이번 지석리 마을기록화 사업에서의 생태자원 조사는, 마을단위에서 생태자

원을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방안을 세워보려는 시도로서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의와 가치만큼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한 조사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 속에서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생태는 서식처 곧 집을 의미하는 말로써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칭하여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생태 공간 내에 서식하는 동식물자원은 물론 서식처의 구조 즉, 산과 하천, 폭포나 바위, 들판과 풍경과 같은 지형지세는 물론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야생동물의 생존 형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생태적 조건과 기반 속에서의 삶과 풍습이 쌓여 전통이 되고 이것이 건축문화, 음식문화와 같은 문화적 지형들을 구축해 나간다. 마을의 생태적 조건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마을의 생태가 곧 문화의 인프라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마을의 생태적 조건과 기반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 생태자원조사는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생태자원의 순환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단위가 일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4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조사에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여건의 한계를 감안하여 목표와 그 한계를 설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과 적은 인력으로 마을의 생태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의 문헌자료를 잘 활용하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수밖에 없으며, 목표 생태자원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준의 생태자원조사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시사점을 잘 도출해서 기록해보는 것,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문화, 역사, 경관, 공동체적 지표가 되는 수목생태 자원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 마을 발전전략방안

1 충남 홍성군 문당리 마을 홈페이지, <http://mundang.invil.org>

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의 시간적 범위를 2017년 8월로 한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주요 도로로 한정하였다. 특히 생태자원의 현장조사는 마을의 랜드마크 기능이 가능하고 마을발전전략 수립과 문화콘텐츠 개발의 지표가 될 만한 수목생태자원과 노거수 중심의 조사와 기록을 진행하였다.

2) 생태자원 조사 필요성과 배경

일반적으로 마을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경조사이다. 마을의 생태적 환경에는 마을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숨어 있다. 때문에 생태자원조사를 통해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정표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전통 마을의 경우는 자연적인 취락형태로서 생태적 공간 범위가 좁고, 공동체의 결속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마을숲이나 당산나무 등의 노거수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마을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다른 문화자원의 연결지점이 된다.

마을의 역사와 민속 등은 대개 노거수와 함께 통합된 정신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마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유전된다. 때문에 생태문화자원을 잘 조사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을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석리의 경우도 마을을 감싸고 있는 정개산(우두산)이라는 산이 없었다면 산제(山祭)로서의 소잡이 민속과 전통문화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정개산(우두산)이라는 자연 조건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전통이 결합하여 타 지역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소를 잡아 올리는 풍속과 문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비전과 방향을 그리는 것은 그 조건과 기반이 된 생태자원조사가 필요하다.

3) 생태자원 조사 목표와 방향

이번 조사연구의 목표는 지석리 마을의 생태자원의 조사를 통해 마을의 경관적 지표가 되는 수목자원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지석리의 생태자원조사를 통해서 마을의 역사와 민속을 이해하는 원천 소스로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활기술의 발전에 활용하며,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의 추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마을 조사에서 역사나 민속 등의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현재와 과거를 잊고 있는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는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지석리의 마을 조사에서는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적 마을문화 발전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역사와 생태를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석리의 경우 고인돌 등의 역사문화자원은 물론 정개산 일대의 생태문화자원 등의 활용 폭이 대단히 넓은 지역으로 보인다. 이에 지석리의 생태자원의 조사를 통해 이천시 전체의 역사·문화·생태·예술 콘텐츠와 같은 소프트의 결합과 연계, 신둔도예촌역, 정개산과 원적산의 등산로의 공간 연계 등을 통한 마을 발전 가능성의 모색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지석리 마을과 연관성이 있는 정개산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된 문헌연구(Literature Research)를 통해 지석리 생태자원을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고, 현장조사(Fieldwork)를 통해서 마을의 경관과 풍치, 역사와 전통에 밀착된 수목생태자원을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현장조사의 경우 지석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의 주요도로에서 관찰되는 마을의 노거수, 가로수, 각 개별 주택에서 관찰되는 수목생태자원 조사를 중심으로 생태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지리 생태적 특성에 맞는 마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이 조사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8월이며 공간적 범위는 지석리 마을의 중심 취락지구이다.

4) 지석리 생태자원 기존 연구

다음으로는 지석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의 지질과 기후, 구체적인 생물상을 포함한 기존의 생태자원의 조사연구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마을 생태자원의 종합적인 판단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석리 마을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지도 등 도면상으로 보면, 경지율은 마을 전체면적의 약 20%로 전후로 보이며 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취락은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해발 50~100m에 사이에 분포하는데,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장태벌골 구역의 경우는 해발 150m 정도이며, 도로의 발달과 도예촌역 등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지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유정 등이 조사한 <이천·광주의 지형경관>의 자료에 따르면 이천과 광주의 경우 중부내륙에 위치하여 여름과 겨울의 특성이 뚜렷한 대륙성기후의 성격을 가진다. 이천, 광주지역은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중부내륙형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한서의 차가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연평균 기온은 10.7°C , 1월 평균기온은 -5.1°C , 8월 평균기온은 25.3°C , 연평균 강수량은 1,340mm 정도이며, 서리는 10월 초순부터 내려 이듬해 4월 초순에 끝난다. 6~8월에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내린다고 보고하고 있다.² 지석리 마을의 기후적 특성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맑은 날씨와 기후여건은 4~5월과 9~10월 등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 제1차 환경보전계획의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에 따르면 지석리의 행정구역인 신둔면의 경우 1등 급지는 10.74km^2 로 전체 36.47km^2 중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1등 급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원적산, 정개산 등의 생태환경과 녹지 등에 의해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2 황유정·이정우 「이천·광주 지역의 지형경관」,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3 이천시, 『이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2014~2023)』, 이천시, 2014.

지석리의 경우도 역시 정개산을 포함하여 1등 급지의 비율이 높을 양호한 생태 환경의 지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개산의 식물상, 동물상, 조류상 등의 생태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마을의 생태자원 기록화작업을 진행한다면,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들과 더불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동 등이 조사한 <이천·광주지역의 식물상>에 따르면 천덕봉 일대에는 64과 145 속 152종 3아종 17변종 3품종의 관속식물의 분포하고 있다.⁴ 조사에서는 천덕봉의 식물상을 가장 대표할 만한 지역은 원적봉 정상에서 낙수대쪽으로 내려오는 계곡 일대와 영원사 주변, 흥천면에서 천덕봉으로 향하는 계곡 주변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지역에 천덕봉 식물종의 약 80%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천·광주 지역의 식물상-천덕봉·국수봉>에 따르면, 이 지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종은 1등급 분류군인 범꼬리, 야광나무, 앵초, 조개나물이 있고, 2등급 분류군인 돌양지꽃, 복자기, 3등급 분류군인 꼬리조팝나무가 천덕봉에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원적봉에서 정개산에 이르는 능선지대에는 개옻나무, 애기나리 및 둥굴레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척박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종이 여러 종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임도를 따라서 외래식물인 돼지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임도공사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지석리에서 정개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등산로 입구 등에서도 단풍잎 돼지풀이 관찰되고 있다.

이 천덕봉은 지석리를 품고 있는 정개산 줄기의 주봉으로서 크게 보면 정개산과 하나의 산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식물상은 지석리의 생태자원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식물상을 참고하여, 지석리 마을의 식물생태자원의 목록화 작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석리의 생태자원조사를 위해 박재홍 등이 조사한 <이천·광주, 태화산 및 그

4 김영동·김성희, 「이천·광주 지역의 식물상-천덕봉·국수봉」,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일대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자료를 검토 분석하였다. 이는 2004년도 전국자연환경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광주에 위치한 국수봉 및 천덕봉(634.5m)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조사로 밝히고 있다.

앞서의 식물상과 달리 국수봉 일대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지석리 일대의 생물상과는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계 발달하지 않은 지석리의 경우는 이 조사에서 보여주는 생물상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참고하여 지석리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추론해보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수봉 일대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3문4강 10목20과 28종이었다. 출현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편형동물문이 1강 1목 1과 1종(3.5%), 연체동물문이 1강 2목 2과 2종(7.1%) 그리고 절지동물문이 2강 7목 17과 25종(89.2%)이었다. 절지동물은 갑각류가 1종 그리고 수서곤충류가 24종이었다. 수서곤충은 전체 출종의 85.7%를 차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최재석 등은 2004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이천·광주 일대의 총 25개 조사지점에서 하천구조 및 어류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지석리 하천의 관리와 개발 방향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지역 내 하천들은 대부분이 농경지, 공장, 민가, 도로 등과 인접하고 있었으며, 또한 농업배수, 생활하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수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어종은 총 8과 31종 1,967개체였는데, 고유종은 각시붕어, 줄납자루, 쉬리, 긴몰개, 돌마자, 얼룩동사리 등 6종(19.35%)으로 보고하고 있다.⁵ 신둔천의 상류에 위치한 지석리의 꾸돌천이나 수하천·당하천 등의 경우도 생태자원을 조사해 두면 중요한 마을의 기록이 될 것이다.

다음은 서영 등이 조사한 <이천·광주, 태화산 일대의 양서·파충류> 실태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역인 국수봉과 천덕봉에서 확인된 양서류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

5 최재석·장영수, 「이천·광주, 혜화산 일대의 담수어류」,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참개구리,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2목 6과 6속 9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무당개구리와 아무르산개구리의 경우는 천덕봉에서만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고 아무르산개구리의 경우는 번식기에 집단산란장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지역에서는 외국 도입종인 황소개구리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꼬리치레도롱뇽, 고리도롱뇽, 물두꺼비, 계곡산개구리,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등도 그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 조사에서 확인된 파충류는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1목 3과 7속 8종이었다.⁶

그런데 맹꽁이나 반딧불이와 같은 생물자원 하나만으로도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듯이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지석리 마을 인근의 양서 파충류에 대한 밀도있는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이천·광주 지역의 조류>실태에 관한 기존의 조사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조류의 경우는 어류와 달리 비교적 생태적 권역의 교차와 이동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된 생태자원은 지석리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로 보인다.

양서영 등이 제2차 전국자연환경 기초조사 계획에 의하여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국수봉, 천덕봉을 중심으로 조사한 일대의 조류 분포에 따르면, 조사지역 전체에서 관찰된 종은 총 60종이었으며, 보호종은 1종, 특정종은 18종이었다. 관찰된 조류는 대부분 텃새와 여름 철새이었지만 6종의 겨울 철새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보호종으로는 조롱이 1종이 확인되었으며 특정종으로는 해오라기,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쇠뜸부기사촌, 소쩍새, 청호반새, 물총새, 파랑새, 청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되지빠귀, 꾀꼬리의 18종이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조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사기간 중 관찰된 천연기념물 조류는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원앙의 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이러

6 양서영·이무영, 「이천·광주, 태화산 일대의 양서·파충류」, 인하대학교 생물학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환경부 자료.

한 조류분포는 지석리와 정개산 일대에도 관찰될 것으로 보이며, 잘 조사하여 정리한다면, 버드워칭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기록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천·광주 일대의 포유류>실태에 관한 기존의 조사를 검토함으로써, 정개산과 지석리의 생태자원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고흥선 등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의 경우 총5목 14종이 지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책임 조사자에 의한 현지조사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다른 조사자들의 문헌조사에 의해, 서식하거나 서식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동물들은 고슴도치, 두더지, 땃쥐, 맷토끼, 다람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집쥐, 너구리, 족제비, 고라니, 맷돼지 등이다. 조사자들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야생포유류 및 보호야생포유류는 없으며 고양이, 개, 염소는 야생에서 서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의 경우 서식개체의 수나 다양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지석리 등 일대의 택지개발이나, 등산 레저 등의 발달로 인해 현재수준의 다양성조차도 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현재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의 보존을 위해서는, 특히 도토리와 같은 임산물의 채취금지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군부대 사격장에 의한 영향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⁸

지석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개산의 생태자원의 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잘 보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지석리의 생태자원으로서의 생물자원 목록화작업도 필요하다.

이상은 지석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천·광주 일대의 생태적 자원들에 대한 기존의 조사 연구를 통해 지석리의 잠재적 생태문화자원을 추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는 향후 지석리의 생태자원조사와 마을자원 기록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백운기·백인환, 「이천·광주 지역의 조류」,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8 고흥선·유미현·정선기, 「이천·광주 일대의 포유류」,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2.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 개괄

지석리 마을의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의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와 이선리, 그리고 신둔면 남정리, 신둔면 도암리, 신둔면 수하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2017년 12월 개통예정인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마을 아래쪽을 관통하여 지나고 있다.

	지석리의 위치 (마을회관기준)	37° 19' 48.7" N 27° 24' 53.9" E
연장	동서 2.14km/남북 2.86km	
총면적	4.35km ²	
리의 경계		동 :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서 :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남 :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북 :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곤지암읍 이선리

지석리는 1871년의 경기읍지와 1899년의 이천군 읍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오래된 전통마을인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그런 오래된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을숲이나 노거수와 같은 생태자원이 풍요롭게 남아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전통마을은 남향의 배산임수의 형태로 마을 입지를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삶터를 구축해왔다. 즉, 남향의 주거 형태를 통해서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삶터로 삼는다. 때문에 전통마을의 가장 기본적인 생태자원은 산하(山河) 또는 산천(山川)이다.

이는 자연생태의 가장 근본적인 요체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터는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산과 강을 끼고 살 수밖에 없다. 지석리의 가장 핵심적인 생태자원은 정

⁹ 홍순석·김희찬·정연학, 『이천시 신둔면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 문화원, 2000.

개산이며,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이다.

정개산은 634m의 천덕봉이 있는 원적산 자락이다. 원적산은 등산과 MTB 등의 동호회에 등에게는 잘 알려진 산으로, 이천의 북쪽에 위치하며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서남쪽을 향하면서 정개산(467m)을 이루고 정개산은 다시 둔지산(344m)으로 연결된다.

황유정 등이 조사한 <이천·광주의 지형>에 따르면 정개산 일대의 산지에는 경사급변 점이 나타나는데 급경사는 30~40°인 배후산지와 1~4°인 완만한 사면이 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질적 특성으로는 경사가 급한 산지는 편마암지역이며 완경사 지역은 풍화에 약한 화강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¹⁰

정개산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지형 경관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해발 406m의 정개산을 두고 지석리 방향의 계곡으로 큰골과 배나무골, 미미골 등이 알려진 골짜기들이 있으며, 장태별골, 도량골, 작은 재골, 밤나무골, 덕애골 등이 있다.

정개산을 중심으로 이천 신둔면 지석리와 광주의 봉현리 마을을 잇는 고개는 봉현고개가 있다. 또 마을과 들판을 넘어가는 길로 이용되는 고개는 서낭고개와 동심고개가 있다. 정개산 아래로 펼쳐지는 들판은 내창들, 넘어들, 서녁들, 웃재넘어들, 모내들, 국수사리들, 괴인들로 지도상에 표기된 것들이다.

정개산에서 발원한 하천으로는 크게 세 줄기가 흐르는데, 덕애골 방향에서 발원하여 석동로를 따라 아래재와 넘어들 방향으로 흘러 신둔천으로 유입되는 수하천과, 장태별골 방향에서 발원하여 마을 회관 중심을 흐르는 퀸돌천, 그리고 마을의 서쪽에서 흐르는 당하천이 있다. 이 하천은 모두 신둔천으로 흘러 들어 복하천을 경유하여 남한강에 이른다.

마을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퀸돌천은 2013년 홍수로 인해 범람하여, 2014년 사방공사를 겸하여 하천을 정비해 놓은 상태이다. 퀸돌천의 유로 연장은 대략 2km 정도로 마을의 생태적 미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마을이장은 현재 사방 공사되어 있는 상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 황유정·이정옥, 「이천·광주 지역의 지형경관」, 『(제2차)전국자연환경조사 2004 : 육지권역 : 이천, 광주 (5-2) [컴퓨터 파일]』, 환경부, 2004.

■ 주요 산 : 정개산

명칭	정개산	
위치(구술)	신둔면 지석리,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일대에 위치함	
GPS 정보	37° 19' 48.7" N 127° 24' 53.9" E	
관련사진		
주요 정보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신둔면 지석리 산 35~5 일원 - 높이 : 406m - 신둔면 수광리, 지석리 일원에 자리한 정개산은 원적산 줄기로 이천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과 경계를 이루며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이천에서 서울로 통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넉고개(넓고개, 넓고개)를 끼고 있으며 동원대 방향으로부터 더먹고개, 장차고개, 고종배기고개를 지나 원적산, 천덕봉에 이른다. - 산이름의 유래에 관하여는 중정남한지에 정개산(鼎蓋山)은 '산의 형세가 높고 우뚝하며 흡사 솔뚜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산 정상부에 정개산 표지석에는 소당산이라는 한글이 함께 쓰여 있다. 지석리 마을의 소 산신제 때문에 우당산(牛堂山)을 소당산, 혹은 소댕이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정개산의 높이는 이천문화관광 포털의 경우 406m로 되어 있으나, 다른 지도에서는 433m 혹은 450m 등으로 나와 있다. 정개산 자락의 신둔면 지석리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있고 옛날 관아가 있던 마을인 장동리가 자리잡고 있다. - 등산 정보로는, 이천시내에서 3번 국도 서울방향으로 약 5km지나 신둔면 수광리와 광주시 경계인 넉고개 의병전적기념비에서 등산로가 시작되고 약 2km지점에 범바위 약수터가 위치며 주변 사찰인 약수사가 있다. - 산행은 신둔면 수광리부터 남장리, 지석리로 이어지는 산행을 마친 후 백사면으로 이어지는 산수유길을 따라 갈 수 있다. 	
생태문화 자원의 특징과 의미	<p>정개산은 지명도가 높은 원적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등산 레저 등과의 연계성이 높은 생태자원이다.</p> <p>이올러 소댕이산, 우당산, 소당산 등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석리의 민속문화인 산신제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생태문화자원이다.</p> <p>“지석리의 고인돌”과 함께 “지석리 소댕이 산신제”등 지석리의 브랜드와 함께 정개산의 스토리와 이미지텔링이 가능한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향후 정개산 내의 다양한 식생과 생물자원 등의 조사를 통해서 정개산의 고유한 생태자원의 발굴과 함께 전통문화자산들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p> <p>현재의 단순한 식생조사에서도 정개산은 매우 다양한 식생자원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p>	

■ 주요 하천 : 관돌천, 수하천, 당하천

명칭	관돌천, 수하천, 당하천
위치(구술)	정개산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지나는 3개의 하천
GPS 정보	37° 39' 28.8" N 126° 53' 45.3" E 등
관련사진 (관돌천)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은 크게 3개가 있으며 중앙으로는 관돌천, 도암리 방향에서 흐르는 수하천, 그리고 남정리 방향으로 흐르는 당하천(당앞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하천이 유량이나 크기 등에 있어서 우세한 하천이지만, 마을의 주택지와의 근접성, 생태적 미관, 활용 등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앞을 흐르는 중앙 하천인 관돌천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돌천의 경우 2013년 홍수 범람이후 2014년 사방공사를 통해 비교적 좁은 도랑을 확장한 형태로, 유로를 따라 인공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하천이 전통마을의 자연 스러움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하천 둑의 높이 등으로 인해 하천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태문화 자원의 특징과 의미	<p>전통 마을의 이미지와 스토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 마을의 풍수(風水), 즉 입지여건이다. 입지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과 하천으로서 마을의 개천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석리의 관돌천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자원이나, 현재는 매우 인공적이어서 전통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를 가능한 한 생태적 이미지와 공간의 하천으로 전환하여, 접근 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p> <p>현재 서학원 마을이장의 생태적 활용에 대한 희망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p> <p>생태적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일부구간 제방의 경우 하천의 제방에 관목들을 식재하는 생태블록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제방에 적극적으로 관목을 식재하여, 하천 그 자체로 볼거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블록으로 축조되어 있지 않는 구간은 제방을 사선으로 천공하여 관목을 식재할 수도 있다.</p> <p>이울러 하천은 건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구간의 경우 보나 연못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 지속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하천으로의 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p> <p>마을의 당산나무 등의 거목과 노거수가 많이 존재하지 않은 형편에서, 마을을 관통하는 생태자원으로서의 관돌천은 탐방객의 주요 시각적 대상이 되므로, 다리나 난간 등을 좀 더 예술적으로 디자인하여 대지미술(Land Art) 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가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1) 지석리 마을 수목생태자원

지석리의 경우 전통생태의 조경자원, 문화자원으로서의 노거수 또는 당산나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당산제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에서 우두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의 지형적조건과 역사적 맥락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공간의 자원으로서의 당산나무나 마을숲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비보숲이나 나무의 존재가 필요 없었거나, 다른 방식으로의 결속 혹은 소통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지형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쟁 등에 의한 생태적 파괴가 일어났거나 하는 추론들을 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마을에서 우뚝 서있는 당산나무나 거목들의 숲은 마을의 결속력 공동체적 응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마을의 기상을 보여준다. 현재 외부인이 지석리 마을을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느티나무이다.

즉, 보통의 전통마을처럼 마을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는 노거수로서의 느티나무는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 느티나무가 마을의 공동의 자산이 아니며 개인이 심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전통적인 공동의 자산이 명백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에도 역사지리지 등에서 발견되는 지석리의 오랜 전통에 비해 적어도 200년 이상의 수령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전쟁에 의한 소실, 또는 공동체에서의 불필요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여건에서도 현재 지석리에 존재하고 있는 비교적 노거수, 혹은 인상적인 지표를 갖는 대표적인 수목들이다.

■ 자석리 마을 대표 수목생태자원

NO.1

명칭	느티나무	
위치(구술)	마을 진입부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p>수고 : 약 10m 직경 : 약 70cm 추정수령 : 약 100년</p> <p>- 느티나무(<i>Robinia pseudoacacia L.</i>)의 일반적 특징 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보통 높이는 20~30미터에 이른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 또는 달걀꼴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5월에 푸른색을 띤 누런 꽃이 피고 열매는 작고 동글납작한 핵과(核果)로 10월에 익는다. 한의학에서는 기을열매를 따서 볶용하면 눈이 밝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기록도 있다. 느티나무의 어린잎은 식용하고, 한약명칭은 계유(鶴油)라고 한다. 느티나무는 촌락 부근의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잘 자란다. 특히 마을마다 정자나무로 살아오면서 생태문화의 중심역할을 해왔다. 천년을 넘게 살아온 느티나무가 19그루나 되고, 전국에 보호수만 해도 5000그루가 넘는다.</p>	
생태문화 자원의 특징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석리 느티나무의 특징 - 수형이 비교적 아름답고, 전통마을의 보통 당산나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일반적인 전통마을에서처럼 수형, 수고, 크기 등을 통해 자석리 마을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다. - 다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을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공동체에 귀속된 수목은 아닐 수도 있다. - 현재 수목의 상태는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며, 수목하부의 손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여, 마을의 공동의 자원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NO.2

명칭	참죽나무	
위치(구술)	마을 회관 건너편, 골목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p>수고 : 약 15m 직경 : 약 30cm 추정 수령 : 약 100년</p> <p>참죽나무(<i>Cedrela sinensis</i> Juss.)의 일반적 특징 멀구슬나뭇과의 낙엽 넓은잎 큰키나무이다. 중국이 원산지로 전라, 황해 등지에 분포하고 참죽나무, 향준(香椿)이라고도 한다. 어린잎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나물로 먹는다. 또 장아찌 담그거나 찹쌀과 함께 튀겨 부각으로 요리한다. 줄기와 뿌리의 껍질은 약으로 쓴다. 꽃은 6월에 원뿔모양의 송이 꽂으로 흰꽃이 피고 열매는 쑥과(蒴果)로 9~10월에 익는다. 참죽나무 잎은 새순일 때는 발그레한 색깔에서 점점 백홍색을 띠다가 초록으로 변하고, 다시 붉은 단풍으로 변한다. 이처럼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나무는 흔치 않다.</p>	
생태문화 자원의 특징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석리 참죽나무의 특징 -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비교적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로서 잘 디자인 할 경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을 회관과 인접하여 있으며, 골목길에 서식하고 있어,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 특히 참죽나무는 부각 등의 나물로 활용하기도 하고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나무로서 보전과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생태문화 자원의 특징과 활용		

N0.3

명칭	은행나무	
위치(구술)	석동로 69번길 인근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p>수고 : 약 14m 직경 : 약 40cm 추정 수령 : 약 40년 내외</p> <p>은행나무(Ginkgo biloba L.)의 일반적 특징</p> <p>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의 낙엽교목이다. 잎은 부채 모양으로 한군데서 여러 개가 나는데, 잎모양이 오리발같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압각수라 부른다.</p> <p>암수 딴그루로 5월에 꽃이 피는데 암꽃은 녹색이고 수꽃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열매는 핵과(核果)로 10월에 노랗게 익는데 이 '은행'은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인다.</p> <p>은행나무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나무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우리에게는 느티나무, 팽나무와 함께 3대 정자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친근한 나무이다.</p> <p>은행나무는 독특한 향을 내어 벌레들이 잘 끄이지 않아, 조용하게 공부하는 곳에 많이 심는다. 공자도 은행나무 아래에 제자를 가르쳐 글을 읽고 학문을 하는 곳을 행단이라 부른다.</p>	
생태문화 자원의 특 징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석리 은행나무의 특징 -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마을의 골목길과 인접하여 식재되어 있다. 노거수라고 할 수 있으나, 수령은 40년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며 마을에서는 비교적 인상적인 거목에 속한다. - 마을의 골목길에 서식하고 있어,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NO.4

명칭	아까시나무	
위치(구술)	지석리 마을 청우식품 인근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p>수고 : 약 17m 직경 : 약 40cm 주정 수령 : 약 40년 내외</p> <p>아까시나무(<i>Robinia pseudoacacia L.</i>) 일반적 특징 콩과의 낙엽 큰키나무이다.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털모양의 겹잎으로 난다. 5~6월에 꽃잎은 희고 밑부분은 연한 노랑인 꽃이 피는데 향기가 강하며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대표적인 밀원 식물이다. 또 한의학의 약초로서 아카시아 꽃은 자고화(刺槐花)라고 하여 지혈작용의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땅이 황폐화 된 곳이나, 무너진 곳에 심으면 잘 자라서 토양을 안정시키고 비옥하게 하지 만, 번식이 그만큼 왕성하여 다른 나무에 주의해야 한다. 북미 동부가 원산지인데 땅감나무, 또 황폐지 복구용으로 1900년대에 들어와서 널리 심었다. 아까시나무의 수령은 보통 50년을 넘기지 못한다. 아까시아 꽃말은 “아름다운 우정”을 뜻한다.</p>	
생태문화 자원 특징 과 활용	<p>지석리 아까시 나무의 특징 마을 가로수로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아까시나무 거목이다. 아까시나무 자체가 장수하는 수목은 아니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의의 부여 하는 방향으로 마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아까시나무는 가로수 등으로 남아 있는 곳은 없으므로, 희소가치가 있어서, 잘 디자인하여 불거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p>	

NO.5

명칭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위치(구술)	신둔면 지석리 287-97 일대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p>- 참나무 군락지 추정 수령 : 4~50년</p> <p>- 상수리나무(<i>Quercus acutissima</i> L.) 참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다. 높이는 20~2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참나무들 중에서 제일 길쭉한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5월 무렵에 누런 갈색 꽃이 피고 도토리는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도토리는 둥글납작하고 털이 있는 빵모자 모양의 각두 안에 들어 있다.</p> <p>- 갈참나무(<i>Quercus aliena</i> L.) 참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다. 높이는 25~30미터이며, 잎은 약간 두꺼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는 둥글고 거친 톱니가 4~8개 달려 있다. 잎자루가 길며 뒷면에 하얀 털이 나 있다. 때문에 한 여름 숲에서 은빛 물결을 이루는 나무의 잎들은 갈참나무가 많다. 기울에는 이 잎들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가을 늦게까지 매달려 있어서 갈참나무라고 한다. 5월에 꽃이 피고 달걀모양 타원형의 도토리가 10월에 익는데, 털이 없는 빵모자 모양의 각정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도토리와 구별할 수 있다. 갈참나무는 참숯을 만드는데 많이 쓰고, 장수목이어서 천연기념물로 보전되는 600여년 된 나무도 있다.</p>
생태문화 자원 특징과 활용	<p>지석리 참나무 군락지의 특징 마을길가에 졸참, 갈참, 신갈, 등의 도토리 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장태말골 진입부의 길옆에 있는 참나무 숲으로서 생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마을 전체가 생태적 자원이 풍부하고 식생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p>

NO.6

명칭	소나무	
위치(구슬)	마을	
GPS 정보	37° 48' 05.7" N 126° 50' 25.1" E	
관련사진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군락지 - 소나무 정원수 <p style="margin-top: 10px;">소나무(<i>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i>)의 일반적 특징 소나무는 늘푸른 바늘잎 나무이다. 솔나무, 육송, 적송이라고 부르는 이 소나무는 바늘잎이 2개가 뭉쳐나고 꽃은 5월에 피어 수분을 하면 열매는 구과(毬果)로 다음 해 가을에 맺는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친근한 나무이다.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나무로서 건축, 음식, 문화, 종교 등에서 소나무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소나무와 함께 태어나서 소나무와 함께 땅에 묻힌다는 이야기를 한다. 태어나면 금줄에 솔잎을 매달았고, 솔갈비로 밥을 짓고, 송화가루로 떡을 빚고, 소나무로 지은 집에 살며, 소나무 관에 쌓여 땅으로 돌아간다. 소나무는 곧 우리의 문화이다.</p>	
생태문화 자원 특징 과 활용	<p style="margin-bottom: 0;">지석리 소나무의 특징</p> <p>지석리 원주민, 혹은 이주민들의 정원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마을 숲에도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들이 존재한다. 소나무의 경관적 가치를 보여주는 정원수들이 다수 있다.</p>	

현재 지석리 마을의 개인주택의 마당, 도로, 금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다양한 유실수와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1차 2회에 걸쳐 파악된 것들의 주요 목록만 여기에 수록한다. 이 사진들은 Samsung 휴대폰 카메라, SM-G930K 모델의 기종으로 8월과 9월에 각각 1회씩 촬영하였으며, 원본은 평균 $4,000 \times 2,200$ 수준의 화소이다. 수목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앞서의 대표적인 수목생태자원은 여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GPS 위치정보는 다소 오차가 있다.

■ 자석리 마을 기타 수목생태자원

일련 번호	사진	수목명	주요특징	위치정보
1		가는잎음나무	조경수/약용수 낙엽교목	37° 19' 46.0" N 127° 25' 36.0" E
2		갈참	낙엽교목	37° 19' 46.0" N 127° 25' 36.0" E
3		감나무	유실수/조경수 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		꾸지뽕나무	유실수/조경수 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5		낙엽송	낙엽침엽 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6		노간주나무	상록침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7		느티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8		능소화	조경수/만목	37° 19' 10.0" N 127° 25' 36.0" E
9		대추나무	유실수/조경수	37° 19' 10.0" N 127° 25' 36.0" E
10		댕강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1		두충나무	조경수/약용수	337° 19' 10.0" N 127° 25' 36.0" E
12		만주고로쇠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3		박태기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4		반송	상록침엽	37° 19' 10.0" N 127° 25' 36.0" E

15		밤나무	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6		백송	관상수/상록침엽	37° 19' 10.0" N 127° 25' 36.0" E
17		버드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8		벚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19		병꽃나무	조경수/낙엽관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0		보리수	조경/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1		복숭아나무	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2		복자기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3		붉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4		뽕나무	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5		사위질빵	조경수/만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6		사철나무	상록관목/조경	37° 19' 10.0" N 127° 25' 36.0" E
27		산수유	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28		살구나무	유실수/낙엽	37° 19' 10.0" N 127° 25' 36.0" E

29		상수리	유실/관상/ 낙엽교목	37° 19' 10,0 " N 127° 25' 36,0 " E
30		서양측백	조경수/상록침엽	37° 19' 10,0 " N 127° 25' 36,0 " E
31		섬잣나무	조경수/상록 교 목	37° 19' 10,0 " N 127° 25' 36,0 " E
32		아로니아	유실수/낙엽관목	37° 19' 10,0 " N 127° 25' 36,0 " E
33		오가피나무	약용수/낙엽교목	37° 19' 10,0 " N 127° 25' 36,0 " E
34		왕취동나무	낙엽관목/조경수	37° 19' 10,0 " N 127° 25' 36,0 " E
35		으름나무	조경수/만목	37° 19' 10,0 " N 127° 25' 36,0 " E

36		은사시나무	가로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37		자목련	관상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38		작살나무	관상수/낙엽관목	37° 19' 10.0" N 127° 25' 36.0" E
39		주목나무	조경수/상록침엽	37° 19' 10.0" N 127° 25' 36.0" E
40		중국단풍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1		진달래	관목/관상수	37° 19' 10.0" N 127° 25' 36.0" E
42		측백나무	조경수/침엽	37° 19' 10.0" N 127° 25' 36.0" E

43		총총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4		팽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5		해당화	관상수/낙엽관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6		헛개나무	약용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7		호두나무	유실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8		회양목	조경수/관목	37° 19' 10.0" N 127° 25' 36.0" E
49		회화나무	조경수/낙엽교목	37° 19' 10.0" N 127° 25' 36.0" E

3. 지석리 마을 생태자원의 활용방안과 제안

지석리 마을은 마을의 역사와 오랜 전통에 비하면 그 세월을 담지한 수목생태자원으로서의 노거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생태적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다수 존재한다.

느티나무와 참죽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느티나무의 경우는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 소유를 주장할 정도로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또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회관과도 약간 동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현재 살아 있는 마을의 역사자원으로서 또한 생명자원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느티나무의 수목 병리상태를 마을 차원에서 조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 자원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죽나무는 마을회관과 마주한 골목에 식재되어 있어서 마을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기 좋은 생태문화자원이다. 참죽나무는 상당히 품위 있는 자태를 가지고 있어서, 각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시나무는 마을의 중심도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활용하기 좋은 편이다. 느티나무나 참죽나무, 아까시나무 모두 마을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랜드아트(대지미술) 디자인을 통해서 마을의 생태적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별 가정들의 정원수 혹은 유실수가 매우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석리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주민의 구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산 자락 아래로 이주민, 혹은 원주민들의 세컨드 하우스들이 발달하고 있고, 특히 주거 형태 등으로 보아 예술인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축한 집들은 비교적 정원수 등을 잘 조경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자기 공방 등이 일부 있어서, 도예의 도시 이천의 색채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유실수나 관상수 등을 통해 조경에 신경을 쓰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문현연구자료의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정개산 그 자체로 다양한 식생과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우선 정개산은 산으로 진입하는 초입부터 매우 다양한 식생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생태자원의 조사를 통해 마을의 자원목록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개산을 원적산 등산루트와 연계한 숲길개발을 위해서는 마을의 볼거리를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생태문화자원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정개산을 포함하여 마을전체가 하나의 수목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발전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다. 즉, 마을 전체의 가구별로 정원수와 유실수를 좀 더 특화하고 강화하며, 풍치숲으로서의 마을 가로수 길 혹은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정개산의 천연림과 함께 마을 전체가 '지석리 수목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이다.

현재 지석리의 마을 상단부의 이주민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취락지의 경우는 가정집의 울타리를 쥐똥나무, 사철나무, 황금실백나무 등으로 조경해놓은 곳이 있다. 이는 마을의 수목원 기능이나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높이는 생태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울타리나 가로수길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킨 경우도 많이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 속의 울타리들은 집과 집 사이, 집과 외부의 생태적 경계이자 문화적 병풍과 같은 것이다. 생울타리는 가금과 야생동물의 경계가 되고, 텃밭과 외부의 경계가 되어 그 완충의 역할을 하는 생태적 경계가 되어 왔다. 울타리는 경계의 표시이자 외부의 침입을 막고 집안의 가축을 가두는데 필요한 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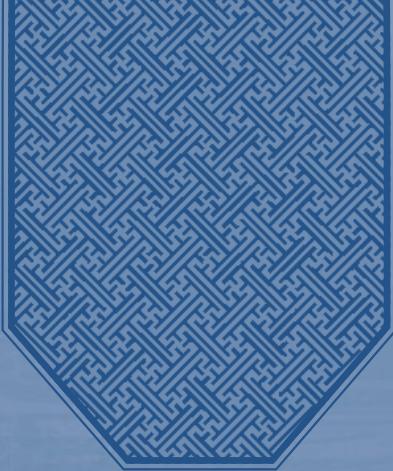
생울타리는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진 담보다는 사람의 눈을 덜 피로하게 만든다. 아무래도 녹색의 싱그러움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물리적 차단을 통한 갑갑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생울타리 담은 대문 밖의 손님이 집안을 훤히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대충 식별이 가능한 녹색 병풍의 기능도 한다.

생태관광지의 경우 관광객의 주민생활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도 하면서 시각적으로는 열려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생울타리는 또 소위 '쥐구멍'이 발달할 수 있어서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뿐더러 옆집이나 골목과의 추억을 만드는 막으로

서도 기능도 한다. 지석리 마을의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벽돌담을 헐고 이러한 생울타리로 관광자원을 특화해 가는 것도 생태적 마을 발전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도예촌역과의 유기적인 루트 구성을 위해서는 풍치경관을 포함하는 걷는 길로서 생태적 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도 풍치숲, 가로수숲 등 경관숲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의 정책방향이 되고 있다. 관돌천 인공 제방의 경우도 이러한 풍치경관을 감안한 관상용 관목들을 식재하고, 마을의 집들도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생울타리의 경관숲으로 조성한다면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할 것이다.

마을 자체가 관광 메리트가 없다면 원적산 등산로를 향해서 직진해 갈 것이고, 지석리가 관광메리트가 있다면 지석리를 반드시 들러서 가는 코스가 될 것이다. 정개산(우두산) 소잡이 축제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이 자원을 둘러싼 주변의 불거리들을 통해서 마을의 핵심자원으로서 돋보이게 해야 한다. 축제문화도 역시 곧 생태문화이다. 마을의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개산과 마을의 생태자원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더욱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석리 마을 민속자원 : 소당산 산신제

1. 소당산 산신제 개요

1) 산신제 유래

지석리는 한자명(漢子名)이나 관돌(또는 권돌)이라고 불려온 자연부락명(自然部落名)으로 불 때 선사시대 지배력을 상징하는 고인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동체의 본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석리 안에는 고인돌이 없고, 건너 마을인 수하리(水下里)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지석묘가 정비되어 있는 점은 지석리의 고유한 정체성 완결에 다소 아쉬움을 주는 면도 없지 않지만, 현재 규정된 행정구역에 따른 소속 여부는 고인돌 본연의 존재와 의미를 상속받은 지명이 지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보기 힘들다.

지석리(支石里) 마을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50m 가량 떨어진 경지 정리된 논에 위치해 있는 선사시대(先史時代) 유적(遺蹟)이다. 이 지석묘는 그 형태로 보아 현실(玄室)을 지하에 두고 그 위에 개석(蓋石)을 얹은 탁자식(卓子式)이며 부락 촌로(村老)들에 의해 출토되었다고 하나 그 행방은 알 수 없으며 2000년 3월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결과 그 고인돌



▶ 지석리 지석묘 안내판(이천시 향토유적 제4호,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746-2)



▶ 지석리 지석묘: 지석 5기가 정비되어 있다.

돌을 숭배하면서 껴묻기한 [X]자 표시의 백자 조각이 발견되었다.

지석묘가 위치한 지역 일대에는 봉토분(封土墳) 적석총(績石塚)으로 보이는 고총(古塚)들이 있어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 또는 백제(百濟) 초기의 고분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석묘가 청동기시대 부족장(部族長)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석리를 중심한 일대의 지역이 선사시대에 이미 적지 않은 규모의 부족집단의 취락(聚落)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지석리의 소당산은 해발 467m로 솔뚜껑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소당산이라고 하는데, 등산객과 외지인들은 소당산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인 정개산(鼎蓋山)이라고 부른다. 지석리 마을의 산신제는 이 소당산 큰골 중턱에서 지내기 때문에 ‘소당산 산신제’

라 칭한다.

다른 마을의 경우 산제사를 지내더라도 커다란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지석리에서는 소당산 산 자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나 바위 같은 구체적인 신앙 대상물은 없다.

산신제는 소당산 중턱에 있는 산신제 터에서 지내는데, 이 산신제 터의 형상이 여자가 누워있는 모양과 같아서 소당산 산신이 여산신이다. 산신제 터가 여근곡(女根谷) 형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지석리에 절구절이, 방아다리들 같이 여성이 사용하는 실림에 관한 지명이 많다는 것이다.¹

산제사 제물로 반드시 황소를 올리는 이유도 여산신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소당산 산신은 특히 호랑이신이어서,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려 올라가면 산봉우리에서 호랑이가 제사 끝날 때까지 눈을 깜빡이면서 불을 비춰줬다고 한다.



▶ 다리 건너에서 바라본 산신제 터
다리 건너 위쪽으로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한다.
파란 천막 쳐진 곳이 산신제 제단



▶ 산신제 터 옆의 깊은 골짜기



▶ 제단이 있는 큰골 오르는 길

1 이에 관한 내용은 VII-1. 소당산 산신제 관련이야기 참조

호랑이 여산신이기 때문인지 산신제 터에 여성과 총각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 하고, 결혼한 남성만 출입과 접근이 가능했다고도 한다.

소당산 산신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언제부터 지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마을 어르신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으며, 당신들 생애에서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지석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의례이다.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지냈으며 6.25 때 역시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이유는 마을의 평안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이며, 격년으로 2월 초이틀(음력) 밤에 지낸다. 정확하게는 2월 초이틀에서 초사흘로 넘어가는 자시(子時)에 지내야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2월 초이틀 밤 10시 경에 지낸다. 산신제를 2월 초이틀에 지내는 이유도 정확히 아는 주민은 없다.

산신제에 주요한 제물은 황소 한 마리인데, 이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호당 2만 원씩 산신제 비용을 모운다. 지석리에 현재 250여 호 정도, 500명 이상의 주민이 있지만 원주민은 70~80여 호 정도 된다. 산신제 비용은 주로 원주민들이 내며 신앙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산신제 준비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소당산 산신제 절차와 내용

1) 산신제 준비

① 제관·화부·축관 선출

산신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준비하고 담당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소당산 산신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사 일체를 관장하는 제관 한 명과 불을 담당하는 화부(火夫) 두 명 그리고 축관 한 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제관 등의 선출은 마을에서 갑자와 생기복덕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담당하는데, 근래에는 마을의 서정호 어르신(76

세)이 맡아 하고 있다.

제관 등의 선출은 산신제 사흘 전인 1월 그믐에 한다. 산신제 날짜와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뽑는데, 산신제 날짜에 생기가 드는 사람, 복덕이 드는 사람을 말하여 대개 연령 · 일진 등이 맞아야 한다. 당사자의 생기복덕이 맞아도 집안에 흉사(초상·환자·우환 등) 가 있거나 여성의 달거리가 있는 경우는 배제해야 하므로, 후보자를 한두 명 여유있게 뽑아놓고 상황을 알아본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제관 등으로 최종 선출된 사람은 그때부터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린다. 집 밖으로 나왔다가 혹여 부정한 것을 보거나 사악한 소리를 듣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까 꺼려해서이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남이 볼까 봐 화장실도 슬며시 다녀오게 된다고 한다. 즉 모든 부정을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초이튿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산에 올라간다. 산신제 지내기 전에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도 부정할까봐서이다. 제관과 화부는 2월 초이튿날 새벽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산신제 준비를 하고, 축관은 산신제 지내는 시간에 맞춰 올라간다.

산신제 제관 등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뽑히는 사람은 일생에 몇 번 씩 뽑히기도 하지만, 한 번도 뽑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산신제 날짜와 생기복덕·일진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새는 힘들고 귀찮아서 뽑혀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제관 등으로 선출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 제관 최인철



▶ 축관 허연



▶ 화부 김종래



▶ 화부 허성무

올해 선출된 제관 등은 다음과 같다. 일진까지는 모르겠으나, 올해는 닭띠와 돼지띠가 산신제 날짜와 생기복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관: 최인철(1945년생, 73세, 닭띠), 제관은 10여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올해 다시 선출되었다.
- 축관: 허연(1945년생, 73세, 닭띠), 예전에 산신제 제관과 축관의 이력이 여러 번 있다.
- 화부: 김충래(1959년생, 59세, 돼지띠), 허성무(1959년생, 59세, 돼지띠), 올해 처음 화부로 선출되었다.

② 금줄 치기

제관 등이 선정되면 마을 사방 어귀와 제관 등의 집 앞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를 밀하며 부정한 것의 출입을 금하는 금기(禁忌)의 표시로 원새끼에 흰 창호지를 꽂는다. 달리 인줄이라고도 한다. 마을 어귀의 금줄은 산신제 치르기 전 1주일 전에 걸고, 제관 등의 집에는 선출이 결정되면 금줄을 걸게 된다.

마을 남쪽 어귀의 금줄은 현재 마을 출입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다. 마을 북쪽 어귀에는 없으며, 최근 물류센터의 건립으로 차량 등의



▶ 마을 남쪽 어귀의 금줄



▶ 마을 동남쪽 어귀의 금줄



▶ 마을 동쪽 어귀의 금줄



▶ 마을 서쪽 어귀의 금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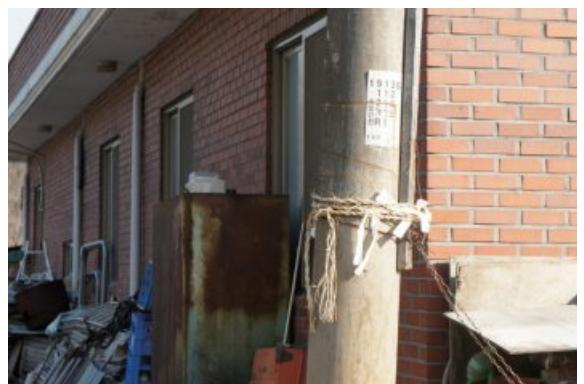
▶ 제관 최인철 집 앞의 금줄



▶ 축관 허연 집 앞의 금줄



▶ 화부 김충래 집 앞의 금줄



▶ 화부 허성무 집 앞의 금줄

출입이 잣아진 동남쪽에 금줄을 걸었다. 웃재 넘어들 아래 삼원특수지 물류센터 가기 전 삼거리 쪽이다. 마을 동쪽의 금줄은 동쪽 서낭당이 있었던 자리로 현재 고산요(高山窯) 앞 쪽이다. 길을 지나던 트럭에 걸려 가로 걸어놓았던 금줄이 끊어져 다시 옆으로 걸어놓았다. 마을 서쪽 어귀의 금줄은 서쪽 서낭당이 있었던 자리로 성원암 앞 쪽이다.

③ 제물 준비

소당산 산신제의 제물은 황소 한 마리이다. 제관 등이 2월 초이튿날 새벽에 제물로 쓸 소를 제외한 나머지 쌀·과일·포·그릇 등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소는 오전 무렵에 주민들이 제사 터로 가지고 올라온다.

산신제의 제물은 예로부터 황소 한 마리를 썼기 때문에 소를 구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반드시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최인철 제관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 소를 구하지 못해서 제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제단에 평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있더라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산신제에 올리는 소는 흰 털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주 크고 누런 황소 중에서도 거세하지 않은 소를 택한다. 예전에는 소를 미리 사서 마을에서 부정타는 것 없이 정성껏 먹여서 제관들이 제삿날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끌고 올라가서, 제사 터 아래 개울에서 소 엉덩이에 소똥 하나 없이 깨끗하게 목욕 시킨 다음 다시 끌고 내려와서 잡았다고 한다. 그렇게 황소를 직접 제사 터에 끌고 올라와서 목욕시키고 직접 도살하고 털도 그슬렸지만, 도축장이 생긴 이후에는 도축장을 이용했고, 요즘에는 제사 터 밑에 전문가가 와서 도살을 한다. 올해는 AI와 구제역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도축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도살을 하고 털도 깎아서 가지고 왔다.

2) 산신제의 진행

조사 경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올해 지석리 마을지를 발간할 계획을 수립하는 중, 2월 26일 ‘당장 내일 새벽에 산신제를 지낸다고 연락이 왔으니 현장 조사를 나가달라’는 요청이 왔다. 산신제에 여자가 올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석리에 ‘조사자가 여성인데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지석리 이장의 답신 내용은 ‘산신제에 지금까지 여자가 올라간 적은 없으나, 특별히 마을 어르신들께 산신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조사 준비를 갖추어 지석리 마을회관에 새벽 4시에 도착하여 산신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석리의 산신제는 철저하게 남성으로 이루어진 제관과 축관, 화부만이 올라가 제사를 지내므로 지금까지 산신제에 관한 기록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 2017년 산신제가 소당산 산신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관 등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산신제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음력 2월 2일) 월요일 04시 30분~23시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소당산(鼎蓋山) 큰골 중턱 산신제 터



▶ 차에 산신제 준비물을 쟁기고 있다.



▶ 산 중턱부터는 지게로 짐을 나른다.

① 04시 35분: 제관·화부 제사 터로 이동

최인철 제관과 김충래허성무 화부 세 명은 마을회관 앞에 세운 트럭 위에 쌀·과일·포·그릇 등 산신제 준비물을 싣고 소당산 큰골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차량으로 산 중턱 포장된 도로까지만 이동한 후, 차량에서 제사 준비물을 지게에 지고 제사 준비 장소 까지 산을 올랐다. 지게에 짐을 지고 산 오르는 시간은 8분 정도 소요되었다.

② 04시 55분: 불 피우기, 밥 하기, 조라술 담그기, 아침 식사

산신제 터 아래 산신제 준비하는 장소에 도착한 제관과 화부는 짐을 내려놓고, 산에 있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 등으로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화부는 산신제 터 오른쪽 아



▶ 산신제 터 밑에 있는 산신제 준비 장소



▶ 준비 장소에 있는 예전에 사용하던 기물들



▶ 제일 먼저 불을 피운다.



▶ 오른쪽 옆의 개울물로 쌀을 씻어 밥을 안친다.

래에 있는 샘물로 쌀을 씻어 밥을 안친다.

밥이 다 되면 조라술을 담근다. 작은 단지에 밤·이스트·누룩을 섞은 다음 물을 부어서 불 피운 자리 옆에 땅을 파고 단지를 묻고 잣불을 덮은 다음 장작을 몇 개 올려 놓는다. 제관이 주재하고 화부는 물을 붓고 단지를 묻는 역할을 한다. 조라술을 담가 놓고, 제관과 화주는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는 조라술을 담고 남은 밥과 흰 소금으로만 약간 한다. 산신제를 지내면서 간이 있거나 양념된 음식은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저를 사용할 수도 없어 손으로 밥을 뭉쳐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제관과 화부의 산신제 아침식사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니 6시 30분 정도 되었다.



▶ 밥을 하는 화부, 화부는 불을 잘 다루어야 한다.



▶ 밥이 다 되면 제일 먼저 조라술을 담근다.



▶ 단지에 쌀과 누룩, 이스트를 넣고 물을 넣는다.



▶ 조라술 단지를 불 옆의 따뜻한 땅에 묻는다.



▶ 조리술을 담고 남은 밥이 제관과 화부의 식사



▶ 맨손으로 밥과 소금만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③ 09시 20분: 제물 옮기기, 떡 안치기

마을회관 앞에 제물로 쓸 소가 도착했고, 차량으로 제사 터 밑 다리 아래로 이동하였
다. 도축하여 껍질만 벗긴 소 한 마리를 정육업자가 현장에서 뼈와 고기를 부위별로 분
할하여 비닐에 넣어 자루에 담고 자루에 각 부위 명칭을 적었다.

다리 아래로 올라온 10여 명의 마을 남성들이 고기와 뼈가 담긴 자루를 지게에 지고
제사 터까지 옮긴다. 소가 크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 산길을 여러 번 나
르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제사를 돋기 위해 산에 오른 마을 주민은 대부
분 60대, 70대 남성이었다. 제관과 화부는 제단에 옮겨진 제물을 열어 부위를 확인하



▶ 회관 앞에 준비된 제물을 나를 지게



▶ 산신제 아래 다리 건너에서 제물을 손질한다.



▶ 나누어 담은 제물을 지게로 나른다.



▶ 지게로 제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일은 힘겹다.

고 분류하여 놓는다. 제물을 나누고 나르는 작업은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제단으로 제물을 나르는 동안 제관과 화부는 10시 쯤, 준비해 온 쌀가루로 떡을 안칠 준비를 했다.

④ 10시 20분: 가죽 말리기

마을 주민들이 분할된 제물을 제단으로 옮기는 동안, 제관과 화부는 제사 준비 장소에서 소가죽을 편편한 돌 위에 펼쳐 놓고 토치로 말리기 시작했다. 가죽이 생각보다 물



▶ 젖은 소가죽을 편편한 돌 위에 펼쳐놓았다.



▶ 제관과 화부가 젖은 소가죽을 말리고 있다.

에 많이 젖어서 한참을 말려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소털이 불에 타서 그을음이 많이 생겨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소 가죽 말리기는 제물을 다 옮긴 11시 30분까지만 진행되었는데, 소 가죽을 가지고 올라가 제물을 진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11시 30분: 제물 맞추어 진설하기

제관과 화부는 토치로 말린 소 가죽을 땅에 닿지 않도록 기다란 나무에 걸쳐서 제단으로 옮겼다. 제단 위에 먼저 흰 종이를 빈틈없이 깔고 그 위에 소 가죽을 펼쳐 놓았다. 주민들이 옮겨놓은 자루를 풀어 부위를 확인하고 가죽의 모양에 맞게 뼈와 각각의 부위 살을 올린다.

우선 소머리를 올리고, 다리를 꺼내는데 앞뒤좌우를 어렵게 맞추어 올렸다. 그 뼈 위에 위치에 맞는 살을 올린 다음 등뼈와 갈비를 올리는 것으로 제물 진설을 마쳤다. 제물 진설이 끝나자 흰 종이를 펼쳐 제물을 덮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긴 나뭇가지를 여러 개 옮겨놓았다. 자루에 부위 명칭을 써 놓았어도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꺼내놓으면 헛갈리기 쉬워서 제물을 올리는 데 애를 많이 먹었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 제물 진설을 마치고 나니 오후 1시 10분이 되었다.



▶ 소당산 산신제 제단



▶ 소당산 산신제 제단



▶제사터에 올려진 제물을 확인하고 있다.



▶제물 올리기 전 제단에 흰 종이를 깐다.



▶소가죽을 펼치고 제일 먼저 소머리를 올렸다.



▶가죽 위에 빼와 고기를 맞춰 올렸다.



▶제물을 다 맞춰 올리고 흰 종이를 덮어놓는다.



▶제단이 갖추어진 모습

⑥ 오후 1시 30분: 떡 시루 올리기, 선자국 끓이기

제물을 다 차린 제관과 화부는 준비 장소로 내려와 제단에 올릴 떡에 불을 붙이고, 제물과 함께 올라온 선지로 국 끓일 준비를 한다. 제단 아래 계곡물로 솔을 씻고 물을 담아 선지를 뜯고 불 위에 올렸다. 물과 선지 외에 간이나 양념은 하지 않는다.

⑦ 오후 5시: 조리술 확인하기

제상을 다 차린 제관과 화부는 제사 준비 자리를 치우고 기물들을 정리한 다음 피워 놓은 불 앞에서 선 채로 휴식을 취했다. 오후 5시에 술 단지를 덮었던 잣불과 흙을 치우



▶ 불에 올린 떡 시루



▶ 선자국 끓일 솔을 닦는 화부들



▶ 솔에 계곡물을 담아 선자국을 끓인다.



▶ 불에 올린 떡 시루와 선자국 솔단지

고 나서 단지 뚜껑을 열어 보았다. 단지 안의 술이 누렇게 발효가 되었고 술 냄새가 났다.

새벽에 술 담근 지 10시간 정도 지난 때였다. 시루떡도 잘 되었고 선지국도 다 끓었다.

제단에 조라술 단지, 떡 시루와 밤·대추·곶감·떡 등과 포 그리고 촛대를 갖다 놓았다. 이로써 세상 차리기를 마쳤다. 이제 제관과 화부는 추운 겨울 산 위에서 모닥불 하나를 의지하고 제사를 지낼 10시를 기다린다.

⑧ 오후 9시 15분: 의관 갖추기, 제단으로 이동

제관과 화부가 제사 준비하는 장소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써서 제사를



▶다 익은 조라술



▶선지국



▶잘 된 시루떡



▶떡과 과일 등을 올려 제상을 다 차린 모습

지낼 의관을 갖춘다. 피워놓은 모닥불도 사위고 초이틀이라 달도 어두워 산 위의 밤이 무척 어둡고 춥다. 9시 40분에 축관이 올라오자 화부들은 향로에 불씨를 담고, 축관·제관·화부는 이제 산신제를 지내려 제사 터로 올라간다.



▶어둠 속에서 의관을 갖추어 입는다.



▶향로에 불씨를 담는다.

⑨ 오후 9시 50분: 제사 지내기

■ 산제사: 제사 터로 올라간 축관은 먼저 산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술 한 잔을 떠서 산신령께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단 오른쪽 약간 위쪽에 술 한 잔을 놓고 제관이 절을 세 번 했다. 절을 한 다음 잔에 든 술을 고시래하고 내려왔다.

■ 초헌(初獻): 축관이 제관이 든 술잔에 술을 따르면 제관이 잔을 돌린 다음 술잔을 제단에 올리고 향을 피운다. 제관이 일어나면 축관·제관·화부가 함께 절을 두 번 한다.
(너무 어두워 화부 한 명은 후레쉬로 불을 비추고 있어야 했다.)

■ 아헌(亞獻): 퇴주하고 다시 술을 올린 다음 절 한 번에 엎드리면, 축관이 축문을 꺼내 읽는다.



▶ 산제사를 지낼 술을 따른다.



▶ 제단 오른쪽에 술을 놓고 절을 하는 산제사



▶ 초헌



▶ 초헌 후 절을 하는 제관들

■ 축(祝)

山神祝

維歲次二千空十七年二月初사호 子時 히연 幼學 敢昭告于
鼎蓋山神 崇高惟嶽 峻極牛千 巍巍其德 衆人景仰 昭昭維靈 一洞瞻望
敢陳太牢 神其格思 齋誠將祀 壇上儼然
伏惟尊靈 歡此洞酌 保佑生民 驅出厲疫 消災致祥 掃蕩妖氛
轉禍爲福 伍穀發穰 物阜民安 六畜蕃息 時和年豐 民乃隨業 報效如在
神亦載寧 永戴神功 保護周旋

一坊欣滿 使民安樂 永世無斁

尚饗

(산신축: 유세차 이천공십칠년 2월 초사흘 자시 허연 유학 감소고우. 정개산신 숭고유 악 준극우천 외외기덕 중인경양 소소유영 일동침망. 김진태뢰 신기격사 제성장 단상 엄연. 복유존령 흠차형작 보우생민 구출려역 소재치상 소탕요분. 전화위복 오곡발양 물 부민안 육축번식 시화연풍 민내수업 보호여재. 신역재령 영대신공 보호주선. 일방흔 만 사민안락 영세무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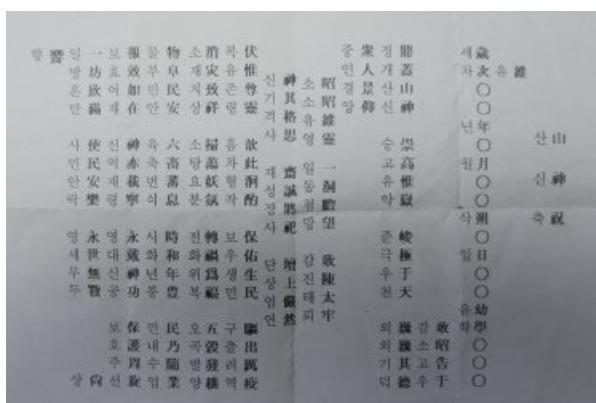
산신축

해로 말하면 이천십칠년 이월초사흘 자시, 허연이 삼가 아뢰옵니다.

정개산신, 높은 저 산은 높고 높아서 하늘에 닿고, 높고 높은 그 덕은 못 사람들이 사 모해 우러르니 지극히 밝은 신령을 온 동네가 아득히 바라봅니다.

감히 소 한 마리를 진설하여 신령님을 오시게 하니, 정성을 가지런하게 하여 장차 제사를 준비하니 제단은 염숙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그윽한 잔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도우시고 온갖 화와 역귀를 몰아내 주시옵고, 재앙을 되돌려 복되게 해 주시고 괴이한 조짐을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 서정호 어르신이 보관하고 있는 소당산 산신제 축문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뀌어 오곡이 풍년들게 해 주시고, 만물이 번성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가축은 번식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시절이 좋아, 백성이 본업을 다하니 은혜에 보답하려 정성을 다합니다.

신령님 또한 평안하시옵고, 영원히 신의 공덕을 받들 것이니 보살피고 돌보아 주시어 두루 잘 되도록 힘 써 주시옵소서.

온 마을에 기쁨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편안함과 즐

거움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흠향하시옵소서.

축문을 다 읽으면 모두 일어나 절을 두 번 더 한다.

■ 종헌(終獻): 퇴주하고 다시 술을 따라 올린다. 향로에 향을 넣고 절을 두 번 한다.



▶야현



▶야현 후 축문을 읽는다.



▶축을 읽는 축관



▶종헌

■ 소지(燒紙): 앓아서 축문을 소지하여 향로에 올린다. 제판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화부는 가족을 위해서, 축관은 나라와 지석리의 평안을 위해서 소지하였다. 축관은

가족 일신을 적은 종이를 꺼내 다시 소지하고 옆의 화부에게도 소지하라고 청한다.

■ 음복(飲福): 소지를 마친 축관·제관·화부가 제상의 떡도 떼어먹고, 곶감도 하나씩 먹고, 밤도 대추도 하나씩 먹으며 음복하고, 축관이 제관과 화부들에게 과실을 가져가 가족들과 먹으라고 권한다. 제상에 올렸던 술도 내려 한 모금씩 음복하며 ‘냄새는 좋은데 맛은 없다’고 한다. 떡은 할 때마다 설었었는데 이번에는 맛있게 아주 잘 되었다고 하였다. 20여 분에 걸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숙하고 경건하게 산신제를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의 여유와 안정감에서 나온 웃음소리와 대화가 춥고 어두운 산 속에 녹아들었다.



▶ 소지



▶ 음복

⑬ 오후 10시 10분: 하산

10시 10분에 산제사가 끝나자, 제사 준비 장소에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제사 터로 올라와 제단에 올렸던 제물들을 다시 지게에 나누어 지고 다리 건너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옮긴다. 마을회관으로 제물과 기물을 모두 옮기고 나니 밤 11시가 되었다.

⑭ 오후 11시: 마을 주민들 음복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을회관에 30여명의 주민이 모였고, 제사에 올렸던 소고기로 수육·육회·구이 등을 만들어 음복 겸 간단한 뒷풀이가 진행되었다.



▶ 짐을 나르기 위해 올라온 주민들이 선지국과 조리술을 먹고 있다.



▶ 후레쉬를 비추며 제단에서 제물을 나누어 지게에 싣는 화부와 주민들

3) 음복과 제물 분배

오전에는 밤새 냉장차에 보관했던 제물을 꺼내 손질하고 산신제 준비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누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는 전문 정육업자와 주민들이 제물로 쓰였던 소고기와 소뼈를 손질하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마을회관 안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준비한 소고기 국과 음식으로 식사가 마련되었다. 주민들 전체가 제물을 음복하는 의미와 함께 골고루 나누는 의미가 있다.



▶ 마을회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원들



▶ 마을회관 마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원들



▶ 제물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있는 주민들



▶ 제물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있는 주민들



▶ 제물로 쓰인 과일 등도 골고루 담아 나눈다.



▶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소고기를 구워먹는 주민들



▶ 전문 정육업자가 소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 소뼈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 고기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무게를 달고 있다.



▶ 지석리 2반 13가구에 돌아갈 고기가 담긴 봉투

손질된 소고기와 뼈는 산신제에 참여한 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각 부위의 고기와 뼈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진행되었다. 지석리에는 모두 다섯 개 반이 있는데, 제물은 반별로 산신제에 참여한 가구 수대로 나누어졌다. 예전에는 고기와 뼈를 반별로 통째로 주고 나누도록 했었지만, 2015년부터는 고기와 뼈가 골고루 담겨진 것을 산신제에 참여한 반별 가구 수대로 나누어서 전달하고 있다. 음복과 고기 분배가 끝나면 주민들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로써 산신제 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된다.

3. 소당산 산신제 의의와 전망

산신제는 산신제·산제·산제사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고루 나타나는 마을 신앙이다. 산신제는 고대사회에서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산과 산악지대 또는 산야과 인근한 마을들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려져 있으며,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치러졌다. 이러한 산신제는 산악승배의 표현이며, 산악승배 사상은 천신신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산신은 남신이 경우도 있고 여신인 경우도 있고 남녀신을 같이 섬기는 경우도 있다.

제의일은 정월 초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제의 따른 제물로는 소(牛)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도축법이 시행되면서 소가 돼지로 바뀐 곳이 많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의 머리나 발 등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다.²

지석리 소당산 산신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신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당산 산신제의 고유한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산신을 호랑이 여산신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산신을 호랑이로 하는 경우 보통 남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소당산 산신은 호랑이이면서 여산신으로 특정화되어 있다. 호랑이 신이어서 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여산신이어서 반드시 황소를 바치며 산신제터에 여성과 미혼인 남성의 접근을 금기시하고 있다. 게다가 산신제터를 여근곡(女根谷)이라고 하며 지석리 마을 지명에 절구절, 방아들, 장터별 등 여산신의 살림살이에 관한 지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확장해서 보자면 지석리의 여러 곳을 여산신이 창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산신의 창조신적 면모는 마고할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한 거대 여신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흥미롭다. 소당산 산신제와 같이 여산신과 호랑이신이 결합된 독특한 양상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탐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신제를 지내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의례는 정월 초에서 보름 사이 또는 시월 상달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당산 산신제는 음력 2월 초이틀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시기에 관한 기록이나 주민들의 전술이 없어 이에 대한 확정은하기 어렵지만, 머슴날이라고 하는 음력 2월 1일과의 상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월 1일 머슴날에는 농한기를 잘 쉰 일꾼들이 새해의 농사를 준비하며 풍농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례와 잔치를 벌이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날을 나이떡날이라고 하여 나이 수대로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 설날과 별도로 새해를 건강하게 맞고자 하는 기원을 하기도 한다. 소당산 산신제를 이 머슴날과 가까운 날짜인 음력 2월 2일에 지내는 것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지석리에서 새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농사를 기준으로 한 새해를 맞기 위한 의례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염

.....
2 산신제에 관한 일반적이 내용은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의 '산신제'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두에 두어 본다.

셋째, 예로부터의 전통적인 제의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관 등의 선출 방식, 산신제를 위한 금줄 결기, 2월 초이틀 깊은 밤, 철저히 제관 등을 중심으로 한 진행,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치는 제물 등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제의 양식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당산 산신제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깊은 믿음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소당산 산신제는 위와 같은 특징들로 우리나라 산신제 중에서도 고유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 여산신이라는 흥미로운 산신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탐색을 통한 해명과 2월 초이틀에 산신제를 지내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부가된다면 소당산 산신제는 그 독특한 면모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현재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관 등을 맡는 것을 꺼린다거나 추운 겨울날을 산에서 보내는 것의 고충이 심해지고 골짜기로 제물을 운반하는 것이 날짜와 시간 그리고 노동력의 차원에서 점점 힘에 부쳐지고 있다는 점,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마련하는 것의 경제적인 벼거움, 산신제를 준비할 젊은 남자들이 마을에 턱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통의 폭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달리 말하면 전통을 슬기롭게 전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주체는 당연히 지석리 마을 주민들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온 소당산 산신제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신앙과 풍습을 지켜나가야겠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세대가 소당산 산신제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원칙과 변화의 폭을 논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린 구조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공감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무엇보다 전통을 쉽사리 파괴하고 무시해 버

리는 것이 세계화와 첨단이 되어버린 이 기형적인 사회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소당산 산신제를 지켜왔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소박한 믿음과 경배의 자세 그리고 그것을 가슴 깊이 자긍심으로 느끼며 살아온 지석리 마을 주민들의 끗끗한 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끗끗한 힘을 드러내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소당산 산신제를 지켜나가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석리 마을 이야기 자원

1. 소당산 산신제 관련 이야기

소당산 산신제가 지석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행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인지 산신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당산 산신이 여산이어서 지석리의 많은 지명이 여산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산신제 터가 명당이지만 아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기, 산신제와 관련된 엄격한 금기를 어긴 사람이 별을 받은 이야기, 일제가 명당인 산신제 터 위에 말뚝을 박아서 지석리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등이 조사되었다.

많은 양의 조사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당산 산신제에 대한 신성한 의미와 더불어 소당산 산신제와 지석리 전체가 지리적·역사적으로 여전히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자료들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당산 여산신의 살림, 절구절이와 방아골

구연자: 서정호(남, 1941년생, 77세, 뱀띠¹)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서정호 어르신

1 제보자 서정호 어르신은 고향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으로, 6.25때 주문진·강릉·속초 등으로 피난갔다가 지석리에 16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60년 정도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지석리에 아는 분이 있어서 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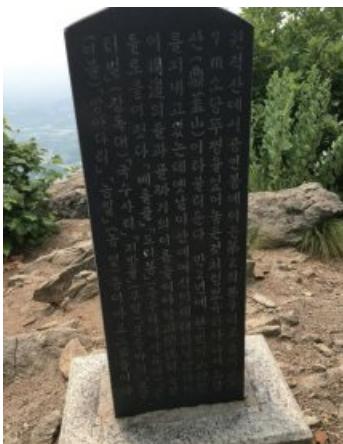
▶ 방아다리들



▶ 절구절이

이게 그전에 노인네들 얘기하는데, 이 소당산 신령이 여자래요. 여잔데 살림을 하는데 (조사자: 산신이?) 이 절구절이는 절이 아홉 개가 아니라 절, 절구 있잖아요? 옛날 절구 놔던 자리다, 신이. 그리고 뭐 또 여기 다른 것도 보면 전부 부엌에 관한 전설이 있더라구요. (조사자: 산신이 신이 여잔데?)

여잔데 살림을 할라 보면, 절구는 절구를 놔 가지고 해던, 방아골은 또 디딜방아 놔던 데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노인네들이. 그 이 지명이 저 집안 살림에 관한 그거를 응용해서 지형이 정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사자: 그럼 어르신, 그 절구절하고 방아골 말고 또 다른 부엌하고 연관된 이름은 또 없어요?) 거기 보면 알지요, 거기 그 쪽에 다 몰려 있대요. (조사자: 산신제 터 옆에?) 방아다리는, 방아다리는 옛날 디딜방아 그 다리형태로 돼 가지고 그리고 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이천시에서 세운 정개산 정상의 비석

서정호 제보자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비석에 적혀 있어 참고로 싣는다.

[비석의 비문 내용] 원적산에서 공민봉에 이은 제2의 봉우리로 높이 407m 소당 뚜껑을 엎어놓은 것처럼 뾰족하다 하여 소당산(鼎蓋山)이라 불리운다. 만 2년에 한 번씩 山神祭를 지내고 있는데 옛날 이 산에 여신이 내려와 살았다 하여 周邊의 들과 골짜기의 이름들이 아나과 관계關係되는 것들로 붙여졌다. ‘배틀 골’‘도리봉’(족두리에서 유래) ‘장터별’(장독대) ‘국수사리’‘지방골’(부엌) ‘문등 바위’‘요꼴’(이불) ‘방아다리’‘능밀’(농밀)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산제사 터가 명당

구연자: 서정호(남, 1941년생, 77세, 뱀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서정호 어르신

명당자라는 지금 산제사 터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린데 거기다가 옛날에 풍수 아는 사람이 그 혈이 좋아서 거기다 투장(偷葬)을 했대요. 밤에, 동네 사람 몰래. 거기다가 몰래 자기 조상을 거기다 투장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그 산신령이 내려와 가지구 그걸 캐내게... 캐내라구 자꾸 그러구. 동네 사람한테두. 거동네 노인네들 있잖아요? 장묘인들한테 자꾸 꿈에 “내 자리에다 그랬으니까 캐 달라구.”

그래 가지구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처음엔 믿질 않아 가지구. 근데 그 노인네가 했대요. 그래 가지구 하도 선몽(現夢)을 하길래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까 누가 투장을 했드래요. 그래 가지구 그걸 캐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 (이근웅: 맞어요,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거기가 자리가 아주 명당자리래요, 자리는.



산신제 부정 탄 사람

구연자: 서정호(남, 1941년생, 77세, 뱀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서정호 어르신



젊은 사람이니까, 믿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야. 그래 가
자구 그 후로는 평생을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못 했다는 거야. 벌을 받아
가지구. (조사자: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 건 데두요?)
내려와서 그 날 저녁에. (조사자: 그럼 그날 저녁까지 몸을 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엄했대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옛날 노인네
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은 평생을 동침을 못 했다구 그러면서 옛
날 노인네들이 그러더래요.

그만큼 엄격하게... 옛날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뽑아 놓으면 담배도 피우라 그래도 안 피워요.
이건 뽑히면 자기 정성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산신제 터에 박힌 쇠말뚝

구연자: 이근웅(남, 1944년생, 74세, 원승이띠²)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이근웅 어르신

지금 우리 제사터 위에, 위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말뚝
을 박았대요. 근데 그걸 못 찾는대네. 지금까지. 몇 개 박았
는진 모르고, 심을 박았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 지석리에서 큰 인물이 안 나온대는 얘기가 나온대는
거야. (조사자: 쇠말뚝을 박아서?) 혈에, 혈에다가 박아서. 그
걸 못 찾는대는 거 아냐. 그리고 거기 묘터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2 제보자 이근웅 어르신은 고조대부터 지석리에 거주하였고, 지석리가 고향인 토박이이다.

2. 지명유래 관련 이야기

마을 지명유래 관련해서 베틀굴과 회톨바위 그리고 소반바위, 섬말에 관한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베틀굴과 회톨굴에 대한 이야기는 식민상황과 전쟁, 생산현장으로서의 내력을 지닌 실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전설이라면, 소반바위와 자료로 첨가한 감투바위 그리고 섬말에 얹힌 이야기는 독특한 형태와 지형에 주민들의 상상력과 기원이 보태져서 생성된 허구적 성격이 강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베틀 짰던 베틀굴³

구연자: 이근웅(남, 1944년생, 74세, 원승이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이근웅 어르신

6.25 전쟁 때. 저 뭐 중국 사람들 이북 애들이 쳐 내려왔었잖아? 포로다가. 155mm 포로다가.
지금에 아는 거지. 딱 때렸는데 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맛돌을 맞힌 거야. 여 위에. 이마때기 딱
맞으면서 떨어져 가지구 굴이 멕혀져 있어요. 그거 복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이 부근에 거기서 베틀(베틀)을 놓고 벼(벼)를 짰대는 거야. 옛날. 그 일본놈들이 하도 지랄

3 베틀굴에 대해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을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6.25 때 중공군이 베틀굴 근처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베틀굴에 파 묻었다는 이야기(허연 구연), 어른들 따라 올라갔더니 중공군 시체가 나무 여기저기에 걸쳐져 있고 해골이 굴러다니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가매장을 했다는 이야기(이근웅 구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피하려고 굴에 숨어있는데, 일본인이 마을 부녀자들을 겁탈하려고 올라와서 바가지에 오줌을 받아 뿌렸다는 이야기(김영순 구연) 등이다. 베틀굴의 위치가 워낙 높고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역사적 현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인식되고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베틀굴의 크기를 기늠하기 위해 굴 앞에 서 있는 지석리 서학원 이장
베틀굴은 소당산 꼭대기 바로 아래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금 베틀바위가 아니에요. 베틀굴, 이게 베틀을 놓고 짰대
는 굴이었었다, 그 얘기.

을 해서 도망가서, 산 속에 가서 벼를 짬대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그 우리 마을에만 그게 유명 메이커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지금 거의 한 15세 이 정도 된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한 20대 된 아이들은 베틀굴 하면 어디 있대는 건, 가 보진 않았어도, 흔적은 지금 있어요. (조사자: 베틀바위, 베틀굴 그럼 그게 같은 데예요?)

베틀굴이, 바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
인공 굴이 있어 가지
구 베틀굴. 근데 지



횃돌을 캐던 회틀바위

구연자: 서정호(남, 1941년생, 77세, 뱀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서정호 어르신

회틀바위, 거기가 옛날에 석회를 캐던 굴이래요. 회틀(횃돌)를 캐던 탄광인데 지금 다 메꿔지고 그 돌도 어딘지 자리도 못 찾는다. 그냥 허연 횃돌 같은 게 뿐여져 있고... 그걸 그냥 회틀바위라 그려죠. (이근웅: 산에 가 보면 위에서 자꾸 물이 흐르니까 흙이 쓸려서 다 메꿔져 있더라구.) 다 메꿔지고 그냥 허연 돌만 있다. 석회 돌. (서학원: 2013년에 홍수나면서 더 메꿔져 버렸어요.)



▶ 횃돌을 캐던 회돌바위

소반바위

구연자: 이근웅(남, 1944년생, 74세, 원승이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이근웅 어르신

소반바위는 새재골 올라가는 초입, 길 옆에 있는데 이 바위가 소반모양 생겼다 그 래서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자손이 귀한 사람이 가서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 는다, 자손을 얻는다 그래서 소반바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 같애. (서정호: 소반 이 상, 그거 말한다. 이만큼 커서 상 10배 정도 된다.) 유○○씨인가 거기 손 이 귀한데 거기 가서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녀,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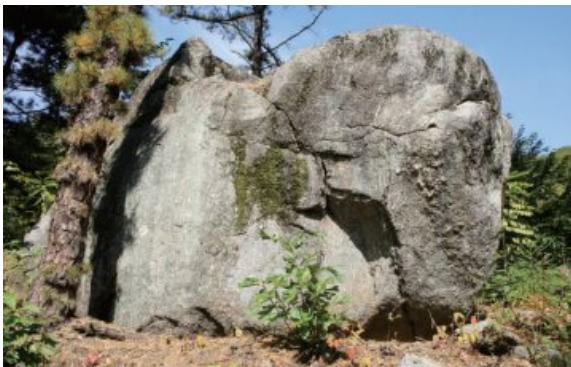




▶ 소반바위 안내판

▶ 소반바위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려다 보면 평평하기 그지 없다.
왼쪽 윗부분에 산신이 지팡이로 찍은 흔적이 있다.



▶ 감투바위 안내판

▶ 감투바위



▶ 감투바위 앞 새재골

감투바위: 덕애골 위쪽 새재길 올라가는 길 오른 편에 감투바위가 있다. 감투바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제보자는 없으나, 안내판에 마을에 내려오는 감투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참 고로 싣는다.



배 형국으로 생긴 섬말

구연자: 서정호(남, 1941년생, 77세, 뱀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서정호 어르신

지석리 노인네들이 얘기하는데, 지석리가 저기 저 서낭당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지금 요 섬말이라는 데, 거기 섬말이라는 데 거기 올라가 보면 거기가 배 형국이라 그래요, 지리상으로. 배, 큰 화물선. 배 형국인데, 배가 짐을 실으면 떠나잖아요, 항구를. 게 거기 보면 처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거에요, 돈을 장만을 하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구 2대, 3대, 많아야 2대, 3대 내려가면 망한다는 거에요. 거기 섬말이라는 데가. (조사자: 섬말?) 섬말. 그래서 거기는 딱 돈을 좀 벌면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가 항구를 떠나기 전에 쟁겨 가지구 갖구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터가 좋다는 거에요. 좋은데 부자가 되면 떠나야 된다. (조사자: 그럼 다른

사람 새로 들어오면 그 때는 잘 살 수 있구요?) 그건 좋은 거지. (조사자:

자: 그 밑에 2대, 3대까지는 살면 안 되고?) 네, 짐을 실었으면 떠

나야지, 그렇대는 거예요.

(이근웅: 이 조래미혈이라고. 집 터도 조래미혈이라고 있다.

게 여자 분들이 쌀을 일어가지구 한 조리 차면 쓸어야 되잖

아. 그런 현상이라는 거야. 게 그 자리에 와 가지구 한 조래미

딱 찻잖아요? 내가 벌만큼 벌었어. 그럼 그 자릴 떠야 된다는 거

야. 조래미혈이라고.)



3. 지석리 마을 민담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이야기 즉 민담은 여섯 편 조사되었다. 제보자는 이근웅 어르신과 장재인 어르신인데 두 제보자가 구연한 이야기 성향이 판이하였다.

이근웅 어르신은 호랑이와 도깨비 관련된 이야기 두 편을 구연하였는데, 두 편 모두 실제 체험에 의한 이야기이지만 전통적으로 신이한 체험담에 속하는 이야기에 해당한다.

장재인 어르신은 거짓말 석 섬과 밥 많이 먹는 마누라, 물에 버드나무잎 띄워 준 처자, 구령덩덩 신선비 모두 네 편을 구연하였다. 그 중 거짓말 석 섬은 옛이야기의 허구적 속성을 드러낸 흥미로운 이야기이며, 밥 많이 먹는 마누라는 여성의 생산성과 여신적 성격을 과편적이면서 희화화한 이야기이다. 물에 버드나무잎 띄워 준 처자는 흔히 왕건 혼인담이라고도 하는 현명한 여성의 혼인담이고, 구령덩덩 신선비는 비천한 남성의 신성성을 알아본 여인이 고된 과정을 거쳐 진정한 혼인을 이룬다는 이야기이다.

두 제보자가 구연한 이야기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근웅 제보자는 전형적인 신이 체험담을 구연한 제보자로서, 장재인 제보자는 여성 구연자이 주로 구연하는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흥미롭게 구연할 수 있는 제보자로서 지석리의 중요한 이야기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호랑이가 바래다 준 사람

구연자: 이근웅(남, 1944년생, 74세, 원승이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이근웅 어르신

지금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거짓말 같은 얘긴데, 지금 여주 땅이지, 금사. 거 충신이 고모가

있어요. 박한신이라고, 충신이 고모부가. 고모가. (조사자: 여자 분이
죠?) 이 덕애골을 넘어서 이 우리 동네 오빠를 보러 오시는데, 그 산 잔
등에서 만났대, 이 산짐승을.

거 여자니까 얼마나 무서울 거야. 아우~ 한 마디로... 그 양반이 와서 말한
거 고대로 말씀드린는데, “이 점잖으신 양반이 하치 못한 인간을 보시고 어
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큰 짐승은 이 눈을 탁 뜨면 이 라이트 모냥 훤히 비
친다네, 앞이. 실지 느껴보지 못한 거 아냐?

우리 고양이하고, 라이트를 탁 키고 가다 보면. 고양이 눈하고 라이트하고 마주
치잖아? 그럼 반사가 생겨. 나도 가끔 밤에 들어올 때 보면 반사가 생겨, 그냥. 서기가 나온다고,
그 놈도. 그러구 어디까지 오냐면, 지석리 서낭탱이, 거기 오더니 그냥 싹 사라지더래. 불빛이 꺼
지더래는 거지.

어둑어둑해서 내려왔는데. 그래 내가 공구네 집에 내가 앉아있는데. 그 때가 아마 10시 정도 됐
을 거야. 저녁. 근데 그냥 옷이 다 젖으신 상태로 들어오셨드라구. 놀랬으니까. 여자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감싸주더래는 거야. 그 얘긴 내가 들었어요. (조사자: 그러면 그 분은, 그 할머니는
무서웠는데, 그 산짐승이 어쨌든 집에 데려다 준 거네요?)

그렇지. 뒤에서 길을 밝혀주더래는 거야. (조사자: 그 눈빛으로, 라이트로?) 응. 건드리지 않았다
는 거지. (조사자: 그 산짐승이 그럼 호랑이인 거예요?) 그렇겠죠. 큰 짐승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늑대나 이건 개새끼 같으잖아. 강아지 새끼 같은 게 여러 마리가 까불까불 요리 뛰고 조리
뛰고 그러면 사람 훌린다 그러잖아. 그 점잖은 거 호랑이, 그런 걸 테죠. (조사자: 호랑이가 착한
사람은 해치지 않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럼 내 얘기 70%는 맞네.



거울개와 도깨비

구연자: 이근웅(남, 1944년생, 74세, 원승이띠)

구연일시: 2017년 7월 27일(목)

구연장소: 지석리 마을회관



이근웅 어르신

서울에 있는 손주아이들이 시골을 내려와서 할먼네 집에 찾아왔는데. 거울개가 반대로 이렇

게 굽을 때는 참 잘 굽히잖아? 거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둑어둑한 데서 밟는대는
게, 거울개 그 넓적하게 굽는 거를 밟아가지구, 마빡 턱 쳐 가지구 발랑 자빠졌다.

“아구, 도깨비가 날 때렸다구.” 거 애가 놀래가지고... 거울개를 딱 밟으면 일어나면서
여기 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빡을 턱 얻어맞고,

“아유~ 할먼네 집에 왔더니 도깨비가 날 마빡을 때렸다구.” 그런 얘긴 들었어요.

* 거울개는 고무래의 방언으로 흙을 덮거나 곡식을 모을 때 쓰는 나무로 만든 T
자형 농기구를 말한다.



우리 아니야...

거짓말 석 섬

구연자: 장재인(여, 88세, 1930년생, 말띠⁴)

구연일시: 2017년 9월 10일(일)

구연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63번지(석동로 62)

제보자 자택



장재인 어르신

⁴ 정재인 어르신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가 고향으로 20살에 지석리 김기환 어르신에게 시집을 왔다. <토박이의 삶>에 자세한 생애가 실려있다.

옛날에 하늘에서 거짓말이 석 섬이 내려왔다. 석 섬이 내려와 가지고 얘기, 옛날에 얘기책 있잖

아. 얘기책에 한 섬은 주고, 한 섬은 중매쟁이가 가지고 댕기고, 한 섬은 얘기로 돌아 댕긴댔어.

(조사자: 아~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하면 그래지. (조사자: 하늘에서 옛날 얘기가 석 섬이 떨어졌다고?)

어. 그래 석 섬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중매쟁이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야 중매를 핸대는 얘기 어. 어? 찔뚝백이 곰배팔이도 아니라고 그래고. 시집갈 때 시집가고. 누구는 앉은뱅이한테 시집을 갔대잖아, 그래서. 잔칫날, 앉은뱅이 일어서서 절을 못 해잖아. 옛날, 옛날에 대례지낼 적에. 그리고 하니까 딴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는 대례를 지내고 간 거야. 그 앉은뱅이는 안 오고. 그래서 자고나서 보니까 신랑자리가 곁에 잣는데 앉은뱅이래잖아.

밥 많이 먹는 마누라

구연자: 장재인(여, 88세, 1930년생, 말띠)

구연일시: 2017년 9월 10일(일)

구연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63번지(석동로 62)

제보자 자택



장재인 어르신

부인이 하도 밥을 많이 먹어서, '일꾼을 다섯을 얻어서 일을 하니까 다섯 명의 밥을 해 와라' 그랬대. 그랬더니 여자가 밥을 다섯 명 걸 해가지 왔더래요.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어라 그러니까 다 먹더래는 거에요, 마누라가.

다 먹고 갔는데, 집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집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신랑이 내려가 본 거여, 밭에서 밭 매다가. 가 보니까는 그 다섯 명의 밥을 다 먹고 내려간 사람이 이 솥에다가 콩을 볶더래는 거에요, 먹을라고 또. 그렇게 부인이 먹는대, 많이 먹는대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서는 그냥 '다섯 명의 밥을 다 먹고 와서도 배가 덜 차가지고 콩을 볶느냐?'고 밭길로 걸어차니 배가 터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 하하하.

물에 버드나무잎 띄워 준 처자

구연자: 장재인(여, 88세, 1930년생, 말띠)

구연일시: 2017년 9월 10일(일)

구연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63번지(석동로 62)

제보자 자택



그 어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선비들이 있잖아요. 선비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지나대니.

뭐 선비들은 농사일을 안 하지. 공부해 본 적, 말하자면 그때도 공무원이 있어야 됐으니까.

그 남자가 하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옷갓을 썩 해고 지나가다가 하니깐 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우물가, 우물을 지나가는데 그 우물가에 여자가 물을 길러 왔더래. 그래서

“아 나, 물,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래니깐. 요려구 여자가 물가에 인자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 버드나무 잎사귀를 훑어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주더래.

그래서

“아, 왜 나무 잎사귀를 훑어가지고 물을 주느냐?”고 선비가 그리고 하니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 급하게 가시는 길인데 이걸 이렇게 잡수시다가 물을 먹다가 체하면은 고치지 못 하는 병이 라고.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넣어서 주는 거라고.”여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고서는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서울 와 과거를 봤는데 장원급제를 했대요. 거 해서 그, 그 여자 생각을 이렇게 해고 보니깐으로. 과거를 보고 올 때는 말을 타고 온 거야. 그 사람이. 오는데, 그 동네를 이제 또 지나오는 거여. 지나를, 동네를 지나 왔는데. 그 여자를 만날라고 저기를 보내가지고 만났어.

그래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래.

“아, 그 분이 장원급제를 했대니까 내가 가서 인사는 한다.”고 나오더래요. 나와서 인사를 해더래. 좀 과거급제를 해서 좋다. 좋다고 그래. 그



런,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을 삼었, 그런 사람을 부인을 삼으면은 내조를 잘 할 것 같아서 그런 여자를 부인을 삼을라고 그 행차 오는 길에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고 태워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지.

구령덩덩 신선비

구연자: 장재인(여, 88세, 1930년생, 말띠)

구연일시: 2017년 9월 10일(일)

구연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63번지(석동로 62)

제보자 자택



장재인 어르신

이 집이, 이 집이 딸이 삼형제고. 그 집이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몸이 구령이야. 얼굴만 사람이 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 가깝게 살어. 앞뒷집으로 사는데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아우~ 그 집 딸이 삼형전데. 그 막내딸이 시집을 보낼라 그러니깐

“난 시집을 더 있다가 간다고, 안 있다고”그래고 있고. 언니들은 둘 다 시집을 갔거든.

그랬는데 그 앞집이 몸은 인제 그러니까 구령이라 그래. 그 엄마가, 구령이 엄마가 하루 오더니 만으로 그 여자앨 보고 그랬어.

“너 저기 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떠냐고?”그러더래. 그래서

“아유, 그 소리 왜 하시느냐고?”그러고 가니깐으로 그 여자가 그런 거여. 그러 니까 하여간 “아유, 글쎄 걔가 너를 색실 삼겠다고 얘길 하느니까 어떻겠나 고?”그러더래. 그랬는데.

그 큰언니가 시집을 가고 둘째는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그 엄마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한 거여. 또. 여자한테 얘길 들어보고. 그리고 인자 도 와서 얘기를 해니깐으로 그 둘째딸이 해는 말이

“아유, 사람도 아니고 구령이한테 누가 시집을 가느냐고?”그러더래. 그



러니깐 동상이

“안 가면 고만이지 왜 남 흉을 하느냐고.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 결혼을 했어. 그래 결혼을 했는데. 몸은 구렁이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막내딸이 보니깐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무신 천상에 죄를 많이 지었던지 간에 구렁이탈을 쓴 거. 몸만 틸을 썼는데. 그런데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깐 ‘암만 봐도 저 허물을 어쨌든지간 벗어야되는데’싶더래.

그래서 ‘그 허물을 어느 날 벗어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고 있었는데. 서울에 과거 본다는 날짜가 퍼진 거여. 선비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구렁이 몸은 가졌을 만정 그 사람도 공부를 한 거야. 그랬는데 그래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만날 며느리 데려다 놓고 얘기 했나봐.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래더래. 구렁이가 하는 말이

“내가 없어도, 내가 허물을 벗어놓고 갈 텐데. 내가 허물을 벗어놓고 과거를 보러 가야되니까 과거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 허물을 벗으면 당신이 이 허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당신 저고리 이 동정 속에다 넣고 해 입으라.”그러더래. 그래서

“그래야 나를 다시 만날 수가 있다.”그러대.

그래서 이걸 다시 만날려고... 참 이 여자가 거. 밤에 남편네가 허물을 벗었더라. 허물을 벗어서 주더래. 그래서 이 저고리 동정 속에다 넣어가지고 입. 입었는데. 그 둘째딸이 가만히 생각해니깐 샘이 난단 말이여. 그 동생이 항상 그 옷을 벗어놓질 않아. 자기 과거 보고 올 때까지 한 번도 벗질 말라고 핸거여.

그랬는데 참, 거 언니가 하루는 오더니, 과거보러 신랑자리 갔는데. 오더니 핸대는 말이

“너 머릴 좀 감으라고”그러더래.

“왜 머릴 감으라느냐고?”그러더니

“머리 감으려면 옷을 벗어놓고 감아야 되지 않느냐?”고.

“옷을 벗으라.”그래.

그 인제 그 동정 뜯어가지고 구렁이 껌데기 태울려고 이 여자가. 그러면 인제 그 남자가 못 오는 거야. 그래 그런 수를 쓴 걸 모르고 이 여자가 자고 대고 머릴 감으라고, 감으라고 물 떠다 놨다고, 감으라고 성화를 해 가지고 인제 그 꾀에 넘어 간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머릴 감으려니깐 저고리를 벗어야지 천상 머리 감으면 젖잖아. 그러니깐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이불 우에다 얹어놓

고 자기 언니는 바깥에 있고, 자기도 이제 바깥에서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나서 보니까 언니가 없어졌더래는 거여.

그래서 '아유~ 이 저고리를 벗어놨는데. 신랑이 벗지 말라고 했는데, 벗어놨는데

어떻게 됐지?'머리를 연능 감은 걸 쥐짜고서는 가 보니깐으로 저고리 동

정이 확 뜯어진 거야. 그랬더니 저 언니가

"내가 왜 니 동정을 뜯느냐?"는 거지, 응? 그리고 야단을 해더래.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찾을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

야. 그래서 못 찾고서는 이렇게 과거 보는 날짜가 끝이 났는데 신랑이 안 오

는 거야. 오질 않는 거여.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그 남잘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래 아래...

그럼 언니가 갖다가 그걸 꼭 태웠거나, 뭐 감췄거나, 지가 입었거나 무신 행동 걸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깐 언니가 괘씸한 생각이 들더래.

"그래 니가 정말 안 가져갔느냐고?"때리고 막 야단하니깐으로

"난 죽어도 안 가져갔다."고 그러더래는 거. 그래 그 이젠 남편 못 만나는 거여, 그 사람을. 그랬는데 달이 한창.... 그래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서울을 가는 거여, 그 여자가. 신랑 찾으러 가는 거여.

그랬는데 가다가 옛날이니까 이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자잘 수도 없는 거잖아. 가다가 해는 저물고, 이제 보름달이 밝았었던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이를 가다가 보니깐으로 집이 좋은 집이 있더래요. 서울 가는 길인데. 그 집 행랑에, 그 집 주인한테 얘길 안 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깐. 옛날에 소 여물 쓰는 이런 광이 있었어요. 여물 쓸어 담는 광이 있었는데, 그 여물 광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이 여자가. 자고 있으니깐 달이 한창같이 보름달이 밝더라는 거야. 보름달이 한창같이 밝아서 그걸 이렇게 내다보고서는 노래를 지었어.

"우리 서방님은 저 보름달을 보고 있으렸만은 나는 이렇게 서방님을 볼 수가 없는데. 십오야 밝은 달아 너는 우리 서방님 좀 봤으면 얘기 좀 해달라."

그 노래를 불르는 거여. 노래를 불르면서 그 달을 이렇게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이서 나오는 기 자기 남편이여. 그 과거 보고 오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를 못 가는 저거가



됐어. 그 허물을 탄 냄새를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안 오고 그 정승의 집 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보니깐 그렇게 하는 거여. 그래서 소변을 보러 바깥을 나왔다가 원 소리가 들려서 그 햇간엘 이렇게 가서 보니깐 원 젊은 여자가 보따리를 끼고 앉아서 달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청승맞게 해더라는. 그래서 ‘기만있어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있을까?’ 들어오다가 생각을 하니깐 아니여.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으니깐 살았겠지. 내 허물을 태웠을 리는 저 여자가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되면 천상 뭐 정승이니 아. 그런 과거를 봐 가지고 급제를 했으니깐 정승들이 자기 사우 삼을려고 하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여자가 마음에 걸리는데, 볼 수가 없지. 내가 갈 수가 없이니깐.’ 그 고을의 정승이라면 못 간다는 거여. 딴 데를 못 가는 거지.

그랬는데 그래 그 노래하는 게 그 가만히 들으니까 목소리도 듣던 목소리 같았고. 그래서 가서 “여보세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남 깜죽거리에 와서 주무시고, 그렇게 달을 보고 그렇게 처량한 소리를 해느냐?”고 그러니깐,

“네. 난 이래고 저래고 이래고 저래고 해 가지고 아무 데 살았는데, 그렇게 남편네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언니가 내 동정을 뜯어서 가서 태워서, 그래 서방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을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해더래잖아.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정승한테 그런 얘길했더니 정승이 마누랄 둘 다 데리고 살아래는 거. 이 분은 큰댁네고, 자기 딸은 작은댁네고. 그래서 그 고을에 저기가 됐이니깐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머니가 있느냐?” 그러니깐
“어머니,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고 그러더래.
“그럼 어머니도 오시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살자.”고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들었지, 듣기는.





지석리 마을과 함께 한 토박이의 삶

지석리 마을에는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토박이의 비율이 아직 1/3 정도 되며 선조 때부터 대대로 지석리에서 삶을 일군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뵐 수 있었다. 지석리에서 소박하고 진솔하게 삶을 꾸려나간 분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이 장에서는 세 분의 생애를 정리하였는데 이 분들의 삶을 통해 지석리의 과거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생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김진황 어르신은 지석리에서 5대째 토박이 삶을 살고 있는 분으로, 수광 3리에 살던 선조가 지석리로 이주한 내력, 6.25 때 국민병으로 차출된 경험, 지석리의 두레와 상여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자식과 손주들을 지극히 살핀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의 삶과 지석리 역사 그리고 변화한 시대에서 가족의 역할과 의미 등을 복합적이면서 연속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된다.

장재인 어르신은 사실 그의 부군인 김기환 어르신께서 마을에서 최고 고령이면서 옛날에 두레소리와 상여소리를 잘 하셨다고 해서 조사하러 갔다가, 김기환 어르신이 귀가 너무 어두워지셔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장재인 어르신께 조사하다가 그 생애를 통째로 듣게 된 경우이다. 고향 강원도 횡성에서 20살에 지석리로 시집 온 장재인 어르신은, 어렸을 때 고향에서의 특별한 생활, 지석리로 시집와서 겪었던 물난리에 대한 생생한 기억, 집안일이건 논일이건 가리지 않고 잘 해 냈던 적극성과 손재주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의지로 지석리로 시집오게 된 내력, 고령임에도 지석리 생활을 상당히 건강하게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여성의 삶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면모

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서상수 어르신은 현 서학원 이장님의 부친으로, 조부 때부터 지석리에서 살게 된 3대 째 토박이이다. 잘 살아보겠다는 포부로 소 한 마리로 시작한 축산업을 100마리까지 확장하고, 1970년대에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연 상수도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오는 등 근대화 작업에 적극적이었으며, 현재도 마을의 개발과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서상수 어르신의 삶을 통해 지석리의 근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을 생활 편이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지금까지의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향후 지석리 마을 청사진 제시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지석리 5대째 토박이, 김진황 어르신

김진황 (金鎮滉, 남, 88세, 1930년생, 말띠)

면담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75-4번지
(석동로 76-26) 제보자 자택

면담일: 2017년 7월 28일

조사자: 시지은



김진황 제보자

어르신 고향은 어디세요?

내 고향은 여기 지석리이다. 고조부 때부터 증조부, 조부, 아버님도 모두 여기서 사셨으니까 내가 5대째 지석리에서 살고 있는 거지. 자녀와 손주까지 하면 7대째 지석리 토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성함과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김규완, 어머니 성함은 김조목이에요. 형제는 2남 4녀 6남매 중에 내가 셋째고, 위로 형과 누나가 있고 손아래 누이가 셋이에요.

고조부께서 지석리에 처음 들어오신 건가요?

내 고조부께서는 지석리에서 가까운 수광3리 섬말에서 사셨어요.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내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행랑채가 있는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리이고 큰집이었다. 우리 집안이 잘 살았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라에서 국장(國葬)이 나서, 임금은 아니고 부원군이나 이랬던 거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지관이 돌아다니며 봇자리를 구하는데 우리 집, 원집 그러니까 큰집 뒤틀에 있는 장독대가 명당이라고 지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묘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산과 농지를 주고 이곳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당시에 거기서 살았을 때 거기에 농토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 집을 내 주고 이쪽으로 올 때에 대토로다 준 것이 지금 저기 앞집인데 저 집으로 이사를 시켜서 왔대요. 그게 우리 선대 고조부고, 내가 5대 째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여기가 터전이 된 거죠.

수광3리 그 집 장독대 자리는 그럼 명당이 된 거네요?

그렇지. 장독대를 명당자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수광리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집안네도 그 근처에 살고 그래서 시제를 지내려 간다든가 해서 지나다니며 봤는데, 그때도 그 자리에 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썼던 묘가 아니고, 그 묘는 다른 데로 이장을 해서 가고 그 자리를 딴 사람이 가져다 썼대요, 명당자리라고.

그 집이 원래 행랑채하고 인채하고 있었는데 인채는 없어지고 행랑채는 이렇게 산소 수(守)하던 사람들. 산소 지키던 묘지기가 살던 집으로 썼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집에 늙은이들이 살았었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묘도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 집은 아예 없어지고.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들으셨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지요. 아버지한테도 듣고,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까지 계셨으니까. 아버지, 큰아버지 다 이 동네서 다 사셨으니까. 고조할아버지가 이 동네 오셔서 아들을 3명 낳아서 증조할아버지가 세 분이 되고, 이 동네에 그 세 집이 퍼져서 살다가 다 나가고 우리 원 큰집인 내 사촌은 지금도 여기서 사는데 저 아랫집에서 살아요. 그 사람도 그 터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집이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아뇨, 6.25때 폭격을 당해서 전소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집이에요.

어르신, 어디 김씨세요?

청풍김씨예요. [청풍김씨는 어디에 많이 살아요?] 각지에 많이 사는데 서울도 많이 살고 저 전라도에 많이 산다고 해요. 장흥군 부산면하고 보성 그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태어나고 80년 넘게 사셨는데 6.25때 이 마을에 폭격을 맞거나 하진 않았나요?

폭격 맞는 거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21세 때 6.25가 나서 그해 겨울 12월에 제2국민 병으로 나갔는데, 저 아래 통영으로 갔다 왔어요.

6.25 때 국민병으로 차출되어서 나가신 거죠?

그럼. 당시에 나는 서울에서 덕수상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 전부 서울서 피난 나갔고 나도 거기서 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 하고 같이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기류계(寄留屆)⁵를 서울로 옮겨 놓았는데, 그래서 기류계를 보고 차출을 하는 거지. 내 기류계가 서울로 가 있었으니.

6.25때는 여기 사람들이 피난 간 사람들도 있는데보통 시골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시골사람들은 월 모르기도 했고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피난을 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북으로 전부 끌려갔지요. 중공군이 이

.....
5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서 30일 이상 머물러 살며 주소 또는 주거지를 갖는 것을 관할 관청에 보고 하는 일.

동네까지만 내려왔는데, 저 뒷산에 진을 치면서 밤에는 동네로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숨고 그랬어요.

그럼 밤에는 중공군이, 낮에는 국군들이 다니고 그랬나요?

국군은 들어오지 않았고 중공군만 들어왔었는데, 먹을 것을 구하러 밤에 내려와서 먹을 것 가져가고 훔쳐가고... 근데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어. 낮에는 비행기가 뜨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자를 못하고 산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공군이 더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중공군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나쁜 일은 없었나요?

이 동네에 중공군한테 죽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없었는데 6.25때 중공군 내려오기 전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의용군으로 뽑아갔지. 인민군이 여기까지 내려 왔으니 인민군 정치를 할 거 아니야. 이북 정치를 하니까 이제 없는 사람(가난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람(부자)들은 다 불들어 갔어요. 인민군들이 여기 있으면서 의용군 모집을 하니까 자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그냥 불들려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엄청 많이 나갔어요. 의용군으로 나가기만 했지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는지 소식조차 모르죠. 북으로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한 사람도 소식조차 없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렇게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르신은 그 다음해에 국민병으로 차출이 되신 거네요?

아니, 그 해죠. 1.4후퇴 그때가 1월 4일이니까. 우리는 서울서 12월 몇 일에 나갔어. 여기 사람보다 우리가 며칠 먼저 나갔는데 서울이 여기보다 이북에서 더 가까우니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보다 며칠 늦게 나갔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걸어서 19일 만에 통영을 도착하고,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올라왔어요. 거기서 현지 입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네는 몸이 약해서 신체검사할 때 떨어져 현지 입대를 못했고.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니 집에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통영 가서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밀양 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도 거기서 현지 입대한 사람이 많이 있

었다 그러더라구요.

서울에서 제2국민병으로 차출돼서 19일 만에 통영을 가시고 얼마 만에 돌아오셨어요?

거기 있다가 나중에 유엔군이 서울 수복하고 이리 왔죠. 이 집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차출을 당했어도, 부모, 형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집으로 돌아왔죠. 당시 우리 집도 여기서 살다가 피난을 갔는데, 우리 외갓집이 충준데 거기로 피난을 가서 살았어요.

피난 살다가 식구들은 충주에서 여기로 먼저 올라오고 나는 충주로 해서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통영에서 올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오다가 자꾸 제 집, 제 집 찾아가니까 뿔뿔이 헤어지고, 버스나 차를 잡아타면 다행이고 차 못 타면 걸어와야 하는데, 나는 중간에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충주 갔다가 열흘 정도 걸려서 집에 왔어요.

가족들이 충주 외갓집으로 피난 간 걸 어떻게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오다가 외갓집이 거기 있으니까 외갓집에 간 거예요. 큰 길을 조금 비껴서 들어가면 외갓집이 있는데 어려서 외갓집을 다녔기 때문에 외갓집이 거기 있는 줄을 알고 있었죠. 외갓집을 가니까 다른 식구들은 수복을 해서 다 올라왔고 어머니만 거기에 계셨어요. 어머니는 염병이라고 장질부사를 앓고 있어서 기운이 없어 함께 오지를 못하고 친정 부모님이랑 거기 계시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서로 죽은 사람이나 만난 듯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머니가 거기 계신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내가 그 곳에 올지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나는 오다가 다리도 아프고 어디서 쉬기도 하고 자고 와야 하니까 외갓집을 찾아 들어간 건데 어머니가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병은 나았지만 기운이 없으시고, 나도 한 사나흘 정도 원기를 회복해서 어머니랑 함께 걸어서 올라왔어요. 어머니도 혼자는 못 오셨을 텐데 내가 있으니까 같이 걸어서 왔어요.

그러면 1950년 12월에 나가셨다가 어머니랑 같이 돌아온 게 언제쯤이셨어요?

4월달이요, 51년 4월. 집에 오니까 다른 곳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우리처럼 군민 병 나갔던 사람들은 안 온 사람이 많아요. 혹 가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떨어져서 먼저 보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신체검사를 해서 떨어져서 오고.

서울에서 덕수상고를 다니다가 국민병으로 가셨는데 덕수상고는 다시 못 가셨어요?

그 후에 못 갔지. 그래서 졸업을 못했어. 중학교 과정이 6학년이었는데, 5학년까지 다니고 못 다녔어요.

그럼 고향에 돌아와서 뭐 하셨어요?

돌아와서 할 게 없었어. 돌아오니까 보국단인가 군대 작업대로 뽑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군대 징집으로 가는 거. 여기 부대가 많았어서 작업대를 뽑아 가는데, 그거 피해서 가느라고 숨어서 있다가 영국 부대를 갔다. 당시 영국부대가 여기 수광리학교에 있었거든요.

영국 부대가 뭐예요?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했잖아. 연합군 중에 영국군이 여기 수광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를 내가 쫓아가서 영국 부대 안에 들어갔어. 부대에 들어갔는데,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심부름해주고 그런 거 했어요.

군인이 아니면 월급 같은 건 받으셨어요?

그렇지. 군인은 아니고 월급은 얼마 줬는데 얼마를 줬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 그 부대가 여기 있다가 일선으로 들어갔죠. 근데 내가 일선까지 쫓아갔어요. 저 개성 근처 고량포라는 데가 있어. 고량포에서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마도 이북 땅일 거에요. 거기 전선이 있으니까 전선까지 간 거에요. 그 부대가 박격포 부대였는데, 큰 포는 후방에 있지만, 박격포는 전방에 가서 있는 거거든요. 적군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부대에 내가 가서 1년 정도 있었는데, 시원치 않아서 집으로 도로 왔어요.

그럼 지석리로 오셔서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지었지요. 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아버님은 선비라서 농사를 모르시고 머슴을 두고 농사

를 지었어요. 집에 땅이 많으니까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으신 거죠, 자기 손으로 안 짓고.
그런데 나는 얼치기라서 농사꾼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학교 다니다가 웠으니 월 알아야지.
영국군에 가 있다가 집으로 와서 바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집에 와 있다가 또 군인을 갔어요.
돌아오니까 또 군인을 가야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원해서 24살에 공군으로 갔죠.

공군을 어떻게 가셨어요?

육군보다 좀 편안할까 하고 갔죠. 얘기 들어보니까 육군은 엄청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또 육군은 직접 총질하고 싸워야 하니까 조금 편한 대로 가려고 공군으로 갔어요. 그 때 공군이 만 3년, 36개월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총을 쏴 보고 그 외에는 총을 쏴지 않았으니까, 총 쏴는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서 행정부대에서만 있었어요.

어르신 공부하고 가셔서 행정병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공군은 시험을 봐야 들어가니까 대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이에요. 영어는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한문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군은 육군이랑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 영어고, 책이나 서류도 영어로 된 게 많아요. 내가 영어로 얘기는 할 줄 몰라도 대충 간판 같은 거는 봤어요,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24살에 공군 입대하셔서 27살에 제대하셨으면 혼인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27살에, 제대하기 전에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다 아는 처지야.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아니까, 중매고 뭐고 그냥 얘기가 나오자마자 맞선을 보는 거지. 그거는 내가 군대가 멀리 있지 않고 서울에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내가 '공군본부 서울 본실'에 있다가 본부로 들어갔어요. 27살, 본부에 있다가 2월에 혼인을 하고 9월 1일에 제대를 했어요. 내가 24살 7월 23일에 군대를 갔으니까 만 3년이 좀 지나서 제대를 한 거네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 하세요?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군대생활 한 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27살이니까 56년인가 그때 우리 군대생활 할 당시는 단기를 썼다. 단기로다가 4289년에 내가 제대를 했어.

할머니는 그럼 몇 살에 혼인하신 거예요?

23살에 혼인 했고 나하고 4살 차이가 나오. 이곳에서 십리 거리인 백사면 경사리라는 곳에서. 이름은 이갑노인데 끝 글자가 돌림자. 갑자는 갑옷 갑(鉛), 노나라 노(魯).



▶ 김진황, 이갑노 어르신 내외



▶ 김진황 어르신 자택

두 분 다 혼인을 일찍 하신 건 아니네요.

늦게 했지, 아주 만흔이고. 그때는 20살만 되면 다들 결혼할 땐데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느라고 못했지. [이갑노 할머니: 우리 집안에는 살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때까지 혼인을 못했어요. 올케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올케가 일찍 돌아가서 살림꾼이 없어 혼인이 늦어졌어요. 6.25후에 그때 장질부사가 나서.]

제대하고 나서 무슨 일 하셨어요?

벼농사죠, 여기는 벼농사밖에 없어요. 농사 외에 다른 일은 안 했어요. 65세까지 농사만 지었어요. 한 20마지기도 짓다가 15마지기도 짓다가 나중에는 열댓 마지기 짓다가 그건 남을 주고,

그럼 지금은 땅을 다른 분이 부치시는 거네요. 여기는 한 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한 마지기가 2백평. 그리고 이제 밭까지 해서 한 5천평 되나 봐요. 지금은 남 주고 농사를 못 해요. 그 전에 밭에는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별거 다 심었어요.

지석리에서는 과수는 별로 안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과수도 없고 특용작물도 없어.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밭도 조금씩하고 논농사가 많지, 대개 논농사야. 그래서 밭도 논으로 만들어서 주로 논농사를 짓지. 밭이 별로 없어요. 과수원도 없고 특용작물도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어야 그저 조금씩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없어요.

이천이 언제부터 쌀로 유명해요?

예전서부터. 우리 어려서부터 여주이천 자채쌀. 여주이천 자채쌀이라는 게 조생종이거든. 그게 일찍 나는 거니까 보리쌀만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여주이천 자채 쌀이 라는 게 유명했거든. 그런데 자채쌀은 없어지고 지금은 신품종들 심는데 토질이 좋아서 논농사는 적지야. 그래서 미질이 좋아서 이천 쌀을 치지.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더 받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농사를 잘해서라기보다 땅이 좋아서 미질이 좋고 워낙에 여주이천을 치잖아요.

어르신은 슬하에 자녀는 몇을 두셨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3남매에요. 예순 다섯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내외가 다 서울에서 공무원 하는데 아이 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 두고 애를 보는 것 보다. 내가 늙어서 농사도 못하고 해서 첫 손주를 여기 데려다 8살까지 길렀어요. 손주가 8살 되니까 학교를 다녀야 하고 1학년 아이가 한나절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고 그래서 내가 서울 올라가서 돌보고 그랬어요. 학원도 보내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큰 며느리가 10년 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럼 큰 아들네서 몇 년 사셨어요?

10년. 금요일 날 저녁에 지석리 내려와서 월요일 새벽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큰 손주가 동기간이 없어서 외로울까 염려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을 더 낳았어요. 근데 그거 역시 빨가댕이니까 여기 데려올 수도 없고 해서, 내가 거기서 큰 아이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갓난아이는 내가 우유를 먹여서 길렀죠. 둘째 그거 7살까지 키워놓고 나는 이제 내려왔지. 초등학교 들어가고, 큰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할머니는 여기 혼자 계시구요?

여기 혼자 있고, [이갑노 할머니: 나도 여기서 하는 게 좀 있었지.] 여기 논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씩 했었어. 나는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농사를 혼자 했었지.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할아버지 별로 없으신데.

내가 금요일에 저녁에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서 집안에 일을 보고 월요일 새벽 첫차로 올라가는 거야. 월요일 큰 아들 내외 출근하기 전에 애들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 애들을 데리고 내가 학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보통 유치원에는 차가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러잖아. 그런데 애들 엄마가 우체국에 있는데 우체국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유치원이 따로 있어서, 싸고 하니까 거기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부모들이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다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니까 그때서 나는 아주 내려오게 된 거죠. 서울 올라가서 손주들 다 키우시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75세에 내려 왔어요.

그러면 작은 아드님 얘기들은요?

거기는 군인이었었어. 군인 장교라 작은 며느리는 직장을 안 다니고 애 키우고 살림을 했지.[이갑노 할머니: 그러지 않아도 샘을 하더라고.] 그래 샘을 하지. 큰아들네 손자들은 둘씩이나 길러주고 제 자식은 하나도 안 길러 준다고 그러지.

그런데 저도 자꾸 돌아다니니까. 장교들은 3년에 한번 돌아다녀요, 자꾸만. 일반 사병은 제 부

대에서 제대를 하는데, 장교들은 안 그래. 한 3년 되면 저리 가고 한 3년 되면 저리 가고. 그러면 서 애들을 같이 데리고 돌아다니지.

지석리 지형 때문에 지석리에 큰 인물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좌청룡 우백호로 따지는데 한 쪽이 터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길이 막혀 있어 저 앞에서 보면 이 동네가 안 보이죠. 이 동네가 뒷쪽에 큰산이고 양쪽에 산이 있어서 삼태기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앞만 트여 있어요.

마을에 두레패가 나가는 건 보셨어요?

봤지. 이 동네 그게 유명해요, 그 농기라고 그러지. 농악이라고 그러지. 모심을 때 앞에서 먼저 선소리로 주고 그 뒤에서 후렴으로 따라 하는 게 농악. 농요거든, 농요. 그거 했지. 20년전 까지도 했지. 그거 하면 일이 아주 수월하고 힘이 안 든대. 힘이 안 들고 농부들이 신나지. 박자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일도 능률도 나오. 갈 때 두드리며 가고 올 때 두드리며 가고. 일할 때는 선소리꾼 하나가 북 들고 논배미에 들어가서 선소리를 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후렴을 하고 그랬지.

상여 나가는 거는 언제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마을에 상여가 있었지요?

마을에 상여가 있어서 몇 해 전까지도 상여가 나가곤 했어요. 저 아래 공장 앞에 곳집이라고 있었는데, 2013년도 물난리로 떠내려갔어요. 2013년까지는 마을에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이 있어서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그 상여를 가져다 쓰곤 하고.

상여를 사용하고 태우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녀, 아녀. 동네에서 두고두고 초상이 나면 가져다 쓰고 그랬지.

상여 멀 때 이쪽에 몇 명 저쪽에 몇 명 씩 메는지요?

그건 정한 게 없다. 사람이 많으면 많이 메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메는데 한쪽에 5명씩 10명이

멜 때도 있고 한쪽에 6명씩 12명이 멜 때도 있지. 예전에는 이 동네가 큰 마을이라서 보통 12명이 몇었는데 이 후에는 사람이 적어서 10명이서도 메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의차로 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고.

여기는 상이 나면 묘를 주로 어디다 쓰는지요?

예전에는 주로 자기네 산에 많이 썼죠. 지금도 자기 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네 산에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로 공원묘지로 가요.

상두꾼들이 산에 가서 뭘 해요?

산에 차일을 치고 상여에서 시신을 내려서 조문 받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집으로 조문을 못 왔던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조문을 하니까. 하관도 시간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관 넣기 전에 조문을 받아요.

상여 메고 갈 때는 선소리꾼이 소리 메기면 메고 가는 사람은 똑 같은 소리로 후렴을 같이 해요. 선소리는 총기가 좋아야지 하는 거고, 회관 밑에 집에 그 사람(김기환 어르신) 참 잘했는데 이제 늙어서 못해요. 그 집 할머니가 그거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하관을 하고 흙하고 회하고 섞어서 하는 거는 회방이라고 하고, 막대기하나 들고 하는 거는 달 고라고 하고.

2. 강원도에서 시집 온 재간꾼, 장재인 어르신

장재인(여, 88세, 1930년생, 말띠)

면담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63번지
(석동로 62) 제보자 자택

면 담 일: 2017년 9월 10일

조사자: 시지은



장재인 제보자

마을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옛날이야기를 잘 아시고, 할머니도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잘 몰라요. 사람은 듣고 보는 게 많아야 하는데 내가 뭘 아나?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올해 88세에요. 말띠고. 고향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예요. 면소에서 나오는 첫 동네는 못두둑, 그 다음은 구샛돌, 우리가 살던 동네는 웃쌍터라고 했어요. 아랫쌍터, 웃쌍터 그렇게.

지구리나 웃쌍터는 왜 그렇게 불렸어요?

지구리, 웃쌍터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어렸으니까 모르지. 웃쌍터는 여기보다 더 산골이라서 산 중턱에 집 하나씩 있었어요. 학교도 멀어서 못 다니고.

형제가 많으셨어요?

형제가 많았어요. 2남 5녀 중에 내가 셋째 딸이었는데, 예전에는 15살에서 17살이면 시집을 갔는데 나는 20살 안쪽으로는 시집을 안 간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총각한테 시집 못 간대는 거야. 재취감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

고 할머니들이 텃구랭이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시집가기 싫으셨어요?

우리 언니들도 시집가기 싫어했어도 15, 16살에 시집을 갔어. 내가 언니들한테 '야, 이 천치야. 아버지한테 시집가기 싫다고 그래'그랬어. 언니가 뭐라고 말하면 '범도 날고기를 먹을 줄 알아 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고 그런다. 설마 하니 아버지가 너희 어떻게 하겠나. 안 간다고 해 라. 울고 그러지 말고.'라고 그랬다.

난 여자라도 큰언니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둘째 언니하고는 3살 차이거든. 둘째 언니가 자꾸 울고 그러면 밑에 6살 난 여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작은 언니가 저렇게 울고 그러니까 셋 째 언니를 시집보내'라고 말하기도 해서 동생한테 화를 막 내고.

난 산골에 시집가기 싫었어요. 산골에 시집을 가면 맨날 밭이나 매고, 길쌈이나 하고, 일년에 누 예를 몇 번이나 쳐야 하는데 그러기 싫었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을 안 했어. 근데 여기에 시집을 왔는데 색시를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색시가 시내에서 왔나 봐. 피부가 곱다'라는 말을 하더라구.

셋째 딸이라 예쁘다고 소문 났을텐데, 그럼 시집은 언제 가셨어요?

근데 그 산골이 싫어서 도시로 시집을 가고 싶었어. 그래서 외숙이 여주 능서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외숙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때 여주 능서만 해도 도시였지, 강원도 같은 산골이 아니었고. 그래서 외숙이 사람을 봐 두었다고 해서 여주로 왔지.

그때는 선보던 때가 아니었는데도 외숙을 따라서 내가 신랑감을 직접 확인하러 왔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외숙이 봤다고 해도 꼭 확인한다고 내가 우겼어. 곰보팔인지 눈이 멀었는지 모르잖 았어? 거기서 여주 능서가 40리였는데 그 길을 걸어서 왔어. 그 쪽은 집안의 형이 중매를 해줬 다고 하더라구.

보니까 배우고 안 배운 것은 몰라도 외향은 괜찮았어. 또 외삼촌댁에 와 있으면서 안 간다고 하 면 외삼촌이 걱정하시니까 시집을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하면 외삼촌도 속상하고 강원도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강원도에서 여주까지 3일을 걸어왔는데, 외숙 집안네 되는 사람 집에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트럭을 타고 신작로를 20리 오기도 하고, 트럭에서 내려서 걸어 여주 능서 장수동에 도착하니 해가 져서 껌껌하더라구. 횡성에서 여주까지는 외삼촌이 신랑감 봐 뒀다고 데리러 온 거지, 그래서 외삼촌이랑 같이.

그럼 혼인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살 설달 열여드렛날인가, 열엿새날인가? 그 날 결혼을 했어. 스무살 안 넘기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먼 데서 시집을, 가마를 타고 와보니까 여기도 강원도와 똑같은 산골인 거야. 여주로 이 양반이 선을 보려 온 거고 집은 여기 지석리니까 결혼식을 여주 외삼촌 댁에서 하고 가마를 타고 여기 지석리로 왔거든.

할아버지 고향은 지석리인가요?

할아버지(김기환 어르신) 고향이 여기고, 시부모님이 살던 곳이지.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인동 장씨. 이름은 재인이야. 장재인.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 주신 건데, 딸들 이름을 재란, 재형, 재인, 재수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1930년에 태어났고. [부모님 성함 기억 나세요?] 어머니는 경주 김씨였는데 이름, 택호 이런 건 기억 안 나고, 아버지는 성함은 장대용이야. 그 밑으로 2남 5녀인데 내가 셋째 딸이지.

지석리에 시집 와서 살면서 큰 홍수를 겪으셨다면서요?

한 번은 우리 좀 와 가지고, 저런 데 전자(田地)가 좀 물하고 그런 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물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에 사람 사는 집이 떠내려갔어. 저 공터 있죠? 풀 많은 데, 우리네 폐품 갖다 놓고 하는 거기. 거기에 있던 집이 떠내려갔어. 거기 집이 있었고, 지금 쓰레기 갖다 놓는 데가 정미소, 벼 짚는 방앗간이 있었고, 거기에 집이 세 채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쓰레기 놓는 데가 정미소, 벼 짚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어느 해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정미소가 떠내려

갔어. 정미소가 가에 있어서 그거만 떠내려갔지.

[몇년도 쯤인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지. 시집오고 할아버지가 군대 가고 나서 니까 6.25사변 나고서 한 2년 있다가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는 또 물이 좀 많이 내려서 가장자리, 길 그런 게 다 패여 내려가고 산사태도 나는 물 난리를 겪었고. **[그건 언제쯤이에요?]** 여기가 한 2년이나 3년만큼 그렇게 큰 물이 내려가더라고. 우리가 저 산골짜이 작은 오막집에 살았었는데 이 터에 이사 나와 갖고서는 요번하고서 2번 큰 물을 겪은 거지.

이 집으로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이사 오던 해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해에 이사왔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사 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야.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때가 79년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내가 기억이 똑똑히 기억 안 나.

이 앞에 다리가, 몇 해 전에 홍수로 다 떠내려가서 다시 지은 거잖아요?

4년 전에, 올해로 4년 됐어. 그 때가 제일 큰 물이었지.

그 때 물가에 있던 집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서 계단이 다 묻혔어, 계단까지 물이 차고. 집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장광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와장창 하더니 항아리가 다 쓰러진 거야. 그게 담에 걸려서 항아리가 떠내려가지도 못 하고 둉둥 떠다니고. 근데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내다보고만 있지. 어떡해?

그랬는데 물이 그렇게 들어오니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하나도 안 다. 애들은 회사 가고, 며느리도 회사 가고 없고. 아들은 나갔다 와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방에 있던 벗가마니를 이쪽으로 옮겨뒀는데, 옮겨놓고 나가니까 회관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했었는데 구두 가 떠내려가고 없는 거야. 마당에 놔두었던 차를 팔각정 지은 곳에 옮겨 두고 집에 와보니까 개울, 둑이 터져서 물이 다 우리집으로 쏠려오고 있는 거야.

저기 검은 대문 있죠? 그게 원래 드나드는 정대문이었는데 흙이 가득 차서 포크레인을 가지
고 이틀을 파냈어. 그래서 그 문을 잠가버리고 지금처럼 새로 문을 낸 거지.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다 빠졌어요?

아, 이제 뒤에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고 그치니 물이 차츰차츰 줄어 내려갔지. 아침 8시쯤
돼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아침 먹기 전에는 비가 많이 쏟아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비
가 오긴 했는데. 며느리는 직장에 가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오니 마당에 물이 차더라고.

할아버지가 둘째 손주를 안고 대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 ‘비켜나라고, 물에 빠져 죽을 일
있느냐?’고 끌고 들어왔어. 그때 할아버지 허리까지 물이 찼었거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는 그
리고 대문을 활짝 여니까 흙이랑 물이 확 들이닥쳐서 지하실, 장광에 전부 물이 찬 거야. 장항아
리도 떠내려가고 담에 걸리고.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래서 담을 헐으면 물이 빠질 것 같아서 나가 갖구 담을 헐으려고 보니까 담을 헐면 바깥의
물이 더 들어올 것 같아서 담을 허물지 못 했지. 바깥에 하우스 지은 곳에 있는 100평 밭이 있
었는데 지금은 개울을 넓혀서 지금처럼 저렇게 조금 남았다. 옛날에는 개울이 좁았으니까 100
평이 됐는데.

담을 못 헐고 들어와 가지구는 나중에 물이 빠지고 아들이 와서 담을 헐어서 트랙터로 흙을
끌어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방방에 세간, 엄청 많은 물건이 있었고,



▶ 김기환, 장재인 어르신 자택, 옛 집은 창고로 쓰고 있다



▶ 김기환, 장재인 어르신 자택, 옛 집 옆에 자은 새 집

지하실에 있던 가전제품 전부 다 망가지고, 벼 쫓아먹던 기계나 고추 말리는 기계 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이튿날 방송을 보니 방바닥에 있는 장판을 걷은 사람만 보상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상이 없다고 하는 거야. 집안까지는 물이 안 들어와서 보상을 못 받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집 짓기를 잘 한 거'라고 그랬어. 옛날에 살던 집은 땅 위에 바로 지었었으니까. 이렇게 높게 지어서 그래도 지하실에는 천장까지 물이 찼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들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왔더라고. 오는데도 물이 내려가고 다리가 막히니 다 물하고. 그랬는데도 저짝 동네로 해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 '너 어떻게 왔니?' 물으니까 '앞으로는 못 와요. 물이 많아서. 저기 도암리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와서 지하실 물을 퍼내는데, 닷새를 물을 퍼냈어.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다리를 새로 놓은 거예요?

그 해에는 못 놓고. 그 해는 다리 놓을 시작도 못 했어. 그 이듬해 2월부터 시작했는데 1년에 다리를 다 못 놓더라고.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년 걸렸어요. 개울을 넓히고 둑을 높게 쌓아야 하니까 시에서 우리 땅을 50평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우스 위치가 그 땅인데 그래서 지금은 50평 못 되게 남은 거지. 개울 쪽으로 내려간 게 50평 정도, 다리 밑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땅 값은 시에서 보상해 줬어요.

다리 놓고 나서는 비 많이 와도 겁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겁 안 나. 지금은 저 다리를 넘을 게 없어. 옛날에는 이 길을 넓혀야 하는데 차가 다니니 넓힐 수가 없었다. 이 개울 위를 둑을 쌓아서 그 가장자리를 돌로만 쌓아서 신작로를 내고 길을 넓힌 거지.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돌이 힘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서 저 위의 물이 개울로 못 가고 우리 집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절단 많이 났지.

그렇게 하루만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많이 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는 비가 그쳤어요. 그 이튿날부터는 비가 안 왔는데, 논밭도 많이 묻히고.. 우리도 논 한마지기가 물혔는데 그까짓 거 얼마 안 된다고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신청도 안 했어.

20살에 시집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이) 군인 가서 4년 만에 제대를 했어. 6.25나고 이듬해에 군대에 갔으니까. 22살에 큰 딸을 낳고. 6.25 난리는 별안간, 남한은 준비가 없이 있었는데, 북한은 무기를 38선에 가져다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날이 일요일이라 군인들도 모두 휴가를 나오고, 군대에 사람이 없고, 전방에도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 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서울까지 온 거야.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인들도 휴가 나가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걸릴만한 것이 없었지. 밀고 들어오니 실탄 좀 있는 것으로는 막을 수가 있나? 그 난리를 겪고 이듬해에 군대에 갔어. 전쟁 중이었고 거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전쟁 시작할 적에 군대에 가서 휴전이 되고 나서야 제대를 했지. 그래서 지금 참전용사로 있는 거야.

할아버지 군대 가시고, 22살에 큰딸 낳고 어떻게 사셨어요?

시댁에서 같이 살았지. 시아버지하고 맏동서하고. 시어머니는 안 계셨고, 8년 동안 시댁에서 산 거야. 큰딸이 5살 때 세간을 났는데, 방 한 칸짜리 아주 작은 오두막으로 갔어. 딸 둘 낳고, 그러니까 둘째 딸을 낳고 세간난 거지. 지금은 딸셋에 아들 둘, 5남매야.

시집살이는 안 하셨어요?

맡동서하고 살아도 8년 동안 한 번도 말싸움을 안 했어. 영감님하고는 다퉈도 다른 사람이나 이웃하고는 한 발짝 물러서지, 입씨름을 안 하거든. 동네사람하고도 입씨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맏동서하고도 싸우질 않고. ‘왜 형님 이러고 저라고 했느냐?’해도 ‘네. 잘못 됐네요’하고 넘어 갔어. 맏동서도 순하고.

근데 내가 못 하는 일이 없이 잘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 밭도 매고 길쌈도 하고 다 잘 하지. 쟁기로 논밭만 안 갈았다 뿐이지 다른 건 다 하거든. 처녀 때부터 산골에 살면서 해 봐서 논일이라면

다 해, 내가. 모심기, 베기 다 할 수 있어. 체구는 작아도 가을에 들에서 벼를 베면 논 한 마지기
다 베. 잘 베는 남자들이 한 마지기를 비는데 나도 하루에 한 마지기를 베고 그래.

김매기도 하셨어요?

억수로 하고 살았지. 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품팔이도 많이 다녔어. 기난해서 품팔이도 많이 다
녔어. 어렸을 때 일이 많아서 겨울에는 삼을 삼아서 물레질도 하고, 여름은 밭 매고, 누에도 두
번씩 치고 그랬는데,

여기 시집와서도 할머니들하고 물레질을 했어요. [물레질 할 때 노래 안 하셨어요?] 그런 노래
는 못 들었어요, 강원도는 그런 게 없고. 여기 지석리에서도 할머니들이랑 품앗이 다녀도 그런
소리 못 들었고.

내가 일을 할 줄 알고 할 일이 보이니까 그렇게 일을 한 거야. 보고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들
에 가서 벼를 베고 보리도 베고... 우리 시아주버니가 어떻게 여자가 단지를 잘 하냐고 그러더라
구. 들에 벼 베는 날 밥을 가지고 가서도 일꾼들은 밥 먹을 동안에 낫을 들고 톡톡툭툭 벼를 베
서 단을 매놨거든. 그러면 여자가 단지를 잘 한다고 다들 신기해하는데, 남자들 밥 먹고 있는 동
안 밥 먹는 거 보고 서있기 싫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야.

그럼 세간나고 언제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셨어요?

큰집에서 논 닷 마지기 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논 여남은 마지기가 내 땅이고, 밭 좀 해 먹는 거
좀 산 거고. 논 닷 마지기마다 우리가 한 댓 마지기 더 사서 그렇게 조그만하게 살어. 지금도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며느리가 딸 3형제를 낳아서 다 대학을 다니고, 큰 손녀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본에 가서 살고.

어머님은 논 다섯 마지기 일도 하고 다른 집 일 품도 다니셔야 하고. 할아버지도 다른 집 일도 하고, 집의 일도 하고 사셨어요?

그럼. 품팔이 일도 해야 하고. 집의 일도 해야 하고.

옛날에 일할 때, 김매고 이럴 때. 품 파는 거 말고 사람들 열 명, 열 다섯 명 모여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짜서 다니는 거 있었어요?

모심는 거. 모심는 건 그렇게 심어.

그걸 뭐라 그래요? 품앗이라 그래요? 두레라 그래요?

품앗이라 그래. 그걸 말하자면 두레를 짠다고. 옛날 말이 두레를 짠다고 그래. 오늘은 이 집에 하고, 내일은 저 집에 하고.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그렇게 짜서 다녀. 모심는 건 그렇게 했어요. 짠 사람들 일 다 끝날 때까지.

모심을 때 그렇게 하고, 김 맬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심을 때만 하고 김 맬 때는 품앗이로 하지. 김매기는 두레를 짜지 않고 모내기만 두레를 짬어. 두레는 몇 집이 이렇게 짜서 모심는 건 그렇게 하고,

모내기하고 김은 몇 번을 매요?

김매기는 처음은 호미로 매, 그걸 애벌이라고 모내기 하고 열흘 지나면 해야 돼. 이듬은 벼가 많이 크면 풀이 나니까 두벌 논을 매고, 그 다음은 피사리나 하면 돼. 두벌은 손으로 뜯는거고 애벌은 호미로 찍고, 세 번째는 안 해. 논은 두 번 매면 돼. 세 번 하는 사람은 손으로 하지. 뭐. 애벌 매고 두벌은 손으로 훔쳐. 그 땐 벼가 크고 풀이 크질 않으니 뽑으면 되거든.

할아버지께서 김매고 이럴 때 소리를 잘 하셨다면서요?

선소리를 하긴 했는데, 이 동네는 선소리내면서 논매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 받아주면서 하긴 하지만 이 동네는 논매기에서 선소리 쥐가며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

[옆에 앉아 계신 김기환 할아버지께 소리를 요청했지만, 귀가 많이 어두워지셔서 조사자의 질문도 할머니의 질문도 잘 알아듣지 못하셨다. 논 맬 때 북 치고 노래하고 그랬다고만 하신다. 조사자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논맬 때 하던 소리, 상여소리, 달고소리 등

을 여쭈었지만 웃기만 하시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하신다. 결국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께 다시 듣기로 한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소리를 잘 하셨어요?

논매기나 상여소리도 다 하셨어. 목소리가 좋아서 뽑혀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딸 시집 못 보낸다고 하지 말라고 밀리고 그랬어.

근데 목소리가 좋으니 젊어서부터 그렇세 소리를 했고, 노래를 부르면 들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요령 흔들면서 ‘어와 달랑’하면서 다니면 아들딸 시집장가 못 간다고 그렇게 못 하게 해도 사람들이 자꾸 요청하고 그러니 어떡해?

할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보면 배우는 거지. 장사 집에 가면 요령잽이들이 흔들며 하면 듣고 배우고. 그 건 글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 마을에 할아버지 말고 그 위에 잘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있었는데. 이이가 목소리가 좋고 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누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 보고 요령잽이를 시켰어. 그래서 나 몰래 하는 거야. 산에 가서 하면 내가 모르니까. 지석리 말고 다른 마을에도 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집안네 일이 있을 때 데려가서 하고. 내가 야단하고 못 가게 해도 사람들이 데려가고... 그러면 다른 동네에 가서 하면 돈이 몇 만원씩 나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끌고 가니...

소리는 젊어서부터 한 건 아니고 50대부터 했지. 노래를 하면 목소리가 좋으니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화장을 많이 하니까 안 하시는 거지.

할아버지가 요새 많이 어지럽고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긴 하는데. 천천히 물어보니 차멀미를 했는데 장에 가서 돌아다니고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어지러워 넘어지면서 먹은 것도 토했다 그러더라고. 119가 오고 경찰도 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거야. 그 뒤로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 김기환 어르신

할아버지 성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세요?

김기환, 올해 93세여. 신둔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 을축생. 소띠.

[조사자들이 어떤 노래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겨우 알아들은 할아버지께서, 옛날 노래는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 마을에 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이장, 반장이 당신을 데리러 왔는데, 소리 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리러 오는 것이었고 할머니가 못 가게 하니까 직접 모시러 왔던 것이라고 하셨다. 다른 동네 분들은 차를 가지고 모시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 소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조사자를 더 안타깝게 하였다.]

고향에서 할머니들한테 옛날이야기 들으셨지요? 호랑이, 도깨비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도 듣긴 들었지. 근데 그런 건 책에 실을 만한 건 아니고. 옛날 할머니들한테 들은 짐승 이야기, 도깨비 훌린 이야기가 전부야.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난 고소설을 읽어도 이런 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 삼국지도 다는 못 읽어도 조금 읽어봤구, 여자라도 전쟁 이야기를 좋아해서 삼국지를 읽었거든.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건 시시한 시집살이나 결혼 이야기만 있었는데, 난 조웅전, 충렬전 같은 전쟁에서 이기는 책을 좋아했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그런 책을 많이 사다놓고 읽으셨거든. 아버지가 읽는 소리도 듣고 아버지 몰래 책을 보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딸들은 학교를 안 보내셨어.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글을 읽으셨어요?

아버지가 옛날 분이신데도 칠판을 만들어놓으셨어. 거기다 한문 이름을 써놓고 이틀을 읽게 하고, 이틀 후에 지우고 물어보시는 거야.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 혼나고. 낫다. 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라는 지명을 한문으로 쓰고 읽게 하셨어. 여자가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셨는

데, 그래서 내 이름만 알고 글을 진짜 보고 읽지는 않았지.

고대 소설 읽는 것도 아버지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책을 보면 대충 아는 거지, 똑똑히 읽고 배우지는 않았어. 그냥 귓등으로 듣고 보고 아는 거지. 옛날에는 연필이나 책이 없었으니까 글씨를 못 쓰지. 읽는 것만 좀 알고 쓰지는 못 해요. 이름도 못 쓰고, 전화번호도 빨리 누르는 건 안 돼.

횡성에서 일하기 싫어서 이곳에 시집오신 건데 여기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일을 할 줄 아니까 한 거예요. 내가 시집왔을 때 맘동서가 33살이었는데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 밭도 못 매고, 길쌈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일을 했다. 처음 시집왔을 때 기운 옷, 기운 이불 이런 것만 덮고 있길래, 목화 심어서 따고 물레질하고 훌이불, 옷 다 해드렸어, 내가.

베 짜거나 실 자으면서 노래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노래도 하고 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일만 하고 노래같은 건 안 했어요. 일만 하면서 살았지 다른 취미는 없어. 부녀회에서 여행 가도 나는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여행도 잘 안 갔어. 부녀회에서 2, 3년에 한 번 가는 여행만 좀 다녔지 별다른 취미가 없어.

[정재인 할머니께서 남편 김기환 할아버지 걱정되는 말씀을 한참 하신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억력도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기억을 통 못 하신다. 귀는 70 넘어서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해서 며느리가 보청기 해드린다고 해도 당신은 귀 안 먹었다고 괜찮다고 하신다. 참전용사는 보청기가 무료이고, 작은 며느리가 그 회사에 다녀서 해 드린다고 해도 할아버지께서 한사코 안 하려고 하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이 알아들으셨는데 올해부터 거의 못 들으시는 것 같다.]

여기 산신제 터가 있고 절이나 교회가 없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교회 없는 마을은 처음 봐요.

교회가 있다가 다 떠났어. 옛날부터, 시집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 동네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절, 교회 이런 게 들어오면 못 산대. 박수무당이 여기 와서 2년 살다가 이사 가고, 요 사이 만신이 하나 생겨서 5~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서울사람도 많이 오고 이 동네 사람도 가더라구요.

교회가 들어왔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천이나 다른 동네로 나가지. 교회가 두 번 들어왔다 나갔어, 우연히 다 그래. 침 놓고 그런 사람이 와도 다 떠나고, 지금 있는 만신만 잘 하고 있어. 여주 사람인데 시집와서 살다가 만신이 됐는데 아주 잘 불려먹더라고, 난 가 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는 교회나 절 안 다니세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만 다녀. 이따금 정월에나 한 번 가지, 전에는 초파일에도 갔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잘 다니지, 난 절이라고 뭐 몇 번씩 쫓아다니고 그러진 않아.

마을에 산신제 터 말고 서낭당 터가 두 개 있죠?

서낭당 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 내가 알기로는 덕애 가는 곳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주 옛날, 돌로 전쟁하는 시대에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주워서 거기다 부어놓으면 그 돌로 전쟁을 한 거래. 그때는 돌이 많이 쌓이고 엄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는데, 지난 해 한그루가 죽어서 쓰러지고, 지금 있는 것도 쓰러져서 거의 죽어간다든대.

신작로 길 넓하고 공사하면서 돌 같은 것도 다 사라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고, 쓰러진 엄나무만 있어. 시집 왔을 때, 그 같은 자리에 엄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거든. 거기를 서낭당이라고 그려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애들이 아프면 가서 물 떠놓고 빌고 그랬지. 남은 엄나무 하나도 고목나무가 되어서 잎이 안 나. 내가 알기로 서낭당 터는 하나고, 엄나무가 두 그루야.

산신제 터 위에 성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글쎄, 우리 친정아버지가 여기 와서 보시더니 여기는 전쟁만 났다 하면 전쟁터라고 하시는 거야. 여기 성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를 뜯으러 가서 보니까 돌만 몇 개 있고 성 쌓은 자리는 없어, 저 산꼭대기에.

성이면 돌이 쌓여있어야 하는데 별로 없네 그러니까 성의 돌을 헬어다 뭘 했다고 마을 노인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는 전쟁이 나면 전쟁이 꼭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실제로 6.25년리 때 중공군은 소당산에서 쏘고 한국군은 여기서 쏘고 그렇게 닷새 동안 있었어. 그래서 수하리, 노가동으로 피란을 가니까 거긴 군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동네만 미군, 한국군 그냥 군인이 바글바글했어야. 중공군이 들어온 지 사흘 됐을 때 한국군이 들어오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며칠 있었어요. 밥도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친정아버지가 여기는 역촌이라고, 옛날에 서부터 전쟁하면 전쟁터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각성이 많지, 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라도 하시고.

6.25때 마을에 크게 나쁜 일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크게 나쁜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폭격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어. 비행기에서 폭격을 했는데 우리 시아주버니는 폭격에 맞아 눈 한 짹이 빠졌고, 작은 시어머니, 조카딸, 장조카며느리가 죽었어요. 우리 집에서만 그랬는데... 그날 저기 안씨 어머니가 아들은 피난가고 혼자 계시다가 폭격하는 바람에 날아가서 논바닥에 가서 떨어져 죽었는데, 얼마 만에 눈 속에서 그 시체를 찾아서 치워 줬어요.

시아주버니도 아들 형제를 데리고 피란을 가고 없고, 시아버지하고 맏동서하고 애들하고만 집에 있었지. 할아버지는 그 때 군대에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폭격을 해서 옆집이 불에 타니까 우리 집으로 불길이 넘어오길래 그 울타리를 도끼로 찍어 넘겼더니 다행히 우리집으로는 옮겨 불지 않았어.

피난은 안 갔어요. 난 큰딸을 임신하고 있었고, 조카들하고 시아주버니만 피난을 갔지. 그래서 시아버지하구 맏동서랑 같이 있었어요. 막 우당탕하고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폭격이 있어서 집들이 막 불에 타고... 그 때 집이 불 탄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작은 집도 저 아래였는데 타진 않고 벽이 무너져서 주저앉았더라구. 그 안에 작은 시어머니하구 조카딸이 죽고, 조카며느리도 자기 방에 있다가 폭격을 맞아서 죽었구.

[옆에 앉아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께서 ‘이 양반이 요새 부쩍 더 그러시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 같고.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까 나도 힘
이 들어. 나도 혈압약이랑 위궤양약을 먹는데 그래서 요새는 밀가루를 안 먹어요.’라며
두 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면담이 마무리 되었다.]

3. 마을 개발의 역군, 서상수 어르신

서상수 (徐相洙, 남, 77세, 1941년생, 뱀띠)

면담장소: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제보자 자택

면 담 일: 2017년 9월 11일

조 사 자: 시지은



서상수 제보자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상수(徐相洙), 141년생이고, 지석리에서 태어났어요.

몇 대 어른부터 지석리에 사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석리에 살았으니까, 내가 3대, 아들이 4대째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왜
지석리에 자리를 잡았는지요?] 그 때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니다가 여기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네는 원래 여기 와서 살았고.

근데 원래 마을이 저기가 아니었어. 나 사는 여기가 원래 미을이었는데 부자들이 많으니까, 옛
날에 도둑이 많아서 못 사는 거지. 살 수가 없어서 저 마을로 간 거지.



▶ 서상수 어르신 부모님 묘소는 원래 옛지석리 집터였다고 한다.
집 뒤의 허물어진 담장 흔적(가운데)과 흔히 발견되는 자기 조각들(오른쪽).

그럼 예전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건 나도 들은 전설인데... 지금도 저 꼭대기에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묻히신 그 땅에 옛날 기
와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 여기 진짜 그렇구나'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40년 전에 저기서 살다가 나는 상과(商科)를 나왔어요, 축산과. 근데 그걸 떠
나서 잘 살아봐야겠다 해서 소 몇 마리 가지고, 지금 여기 우사(牛舍) 흔적이 있지만, 소 100마
리를 먹였어. 아시지만 서울우유 여주, 이천, 용인 3개 군의 회장을 10년을 했어.



▶ 서상수 어르신 댁의 예전 축사



▶ 서상수 어르신 자택

그럼 황소가 아니라 젖소를 키우신 거예요?

젖소였지, 나름 잘 살아봐야겠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한 마리로 시작해서 100마리까지 늘렸어. 나도 의지가 대단한 거에요. 그리고 우사도 처음엔 작게 시작하여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해서 3단계로 늘려갔지. 나중에 크게 지을 거까지 예산해서, 100마리 들어갈 거까지 계산해서.

할아버지때부터 지석리에서 사신 건데, 할아버지께서 다른 데서 지석리로 왜 들어오신 자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어봤고, 그 때는 할아버지, 그 아버지 초년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를 받아서 그걸 피해서. 할아버지는 처가가 광주 도척면 유정리였는데 거기 정착을 하셨다가 여기로 들어오셔서 돌아가신 거지.

여기가 고향이시면 해방되기 전에 태어나신 건데,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렇지. 77년 동안 지석리에서 살았으니까. 해방이 내가 5살에 되고, 10살에 6.52사변이 났어. 그 때 농사밖에 더 있어요? 당시에는 놓자리를 새끼를 파서 줄에 끼워서 만들었어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렇게 막모를 심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비개미라고 명패 모양,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모를 넘기고 넘기고 그랬는데, 일본사람들이 놓줄을 만들었대는 거야. 그래서 그 골창에 바람이 들어가야 벼가 잘 된다 이거야.

그 비개미는 막대기로 짜 가지고 놓줄 모양 쓴 건데, 눈금을 표시해서 그거 놓고.

여기는 농사를 지을 때 김을 몇 번 맷나요?

김매기는 세 번 하지. 첫 번째는 애벌, 두 번째 이듬, 세 번째 세벌 이러지. 세 번째는 훔친다고 도 하는데, 다 호미로 매요. 나중에 네 번 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때는 물이 없으니까 훔치지.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은 네 번까지 매요. 논에 풀이 많으면 피사리를 하느라고. 그리고 우물을 팠잖아요. 그 때는 정부에서 우물도 파주고 저수지도 파주고. 그 때는 용두레로 물을 퍼서 쓰고. 동네 앞에 내챙이들이 있어. 벼루재들, 괜돌 이런 게 있어. 벼루재들에 농토 가

진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산다 그랬어요. 토질이 좋아서 쌀맛도 좋고, 그들은 땅값도 비쌌고. 그 벼루재들 1평을 팔면 여기 덕애들 4~5평 산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180도 달라져서 여기 가 더 금값이 됐어요.

농사짓고 소 키우는 거 말고 마을 일도 많이 보셨지요?

좀 봤죠. 내가 1972년도에서 1975년도까지 마을 이장을 봤죠. 내가 이장 할 때 농어촌 전기를 마을에 끌어왔어요. 신둔면 농어촌 추진위원회로 내가 들어갔었으니까 그 때 혜택을 봤고. 또 상수도, 이천에서는 이 동네가 자연 상수도를 제일 먼저 놨어요.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해 줬으니까. 자연 상수도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탱크에 모아서 거기서 집집마다 공급하는 거고, 지금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람이 다 파서 한 거 그 끝의 관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이장님 하실 70년대는 우리나라가 많이 개발되고 변화할 때잖아요?

그렇지. 1970년대는 거의 초가집이었는데, 72년도에 초가집에 전기 가설을 한 거지. [68년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아니, 72년에 들어왔고. 그 전에 방아를 돌려서 자연 전기를 쓰긴 했지, 정미소에 발전기를 연결시켜서 자연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썼는데, 그 구랑 꾸(크랭크샤프트)라고 그게 고장이 나면 전기불이 나가고 나가고. 근데 농어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기불이 꺼지질 않았지. 그렇게 이장은 한 3, 4년 했어요.

지석리에 산신제가 유명한데, 제관이나 축관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는 보통 가족이 5명 이상, 7명 이상이 살았는데, 가족 중에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가 불결하면 안 뽑아줬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지만.

그리고 제관이나 축관, 화부도 그 해에 연령이 맞아야 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이가 안 맞아서 해 보질 못 했어. 우리 아버지는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며칠동안 집에만 계시고 어디 안 나가시고.

혼인은 언제 하셨나요?



▶ 서상수·박명자 어르신 내외

우리가 몇 년 살았지? 53년 됐네. 내가 24살이고 아내는 23살에 중매로 결혼했지. 이 사람은 양주군 와부면 덕소에서 여기 이천으로 시집을 왔지. 그 땐 씨족을 가려서, 나는 서가, 이 사람은 은 밀양 박씨 뭐 그래서. 우린 서희 장군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뭐 잘 몰라요.

어머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명자. 저 이는 나보다 한 살 작아요. 말띠, 나는 뱀띠. [슬하에 자손은 어떻게 되세요?] 2남 2녀 둘어요.

어머님은 시집와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휴, 어마어마하게 했지. 내가 국민통일주체대의원이라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그런 거 하느라고, 이 사람이 혼자서 집안일을 다 했지. [아버님은 축사만 지으시고, 소는 다 어머님 이 기르신 거 아니에요?] 그 때 당시에는 다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도 집에 일하는 사람 7명을 두고, 이 아래 집이 그 일하던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

평화통일정책자문은 얼마나 하신 거에요?

그건 당시에 면사무소에 1명이 있었는데, 공화당 시절에 면민들이 뽑아줘서 자문의원을 한 거예요. 각 읍면에서 대의원을 1명씩 뽑는데, 내가 그래도 표를 2/3는 받았지. 평화통일정책자문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76년인가부터 한 10년.

사실 집에서 일 할 시간이 없어서 일 하는 사람을 뒀고, 그 때는 노동력도 많았고 소들 거울맥이 는 다 동네 분들이 와서 해 주시고,

김기환 어르신이 젊었을 때 상여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잘 하셨다는데, 귀도 많이 어둡고 기억도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소리 기억 하시는지요?

그 분이 잘 했지. 그걸 선소리라 그라는데 그런 거를 그 양반이 잘 하는 재동이에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고, 상여 나갈 때 요령을 흔들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이 정도 기억하는 거지. 모심을 때도 힘드니까 노래 하고.

6.25 때는 어떠셨어요?

옛날에 총알, 밥 이런 거 지고 나르던 사람을 ‘작업대’라고 불렀어. 일하는 데 보조하는 사람 ‘작업대’.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에 군인병으로 나가서 낙동강까지 가셨더랬어. 낙동강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구.

젊은 사람은 피난을 가게 했는데, 나는 군대는 안 가고 제1보충역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1보충역을 선포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 때 지방에서 보충역 교육을 받았는데, 기간요원이라고 4명을 뽑아서 2명은 면사무소 행정요원, 2명은 파출소에서 보안 그거... 그래서 우리 넷이 신둔면에서 군인 생활을 했지. 그렇게 나는 면 소재지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제1보충역 1기생으로 3년 동안 근무했지. 정부 시책으로.

마을이 정개산에서 보면 좌청룡우백호 형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지. 우리 마을이 좌청룡우백호로 되어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들었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사람이 죽으면 좌청룡을 비켜나서 동네 바깥으로 상여가 나가지.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지.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가는 거지. 마을에 길이 있어도 좌청룡우백호 헐을 넘지 못 한다. 상여가. 그게 동네 전설로 말하자면 마을의 법이었지. 지금은 다 변했으니까.

정개산을 소당산이라고 하나요?

아니, 정개산은 저 남정1리 뒷산을 정개산이라 하고, 우리 지석리 마을의 뒷산을 소당산이라고 해요. 마을에서 치성을 드리는 봉우리가 소당산, 소당산이 정개산보다 높고, 소당산보다 높은 산은 천덕봉이지.

소당산은 왜 소당산이라고 해요?

그 소당 뚜껑처럼 위에가 올라가 생겼잖아요. 솔뚜껑에 손잡이 달린 것처럼.

여기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벼루재들이라고, 백사면 대천리 99칸에 살던 대감이 말을 타고 가다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는데 그래서 말굽샘물이라고 하고. 그 양반이 무슨 흥판 무슨 대감이라고 하는데. 말굽샘물은 벼루재들 밑에 고인돌 있는 데 거기지.

지석리에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나요?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잘 모르지. 근데 이 마을에 서씨네하고 허씨네가 많아. 예전엔 대성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서씨가 한 10여 가구, 허씨가 한 10여 가구 되나? 지석리 서씨는 서로 일가, 허씨는 서로 다 일가야, 일가.

산에서 호랑이나 도깨비를 만난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뒷산 골짜기에 새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천 장을 다니다가 길 늦고, 걸어

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대범한 사람은 같이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같이 가다가 호랑이가 사라지고... 호랑이가 바래다준다는 전설도 있지.

새재골로 가면 서울을 질러다니니까 과거 보려 가는 사람들도 거기로 다니고, 거기로 질러가면 서울하고 광주분원을 빨리 갈 수 있지.

마을에 어떤 큰 인물들이 있나요?

마을에 그래도 교육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김호영선생님이 신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했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허황선생님도 도암초등학교에 계시다가 신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나 지금은 돌아가셨고, 전석길선생님도 도암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하셨지. 그 분은 퇴임해서 지금은 지석리에서 사시고. 여기 도암초등학교 있지만, 거기 세종대왕 동상을 내가 세워 놨지. 나는 이 학교에서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이 학교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동상을 세웠지.

지금 이장님은 어르신 아드님인데, 전 면장님 허연 어르신하고 어르신께서 젊은 이장을 추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먼저 허연 면장님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하라고 권유를 했고, 나도 젊은 사람이 이장이 되면 추진력이 강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을에 버스도 들어오도록 권유도 하고 추진도 하고.

지금 이장님께서는 마을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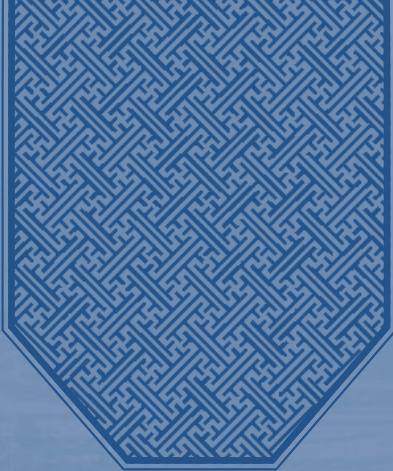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일단 마을을 관광지역으로 만들려면 도로가 2차선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있는 곳 이렇게 남정리에 있는 전철역까지 2차선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을이 개발되어야 주민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난 좋다고 생각해요.

마을 산신제나 전설이 있는 바위 같은 것도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이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다. 소빈바위만 봐도 그걸 관람하려면 우선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하고, 마을을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간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건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하거든.

내 생각에 유치원 아이부터 학생들까지 관람하기도 좋은 곳은 소반바위와 문두바위, 산제사를 드리는 매바위 그런 거를 조금만 꾸며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곳을 개발하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틀바위와 소당산 봉우리도 좋지만 그곳은 험해서 갈 수가 없고. 근데 그게 힘들죠, 보통 힘든 일은 아니니까.



IX

지석리 마을 문화자원 활용 방향

1. 마을 기록의 의의와 활용전략

마을기록은 단순히 개인과 공동체의 과거 기억을 보존·관리한다는 영역을 넘어서 시공간적 범위와 기록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아카이빙의 필요와 효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화재 활용이나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정책제안서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기록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경제성에 집중하는 관심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을지 발간 단계가 곧바로 ‘도시 브랜딩’이나 ‘문화상품개발’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가시적인 경제적 성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을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누적되고 전통마을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후속조치와 대책이 필요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석리 마을지는 전승위기에 처한 민속자원인 소당산산신제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마을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기본조사를 통해 문헌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 및 공동체 구술채록을 진행하였고, 마을의 이력과 생활, 문화자원에 대한 기본조사와 일차적인 기록에 집중하였다. 해당분야 연구자는 현황과 가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므로 활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지석리가 가진 문화적 특성중 뛰어난 경관과 입지는 인위적인 개발과 조성을 유인할 수 밖에 없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공동체의 판단과 협의에 봇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석리마을 공동체 문화의 내적 가치에 집

중하여 그 문화적 특성을 정리하고 현대사회를 향해 메시지화가 가능한 몇가지 담론을 제시함으로 활용전략을 갈음하고자 한다. 전통의 의미를 공적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개발로도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으며, 더 없이 유리한 지역특성화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이천의 전통문화유산 ‘소당산 산신제’

- 일제에 의한 전통문화 말살정책과 해방직후 발발한 한국전쟁, 맹목적인 경제성장에 밀려 등한시되었던 우리의 옛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잉여자원의 불공정한 배분과 그로 인한 갈등, 경쟁이 일상화된 현대에 산신제의 제물과 음복의 공평한 배분이 지닌 새로운 가치의 발견

2. 조각난 현대사회를 대신할 ‘자족과 상상의 마을공동체’

- 바위, 돌, 산 등 지역의 지형지물을 공동체만의 언어로 호명하고 소통의 도구로 유통시켜 일상의 특별함을 완성함
- 완제품 소비에 익숙한 현대인들도 공동체의 환경을 관찰하고, 일상을 성찰하여 자족의 기쁨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오랜기간 전승된 마을 이야기와 일상의 상상력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 증명

3. 전통문화 전승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새로운 지역정체성’ 확장

-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무관심으로 단절될 위기에 처한 민속자원에 대한 지식리 구성원의 자체 진단,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록
- 토박이의 지역정보를 매개로 아주민과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연대를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방법을 공모하여 새로운 마을문화를 형성도 가능하게 됨

4. 예술가와 마을주민의 일상적인 교류로 ‘문화마을’로의 변화를 실험

- 예술가가 낯설지 않은 지식리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예술프로젝트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실험적인 활동은 문화마을로서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됨

2. 지석리 마을 문화자원 활용 소재

지석리 마을의 활용 소재는 역사자원, 건축자원, 생태자원, 민속자원, 이야기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구분은 본 책자 집필 과정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구분임을 미리 밝혀두며, 역사자원이나 생태자원, 민속자원 등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점은 기준 집필 내용에서 구분한 분류를 지키기 위함이다.

역사자원으로는 ①고목, ②권돌교, ③성황당 터, ④지석리 지석묘(고인돌), ⑤소당산 산신제 터, ⑥매바위·감투바위·소반바위, ⑦소반바위, ⑧회틀굴·베틀굴, ⑨옛 성터, ⑩매장문화재 등이 있으며, 건축자원으로는 오래된 살림집으로 ①허상희씨 집, ②김낙진 씨 집, ③강우석씨 집, ④강윤태씨 집이 있으며, 이 밖에 최근 건축되어진 개성 있는 주택들도 포함된다. 각각의 문화자원의 중요도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역사성 및 지역성(특수성),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역사자원에서 고목, 지석리 지석묘(고인돌), 소당산 산신제 터, 감투바위, 베틀굴, 성터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생태자원으로는 주요 산으로 소당산, 주요 하천으로 권돌천, 수하천, 당하천이 포함되며 이 밖에 은행나무, 참죽나무, 느티나무 아까시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대표 수목들이 있다. 생태자원의 경우에는 생태 특화 사업 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마을 진입부의 느티나무와 마을 회관 건너편의 참죽나무는 마을 공동체 문화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속자원으로는 소당산 산신제가 꼽힌다. 이 산신제는 당장 축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지석리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소재이기도 하다. 소당산 산신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의례 과정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다만 여산(女山)인 소당산에 황소를 바치는 과정 등이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엔 무리가 있어, 기존 제사의 복제를 통한 축제콘텐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

이야기자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①소당산 산신제 관련 이야기, ②지명 유래 관련 이야기, ③민담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산신제 관련 이야기가 4건

이며, 지명유래 관련 이야기가 4건, 민담이 6건으로 총 14건이다. 해당 이야기들은 마을 둘레길을 조성하거나 활성화할 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지석리 마을과 함께한 토박이의 삶은 ‘기억 기록’, ‘사람 책 도서관’등의 활용 기획을 통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석리 주민들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구술·채록 자료에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석리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은 도서, 간행물,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시기획,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축제, 관광 등의 문화콘텐츠로 개발 및 제작될 수 있다. 지석리 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목적은 문화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마을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더불어 마을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체험시킴으로써 지석리 마을의, 더 나아가 이천시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차적 목적이다.

3. 축제 기획을 통한 활용

1) 축제의 속성

축제의 영어 ‘Festival’이라는 말은 어원은 종교 의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라틴어 Festus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Feria이다. 이를 합하면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종교 의식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과거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제의식을 뜻한다.

우리나라 말로 축제(祝祭)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을 말한

1 소당산 산신제의 원형은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하여 철저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복제를 통해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중들이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유희성’, ‘비일상성’을 충족시켜 나가야 하겠다.

다.² ‘축’은 ‘빌다’혹은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면, ‘제’는 ‘제사지내다’라는 뜻을 가진다. 즉, 우리나라의 축제는 어원을 통해 제의적 성격이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된 축제로는 신라시대에 시작된 팔관회(八關會)³, 고려조의 연등회(燃燈會)⁴, 고려와 조선시대에 나례(儺禮)⁵ 등이 있다. 팔관회와 연등회의 경우에는 불교적인 색채와 제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들어나는 축제였으며, 나례의 경우에는 샤머니즘의 색채와 제의적인 색채가 들어나는 축제였다. 류정아(2003)는 축제의 원형적 특성을 ‘종교성’, ‘유희성의 의례화’, ‘비일상성과 전도’, ‘초월적 에너지의 획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의와 유희로 채워지고, 비일상성으로 가득한 축제를 통해 초월적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조성애(2003)에 의하면 축제는 인간적 삶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제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다. 고대 축제에서 신을 맞이하고, 접촉하고, 보내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화와 성화를 이루어내는 영적 체험의 과정을 축제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축제를 통해 일상적 사물은 무한의 영역으로 열리면 신성과의 소통의

2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7, p.5.

3 《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는 551년(진홍왕 12)에 처음 행해진 이래 4 차례의 기록이 보인다. 특히 이 때 행해진 팔관회는 모두 호국적인 성격이 짙었다. 이런 팔관회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고려조에 들어서였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天靈) 및 오악(五惡)·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밀하고 있다. 하지만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도둑질·간음·헛된 말·음주를 금하는 오대계(五大戒)에 사치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덧붙인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4 팔관회와 더불어 신라 진홍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힌 불교 법회이다. 이 두 행사는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의 제 6조에서 후대 왕들에게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항이기도 하다. 태조는 여기서 연등회를 ‘불(佛)을 섬기는’ 행사라고 말하였다.

5 가면을 쓴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일정한 규식에 의거해 구귀축역(驅鬼逐疫)하는 주술적 벼사의례(辟邪儀禮). 『예기(禮記)』에 의하면 계춘(季春)에는 국나(國難), 중추(仲秋)에는 천자나(天子難), 계동(季冬)에는 대나(大難)를 행했다고 하였다. 초기 나례는 방상씨(方相氏) 중심의 단순한 구역의식(驅疫儀式)이었으나, 이후에는 질병의 근원인 여역(癘疫)은 물론 모든 재앙과 재해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잡귀와 잡신들을 물리치는 총체적 벼사의례로 부상되었다. 나례가 총체적 벼사의례로 부상되면서 나의식(難義式)에 나신(難神)이나 태음신(太陰神)에 대한 제의가 부가되었고, 이와 함께 오신적(寤神的) 가무나 오인적(寤人的) 가무가 나의식에 병연(併演)되어 성대한 굿놀이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추어갔다.

길, 통합의 길을 열어준다. 다만 현대축제에서는 초월적 체험보다는 구복의식만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본질적인 상실의 배경으로는 산업사회의 도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에 의한 역사성에서 신성성의 상실, 도시의 역할 등을 들고 있다.

이훈(2006)은 축제 속성을 일탈성, 놀이성, 대동성, 신성성, 장소성의 속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축제 체험을 축제 참가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와 사회적 관계 및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구조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경험으로 판단하였다.

임재해(2010)는 페스티벌(Festival)을 한자로 번역한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축제를 ‘마쓰리’라고 일컫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에 마쓰리가 있다는 것은 일본에는 전통적인 축제 문화가 전승되고 있음을 뜻하며, 축제라는 용어로 일반화하기 힘든 일본만의 고유한 축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축제의 속성으로 ‘유희성’, ‘역사성’, ‘제의성’, ‘특수성’으로 나눈다.⁶ 축제의 유희성은 고대에 축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갖추고 있던 속성으로 유희적인 요소를 말한다. 역사성은 축제의 소재나 개최지역, 축제 공간 내의 유·무형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해 축제의 역사적인 근간을 나타내는 요소로 축제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된다. 제의성은 과거에 비해 약해진 측면도 있으나, 전통계승형 축제나 종교적 성격을 띠는 축제에서 들어나고 있다. 특수성은 한 축제가 타 축제와 구분되는 특징을 말하며, 특히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특성과 연관이 깊어 지역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 현대의 축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 축제의 속성

구 분	내 용
유희성	인간의 역사에서 축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갖추고 있는 축제의 유희적인 요소.
역사성	축제의 소재나 개최지역, 축제 공간 내의 유·무형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해 축제의 역사적인 근간을 나타내는 요소
제의성	과거 축제에서 중요시된 요소로, 현대에는 전통계승형이나 종교적 성격이 강한 축제에서 나타나는 요소.
특수성	타 축제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특성과도 연관이 깊어 지역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 현대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축제는 당초 신성성을 강조한 제례에서 유래가 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그 의미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성격에 맞는 축제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축제 기획의 중요요소

공간 구성

축제의 공간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보자면 ‘감상공간’과 ‘놀이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소재에 따라 두 공간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겠다. 놀이공간은 축제의 중심소재를 활용한 축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축제 관련 상품판매 및 음주가무가 행해지는 유희적 공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감상공간에서 파생되어 나온 확장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축제의 공간 구분

구 분	내 용
감상공간	축제의 소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축제의 소재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화류놀이 성격이 있는 축제에서는 중심이 되며, 부각시켜야 할 공간이다.
놀이공간	감상공간에서 표출되는 소재를 활용한 축제프로그램 및 축제 관련 상품판매, 음주가무가 행해지는 유희적 공간을 말한다. 감상공간에서 파생되어 나온 확장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감상공간의 중요도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놀이공간은 감상공간의 범위를 침범하면서 까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감상공간과 놀이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축제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방문객의 동선(動線)을 감상공간에서 확산되어 놀이공간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6 신창희, 「지역축제의 기획전략에 관한 연구」, 『향토사연』, 제 23집, 2013, p.123.

스토리텔링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인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The action of telling stories’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활동인데, 이 활동은 현대사회의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것까지 그 범주에 속한다. 즉, 특정 이야기를 담아 전달한다면 영상, 음악, 작문,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스토리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틀로서 사고와 감정을 필터링해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사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다양한 형식으로 발화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⁷

축제의 기획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축제소재와 연계된 스토리라인(Story-line)의 창출이다. 이는 축제의 중심소재를 활용해도 되고, 축제공간에 있는 상징적인 장소나 자연물, 인공물, 건축물 등을 활용해도 된다. 무엇을 활용하더라고 축제와 연계되는 스토리라인을 발굴한다면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특수성을 얻을 수 있다. 축제에 있어서 특수성은 타 축제와 구분되어 정체성을 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초석이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문화’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산업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OSMU의 선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축제의 스토리라인이 창출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제의 스토리라인에 맞는 캐릭터가 개발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축제홍보·체험프로그램·문화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감성과 지식의 발현이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축제를 감성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거기에 축제의 역사 및 의의를 담은 지식 또한 같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감성적인 측면을 통해 축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

7 김은혜, 「스토리텔링 광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3.

8 이희원, 「Storytelling 요소가 문화관광축제의 기획과 축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8, p.16.

축제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공간구성 중 놀이공간에서 각종 축제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축제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일정 부분은 통제되어야 한다.

먼저 축제프로그램은 일관적으로 축제의 소재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 각기 다른 축제이지만 방문해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축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야말로 방문객들을 재방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 지석리 마을 축제 기획 방향

주지하다시피 이번 책자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석리 마을의 문화자원이 조사되었다. 각각의 문화자원은 하나의 축제콘텐츠로 개발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소당산 산신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소당산 산신제는 소당산 큰골 중턱에서 제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은 여신(女神)이라 믿어지며, 이에 산제사 제물로 황소를 올린다. 또한, 소당산의 산신은 호랑이신이기도 하다. 즉, 호랑이 여산신이기에 현재까지도 산신제 터에 여성과 총각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모든 제사의 진행은 결혼한 남성들이 주관한다. 산신제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내왔는지에 대한 문자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매우 오래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지속해 왔다고 전해진다. 대부분의 산신제가 그렇듯이 마을의 평안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거행되며, 격년으로 2월 초이틀(음력) 밤에 지낸다.

이와 같이 소당산 산신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원형을 보존해야할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높다. 더불어 위에서 밝힌 축제의 4대 속성인 ‘①유희성, ②역사성, ③제의성, ④특수성(지역성)’중 기본적으로 ‘역사성’, ‘제의성’, ‘특수성(지

역성)’이 내포되어 있어 축제로의 개발에 용이하다. 하지만 제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원시성’과 ‘은밀성’으로 인해 유희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매우 낮아 원형 그대로가 축제로 구현되어 현대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식리 마을 축제의 기본 방침으로 ‘원형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복제를 통한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사 원형의 진행 일시는 음력 2월 2일이며,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진행된다. 제사의 과정은 ① 제관·화부 제사 터로 이동 → ② 불 피우기, 밥하기, 조라술 담그기 → ③ 제물 옮기기, 떡 안치기 → ④ 소 가죽 말리기 → ⑤ 제물 맞추어 진설하기 → ⑥ 떡 시루 올리기, 선지국 끓이기 → ⑦ 조라술 확인하기 → ⑧ 의관 갖추기, 제단으로 이동 → ⑨ 제사 지내기(산제사, 초현, 아현, 축, 종현, 소지, 음복) → ⑩ 하산, 마을 주민들 음복, 제물 분배’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일시, 참여자,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 방식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소당산 산신제를 축제콘텐츠로 개발할 때에는 복제를 통한 활용이 추진되어 전통 방식을 해체하여 유희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제사가 갖고 있는 역사성, 제의성, 특수성은 그 정도에 맞춰 유지되어야겠다.

축제콘텐츠 개발을 위해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일시’이다. 음력 2월 2일은 원형 제의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짜이지만, 축제를 개발할 때에는 5월이나 10월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새로운 축제 일정을 선정할 때에는, 기존 이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수유꽃 축제’나 ‘쌀문화축제’등과 일정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중심 소재’이다. 원형 제사의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추출하여야 하며, 보다 정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사 지내기’, ‘떡 안치기’, ‘조라술 담그기’, ‘음복’, ‘제물 분배’등이 꼽힌다. 원형을 복제하여 축제를 진행할 시에는 제사를 재현하는 장소도 여러 관광객이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마을회관 건너편 공터를 정비하여 간단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떡 안치기’, ‘조라술 담그기’는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겠으며, ‘음복’ 및 ‘제물 분배’후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 시설도 마련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소당산 산신제를 복제하여 연희되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기존 소당산 산신제 원형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출판물 제작이 필요하다. 해당 책자를 통해 소당산 산신제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둘레길 조성을 통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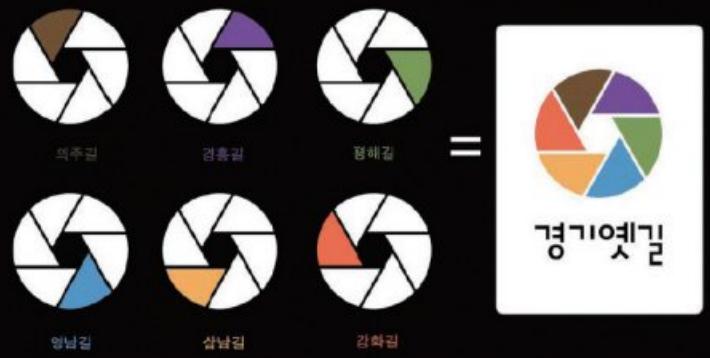
1) 둘레길 의미 부여 방안

지식리 둘레길 조성은 없던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둘레길의 브랜딩이 가능하다. 의미 부여 작업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①둘레길 명칭 선정, ②BI(Brand Identity) 제작, ③안내체계 구축, ④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⑤문화상품 제작’이다.

‘둘레길 명칭 선정’ 단계는 해당 둘레길의 지역성과 장소성, 그리고 정체성이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명칭 선정은 관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도보길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주민대표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레길 명칭의 예를 들어 ‘제주 올레’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를 통해 지역성과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도 사투리 ‘올레’를 통해 해당 길이 제주도 마을의 골목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지리산 둘레길’의 큰 성공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OOO 둘레길’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명칭 선정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살린 ‘군산 구불길’이나 ‘경기도 평화누리길’, ‘경기도 옛길(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BI 제작’ 단계에서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지역성과 장소성, 그리고 정체성이 올곧이

6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경기 옛길



경기도가 조성하는 옛길에는 통신로뿐만 아니라 일간 도시(아파트단지 및 풍천)를 포함하기 때문에 꼭 그길을 찾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에게 친근감있고 이질감없는 더불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시체를 선별함에 신경을 기하였다. 이미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사용하여 친근한 이 시체는

▶ 경기도 옛길 BI

표출될 수 있는 상징물이 제작되어야 하며, 미학적으로도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옛길은 1770년 조선시대 지리학자 신경준이 집필한 『도로고』에서 언급된 6대로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보길이며, 위의 그림이 경기도 옛길의 BI 이미지이다.

경기도 옛길 사례와 같이 당해 도보길의 지역성과 장소성, 그리고 정체성이 잘 들어날 수 있는 BI 제작이 필수이며, BI는 향후 ‘안내체계 구축’,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문화상품 제작’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안내체계 구축’은 해당 여행 지역을 잘 모르는 여행자가 쉽고 안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내체계는 이용자 측면에서 길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길과 그 주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방법·안전사고·주의사항 등의 이용수칙을 사전에 이해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용 상 불편 및 위험발생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며, 이용자와 관리자 간 원활한 고통을 증진시키고, 관리효율을 높여준다. 안내체계의 종류는 ‘①종합안내판, ②길명판, ③자원해설판, ④주의표시판, ⑤계시판, ⑥방향지시대, ⑦표식’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그 역할은 제각기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⁹

⁹ 문화체육관광부, 『걷는 길 안내체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3, pp.1~4.

■ 안내체계 종류 및 내용

기능	시설종류	세부내용	설치구분	설치지점
안내 및 정보 제공	종합안내판	도보길 주요 루트의 이름과 번호, 도보길의 역사 등의 정보 제공	필수	도보길 시·종점 특정지점
	길명판	도보길 이름 표시	선택	
	자원해설판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등의 인문자원과 생태자원에 대한 정보 및 스토리텔링 게재	선택	
	주의표시판	사고방지, 자연보호, 공공질서 유지, 이용규제 등 게재	필수	
	게시판	계절적인 제한사항이나 일시적인 행사 등의 가변적 정보, 그 외 도보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로운 형태로 게시	선택	도보길 시·종점
방향 유도	방향지시대	도보길 상의 특정한 지점에서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 정보 제공	필수	노선 상
	표식	도보길 상의 표찰, 리본, 바닥표시 등으로 방향 안내	필수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은 안내체계 구축의 부가적인 방편이지만, 관공서 등에 배치하거나 웹 상에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도는 도보길의 코스 별 안내가 들어가야 하며, 시·종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이드북은 노선 상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예술 등의 인문자원과 생태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여 해당 도보길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도보길 문화상품(경기도,『남한산성 옛길 Branding Design』, 2017, pp.125~132.)

‘문화상품 제작’은 B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계이며, 도보길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팬덤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 향유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상품이 제작되어야 한다. 문화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으며, 아래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남한산성 옛길의 문화상품 디자인 시안들이다.

2) 둘레길 특화 방안

최근 저탄소 녹생 성장이 부각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자연 보호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경향은 관광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관광객 유인 가능성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던 기존 개발 위주의 관광 정책에서 문화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혜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광의 형태가 단순한 소비형 대중관광에서 가치지향형 체험·교육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트렌드 변화로 도보길은 어느새 현대인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¹⁰

2007년 제주 올레가 개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이래 전국 도보길 수는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겪었고,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총 590개의 도보길, 1,639개의 도보 코스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보길의 양적 성장과 비례하여 도보 참여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 종목으로 ‘걷기’가 1위를 차지한¹¹ 2014년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²

하지만 이런 도보길 열풍의一面에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가장 돌출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백여 개의 도보길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길의 이름만 다를 뿐 코스가 중복되는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각지의 도보

10 노경국, 「도보여행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 제주올레 여행객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7권 제2호, 동북아관광학회, 2011, p.132.

11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걷기 35.1%, 등산 23.0%, 보디빌딩(헬스) 12.0%, 축구 8.1%, 자전거(사이클) 7.7%, 수영 6.2%, 배드민턴 5.3%, 요가 4.7%, 농구 3.3%, 골프 3.0%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걷기의 선호도는 등산 22.8%를 넘어 38.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p.145.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생활체육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5, p.129.

길이 국가·기관·단체 등 관민을 막론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조성된 까닭일 것이다.¹³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 올레의 성공에 자극받아 조성이 시작되었던 만큼 대부분의 도보길이 자연 경관만을 노선 설정의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길 사이에 차별화할 만한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도보길 테마 구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는 도보길을 ‘①문화생태탐방로, ②생태탐방로, ③해안누리길, ④숲길, ⑤누리길, ⑥쉽게 걷는 길, ⑦야생화 길’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전국 대부분의 도보길이 특성화할 주제가 없어 경관 위주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연하자면 더 이상 도보길과 도보 인구의 양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길 안에 담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그에 맞는 노선 선정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지석리 마을의 둘레길은 그 안에 담겨진 콘텐츠에 집중해야 하며, 그 콘텐츠는 본 책자에서 조사된 다양한 문화자원들일 것이다.

5. 지역민 기억 기록을 통한 활용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을 통해 문화원형이 발굴됨과 동시에 음성 녹음 자료, 영상 촬영 자료, 이야기자원 등의 대리표상도 동시에 확보되어진다. 본 책자도 주민들의 기억을 문자로 기록한 자료이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음성이나 영상을 기록하여 웹 상에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음성이나 영상으로 기록된 자료가 웹 상에 게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의 ‘메모리 人 서울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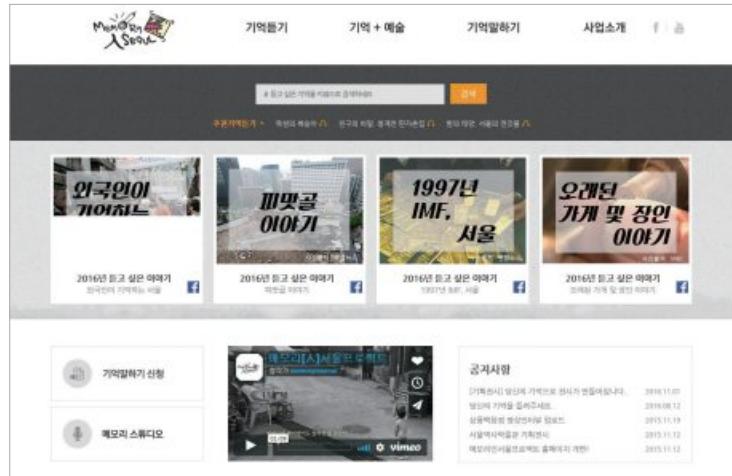
.....
13 정대훈, 「옛길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5호, 2014, p.23.

14 신창희, 「남한산성 옛길의 고증과 활용」, 『글로컬창의문화연구』 제8집, p.12.

의 발전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는 일반 시민들의 기억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미래 세대에 지침서를 제공한다는데 있다.¹⁵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798건의 기억이 수집되어 제공되고 있다.

수집된 기억들은 주제별·지역별·시대별·기획주제로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주제별은 ‘강남, 교통, 달동네, 떡볶이, 상경, 시장, 아파트, 연애, 유년, 음식, 청계천, 카페, 학창시절, 한강, 서점, 홍대, 민주화, 한국전쟁, 명동, 놀이, 삼풍백화점, 2002 월드컵, 동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구분되고, 시대별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총 6개로 구분되고 있다. 기획주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억 기록이 추진되어 지는데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2002년 월드컵, 추억의 동대문’에 대한 기억이 기획주제로 수집되었다.

물론 위의 사례는 서울이라는 큰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억 기록이지만, 지석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억 기록 자료는 지석리의 문화자원이나 축제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를 개설할 때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마을을 중심 주제로 한 기존의 웹 페이지가 단조로웠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외부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

15 메모리人 서울 홈페이지 : <http://www.sfac.or.kr/memoryinseoul> (검색일자 : 2017. 11. 29)

집필진

남창근(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학술부장)
시지은(경기대학교 강사)
신창희(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유영초(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삽화

박정화(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자문위원

조명호(이천문화원 원장)

기획 및 진행

이지훈(경기학연구센터장)
윤소영(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고영창(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김유미(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경기마을기록사업 8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횃불고을 산신마을

발행일 | 2017년 12월 23일

발행처 | 경기도(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문화재단(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이천문화원(17365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19)

문 의 | 031-231-8573

제 작 | 이른아침(02-3143-7995)

이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원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999-0100-3

비매품

